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정기보고를 위한 전자양식

2019 에디션

유네스코 전자제출본(2022.9)

일반정보

기술 정보

당사국명(국가)	비준일		
Republic of Korea	1일	4월	2010년
공식적으로 지정된 협약 업무 담당자 연락처			
호칭	이름	성	
Ms. Mr.	성미	양	
전화	주소	이메일	
+82 44-203-2516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 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mymariah20@korea.kr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4년 주기 정기보고서(QPR) 작성에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세부 연락처. 만약 시민사회단체(CSO)가 4년 주기 정기보고서 초안 작업에 참여했다면, 이들의 연락처(CSO 양식 포함)도 함께 기재해 주십시오.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메일 brj@kcti.re.kr
웹사이트 <https://www.kcti.re.kr/>

기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메일 ybk@unesco.or.kr
웹사이트 <https://www.unesco.or.kr/>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메일 kcdm@arko.or.kr
웹사이트 <https://www.arko.or.kr/>

기관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이메일 diversity@snu.ac.kr
웹사이트 <http://diversity.snu.ac.kr/>

기관 경기문화재단
이메일 hwang2138@ggcf.or.kr
웹사이트 <https://www.ggcf.kr/>

기관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ITEJ Korea)
이메일 assitej@assitejkorea.org
웹사이트 <http://assitejkorea.org/>

기관 제주학연구센터
이메일 kimmijin@jst.re.kr
웹사이트 <http://www.jst.re.kr/>

기관 프로듀서 그룹 도트
이메일 jsunarts@yahoo.com
웹사이트 <http://producergroupdot.kr/>

기관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이메일 wandtlab@gmail.com
웹사이트 <http://womanopentechlab.kr/>

기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이메일 jangyechong@fdca.or.kr
웹사이트 <http://www.fdca.or.kr/>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립된 여러 이해당사자간 협의과정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QPR) 준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면인터뷰 및 서면 자문내용이 상당 포함됩니다.

협약 이행 보고서 초안은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작성하였으며, 연구원은 모범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관련 통계 데이터는 대한민국 통계청(KOSTAT)이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수집된 조치 및 사례는 '문화다양성위원회'에 의해 평가되었습니다. 보고서 준비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4월~6월 기간 동안 10회의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워크숍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취지를 공유하고 수집된 사례를 논의하였습니다.

이 초안을 기반으로 국가보고서(QPR)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요약본

이 한 페이지 요약본은,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시행을 위해, 당사국들 정책의 주요 목표와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요약본은 보고서에 대한 소개가 아니며 주석이 달린 목차는 아닙니다. 이 요약본은 정부 간 위원회와 당사국 총회에 제출됩니다

대한민국은 유네스코의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을 문화정책을 관통하는 주요 가치로 삼고, 법, 제도 및 문화정책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근거하여 2021년 최초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년)’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다양성 정책을 사회 전반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목표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생태계 조성입니다. 특히 근래에는 인구구성의 변화와 사회적 갈등 및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가 공존·상생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인식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시 처벌조항을 명시하는 등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법에서 선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술인 및 문화분야 종사자의 일자리 환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음 정책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순위는 협약의 목표와 분명히 일치합니다.

1. (거버넌스 체계/인권과 기본적 자유) 다양한 문화가 공존 및 상생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정보 데이터 관리,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교육, 이주민 및 소수자의 문화참여 접근성 보장 (배리어프리, 미디어 리터러시 등) 정책을 강화. 특히 2020년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국제교류, 표준공연장 등 적극 지원
2. (예술가와 문화종사자 이동성)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양성 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1년 제정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예술가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보험 등의 정책을 추진
3. (균형적인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제작·유통)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상품 및 서비스 생산, 소비, 유통 변화에 대응하여 2020년 ‘따뜻한 연결 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 전략’을 추진하고, 소멸·소외될 수 있는 지역어, 독립예술, 전통문화 보호 및 지원을 확대
4.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 문화예술 전문가의 국제적 이동성 지원과 개도국의 문화창의산업(CCI)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탁기금에 자발적인 기여를 하며, 제3세계 국가와 문화교류를 확대

Goal 1.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지원¹⁾



문화·창의 분야

소개

당사국은 문화·창의 분야를 지원하고 자국의 영토(국가, 지방 또는 지역 수준) 내에서 그리고 문화적 가치 사슬의 다양한 단계(창작; 생산; 분배/보급; 참여/향유)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채택한 규제 프레임워크 및 부문별 정책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국은 또한 예술과 문화·창의 분야의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정신을 지원하는 조치와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당사국은 또한 국가 및 지방/지역 정부 당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요 질문

1. 정부부처(혹은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정부기관)가 문화·창의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예 아니오

2. 지방, 광역 혹은 지역 정부나 해당 행정 기관은 문화·창의 분야를 증진하는 정책과 조치에 대한 분권화된 책임을 가진다:

예 아니오

3. 지난 4년 동안, 문화·창의 산업을 지원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및 분야별 해당 법률, 정책 및 전략이 개정되거나 채택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3-1. '예'인 경우, 이들 중 최소 하나가 부처 간 협력(통신, 교육, ICT, 무역, 외교, 노동, 금융과 같이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다양한 정부 부처 간 연계)을 통해 설계되었다:

예 아니오

4. 다음과 같은 예술 및 문화·창의 분야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다:

- 창작 및 실험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 다음과 같은 기술적, 직업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영화/시청각 예술
 - 디자인
 - 음악
 - 공연예술
 - 출판
 - 미디어 아트
 - 시각예술
 - 문화경영
- 다음과 같은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 학위과정:
 - 영화/시청각 예술
 - 디자인
 - 음악
 - 공연예술
 - 출판
 - 미디어 아트
 - 시각예술
 - 문화경영

5. 지난 4년 동안, 다음과 같은 특정 조치 및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 문화·창의 분야의 일자리 창출 지원
- 문화분야 중소기업의 정형화 및 성장 장려

6. 지난 4년 동안, 통계청 또는 연구기관을 통해 다음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했다:

- 문화·창의 분야 관련
- 문화정책 평가

1) 이하 달러 환율 1,313.80원 적용(2022.8.18. 기준)

통계

1. 국내총생산(GDP)에서 문화·창의 분야가 차지하는 점유율 (미국 달러 기준)

GDP 대비 콘텐츠산업 부가가치액 비중 : 2.61% (505,452억 원, 약 385억 달러) / 2020년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조사)

1-1. 가능하면 최대한 분야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부가가치액	분야	부가가치액
출판	87,590억 원	방송	76,999억 원
만화	5,627억 원	광고	58,746억 원
음악	19,829억 원	캐릭터	48,638억 원
영화	10,155억 원	지식정보	86,863억 원
게임	83,209억 원	콘텐츠솔루션	25,465억 원
애니메이션	2,329억 원	총계	505,451억 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조사/ 2020년 기준)

2. 고용에서 문화·창의 분야가 차지하는 점유율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고용률 : 1.7% (467천명) / 2021.12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고용률)
문화체육관광산업 종사자수 : 2,078천명 / 2021년 하반기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2-1. 가능하면 최대한 부문, 연령, 성별 및 고용 유형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공공예산 중 문화를 위해 할당된 총액 (미국 달러 기준)

정부재정 16개 분야 중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 : 84,816억 원, 약 64억 달러 / 2021년 본예산 기준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1. 가능하면 문화 분야/영역에 할당된 비율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로 표기)

정부재정 16개 분야 중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 비율 : 1.5%(84,816억 원) / 2021년 본예산 기준
- 문화예술 37,226억원, 체육 17,594억원, 관광 14,998억원, 문화재 11,416억원
문화 및 관광 일반 3,582억원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문화·창의 분야'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승인과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문화다양성위원회는 2014년 법률 제정 당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후 2021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제1기 문화다양성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10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을 수립하였다. 이는 제1차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공식적으로 공표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최초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범부처 협력 정책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를 정책비전으로 제시하였다. 핵심가치는 차별시정과 인식제고(정체성 존중), 문화참여와 접근성(접근성·포용성),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창의성·반독점), 상호문화 교류(개방성·상호성)의 네 가지이며, 3대 추진전략과 7개 핵심과제, 18개 추진과제 및 51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이주배경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시설 및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방안을 포함해 지역어 보존 및 특수언어(점자수어) 지원 확대를 통한 언어적 다양성 실현,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문화적 도시재생 확산, 문화예술 전문가와 콘텐츠의 국제교류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문화 분야 지원, 독립예술·독립출판 등 소수 장르 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다양성 확대, 문화다양성 교육 및 인식제고 방안 등 협약의 주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폭넓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제1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 정책의제에 관한 민간 중심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과제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문화·창의 분야'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또한, 민-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10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문화·전통·예술·미디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매년 관계부처 및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의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7개 중앙부처 문화다양성 시행계획 예산 : 818,199백만 원, 6억 2천만 달러/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7개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시행계획' 예산)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및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 예 □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시행계획의 주요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1년에 최초로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11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총 732개(중앙부처 57개, 지자체 67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인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주체의 문화권 보장'의 사업 비중이 249개(중앙부처 13개, 지자체 236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문화·창의 분야'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1. 정책 및 조치명

문화영향평가 제도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문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정책평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공공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영향평가가 본격화된 것은 「문화기본법」에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듬해인 2014년부터이다.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매년 본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의 주된 목적은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공공정책 이행을 통한 사회적 수용가능성,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의 문화화'를 통한 문화적 가치의 확산, 국민의 문화역량과 삶의 질 향상이다. 문화적 관점에서 공공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영역을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은 두 가지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발전 평가지표 중 하나가 공공정책이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는 계획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지역의 문화적 획일화에 영향을 주는지, 지역사회 소수집단의 문화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정책사업으로 문화 소비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영향 관계를 평가한다.

문화영향평가는 평가목적에 따라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되며, 자체평가는 진단평가와 약식평가로 구분되고 전문평가는 기본평가, 심층평가, 전략평가로 구분된다. 자체평가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점검표를 활용하여 계획하고 있는 공공정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이며, 전문평가는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공공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2014과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9개의 공공정책 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제도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46건의 평가가 추진되어 총 155건의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대상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은 74건, 문화도시·특화사업은 45건, 문화재복원활용사업은 13건, 기타사업 23건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

'문화·창의 분야'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업청 등 6개 정부부처와 14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4건,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7건, 창원시는 2020년 1건에 대한 자체평가를 추진하였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예산 : 1,403백만 원, 107만 달러/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국도교통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6개 정부부처 및 142개 지방자치단체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2016년 본평가를 시작으로 6개 부처 및 142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문화다양성을 포함한 문화적 영향력을 사전에 진단하고 고려 및 적용하는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규모와 평가대상의 공공정책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특화된 지표개발, 평가방법의 구체화 및 체계화, 유형별 평가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 보고서)

미디어 다양성

소개

당사국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미디어를 보호하고, 미디어 집중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며, 사회의 모든 집단에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 배포 및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국들은 또한 모든 유형의 매체(공공, 민간 및 지역사회 기반)에 있어서의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채택된 정책과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주요 질문

1. 공공 서비스 미디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또는 법령적 소관을 가진다:

예 아니오

2. 정책 및 조치는 다음을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 편성에서 콘텐츠 다양성을 증진한다:

- 지방 및 지역 방송사
- 미디어 프로그램 편성의 언어적 다양성
- 소외 집단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편성
 - 예: 원주민, 이주민 및 난민 등
- 사회문화적 프로그램 편성
 - 예: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3. 시청각 미디어에 대한 국내 콘텐츠 규정이 있다:

- 예: 국내의 영화, TV 시리즈 또는 라디오 음악의 제작 또는 배급 쿼터

예 아니오

4.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규제 당국이 있다:

예 아니오

4-1. '예'인 경우, 규제 당국의 이름과 설립연도를 작성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연도 : 2008년)

4-2. '예'인 경우, 규제 당국이 다음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공공 미디어 지역사회 미디어 민간부문 미디어 온라인 미디어

4-3. '예'인 경우, 규제 당국은 다음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 방송사, 콘텐츠 공급자, 및 플랫폼 등에 라이선스 발급
- 온라인 괴롭힘, 가짜뉴스, 혐오발언 등에 대한 민원 접수 및 처리
- (언어를 포함한) 문화적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 미디어의 양성평등에 대한 모니터링
- 미디어의 편집 독립성에 대한 모니터링
- 미디어 소유권의 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소유 구조의 다양성, 소유권 관련 규정의 투명성, 소유권 집중의 제한 등)

'미디어 다양성'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미디어다양성 증진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채널과 프로그램의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을 유지하여 미디어다양성을 관리하고 있다. 2009년부터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방송법 제35조의4), 2018년부터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의 방송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다양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자별 시청점유율 현황도 제공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는 방송프로그램별 상세 TV시청기록과 N스크린(스마트폰, PC, VOD) 시청기록을 공개하여 업계와 학계의 활용성을 높여 왔다.

미디어다양성 증진의 주요사업인 시청점유율 조사·산정은 매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며, 일간신문은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합산하여 산정하며, 산정 결과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2020년도까지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하여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디어다양성을 위한 기초 실태 자료로 2014년~2015년 「미디어다양성 조사」 지표개발을 거쳐 2016년부터 매년 「미디어다양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미디어다양성조사에서 미디어다양성의 측정은 '집중도 지수(HHI)'와 미디어 프로그램콘텐츠의 현실대비 재현(representation) 정도로 판단한다.

2016년~2019년 조사는 플랫폼, 채널, 프로그램에 대하여 채널구성의 다양성, 소유주체의 다양성, 공급분야의 다양성, 편성의 다양성과 내용다양성 및 시청자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소유주체, 편성 등 공급측면의 다양성은 집중도 지수(HHI)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내용 다양성은 드라마, 뉴스, 예능, 탐사보도 내 등장인물의 성별, 연령, 직업, 장애의 분포 현황에 대해 현실대비 재현정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2020년에는 미디어사업자의 이용측면(시청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2011년부터 매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하고 있으며, 2020년 294개 방

'미디어 다양성'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송사업자 425개 채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 결과, 시청점유율 상한인 30% 미만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미디어다양성 조사 결과, 드라마의 등장인물은 남성(57.2%)이 여성(42.8%)보다 높았으며, 연령은 15~29세, 30~49세 비율이 77.8%이고, 장애 없는 등장인물이 99.6%로 나타났다. 뉴스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남성(71.9%)이 여성(28.1%)보다 높았으며, 연령은 30~49세, 50~69세 비율이 87.0%이고, 장애 없는 정보원이 99.9%로 나타났으며, 현실에서의 여성 비율에 비해 여성 출연진이 적게 등장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시청자인식 조사결과 TV시청자의 41.8%, TV뉴스 시청자의 35.8%가 '그렇지 않다'(적게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미디어다양성 증진 예산 : 3,490백만 원, 265만 7천 달러/ 2022년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방통기금 지출 설명자료))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요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미디어 다양성'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1. 정책 및 조치명

지역사회 기반 공동체라디오 사업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공동체라디오 사업은 FM 주파수 대역에서 10W 이하의 소출력으로 시·군·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비영리 라디오 방송으로, 2021년 기준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20곳을 신규 허가해, 전국 27개 지역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운영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제시하였고 세부 추진과제로 공동체라디오 확대가 포함되었고,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중요성 인식이 강화되었다. 전국 단위의 공영라디오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식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기 어려운데 반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밀착형 미디어이므로 지역사회의 현안, 행사, 소식을 전하기에 적합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관악FM은 관악구 내 코로나19 발생 속보를 송출하고, 대구 성서FM은 지역 약국의 마스크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민을 위한 재난 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 공동체의 공익을 우선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공동체 방송이므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여 공동체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특징이 있으며, 주민자치를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참고로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편성할 수 없고 지역정보, 문화, 음악과 같은 방송프로그램만 송출할 수 있다.

SNS와 같은 뉴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간편하게 지역사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또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동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의 참여율이 높다. 대표적으로 2021년 신규 허가받은 광주 광산구의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있다. 이 사업자는 국내에 이주한 고려인 동포와 후손들이 참여하고, 주요 청취자가 고려인임을 고려하여 러시아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주 배경주민 비율이 높은 경기도 안산시에 기반을 둔 '사단법인 안산공동체' 또한 다양한 문화권 이주민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미디어 다양성'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정규사업으로 전환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운영되었다. 2021년에는 20개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 허가를 받아 전국적으로 총 27개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10개, 강원권 2개, 충청권 4개, 경상권 7개, 호남권 4개이다.

또한 공동체라디오방송 운영을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지원단'을 구성해 지역의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지원단의 구성은 정부부처(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공공기관(시청자미디어재단), 민간단체(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6개 기관)로 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및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정책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고(방송통신위원회),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밀착형 공동체라디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송출과 더불어 유튜브에 공동체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 2억 원, 15만 2000 달러/ 2021년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방통기금 지출 설명자료))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지원단, 27개 지역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디지털 환경

소개

당사국들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증진하거나 디지털 환경의 문화산업 현대화를 통해 디지털 창의성과 역량, 지역 문화산업 및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국들은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접근성과 발견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

1. 문화·창의 산업과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조치 또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다:
- 예: 아날로그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자금 지원

예 아니오

2. 모든 규모의 다양한 e-플레이어와 함께, 활기찬 국내 디지털 문화·창의 산업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또는 조치가 도입되었다:
- 예: 공정한 보수 규정, 시장 집중화 조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잠재적으로 제한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배급자 또는 알고리즘의 독점 방지 등

예 아니오

3.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에서 제작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조치가 시행되었다:
- 예: 디지털 콘텐츠 다원화에 대한 실행 계획 또는 정책, 특정 언어로 되어있는 문화 또는 예술 포털에 대한 공공 지원, 국내 콘텐츠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수준의 온라인 배급 플랫폼 등

예 아니오

4. 신기술로 작업하는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디지털 창의성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이니셔티브가 시행되었다:
- 예: 실험을 위한 공간, 인큐베이터 등

예 아니오

5.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이용 가능한 문화콘텐츠 유형을 포함하여, 디지털 미디어 접근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한 통계 또는 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예 아니오

통계

온라인 문화콘텐츠 제공업체를 구독하는 인구의 비율 (예: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아마존 등).

OTT 이용률 : 81.7% / 2021년 기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디지털 환경'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독립·예술영화 유통플랫폼, 인디그라운드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독립영화협회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인디그라운드 : <https://indieground.kr/indie/>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작품에 대한 관객과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독립·예술영화의 연간 제작 편수(약 1,000여 편) 중 25% 이상이 상영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홍보·마케팅과 배급 불균형이 심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영화 소비 행태가 영화관에서 VOD, OTT 등 온라인 기반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제작비 지원, 전용상영관 운영과 더불어 유통배급 환경 개선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객의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접근성(관객의 선택권 확대)과 창작자의 상영 기회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공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는 2020년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독립·예술영화 공공 유통플랫폼인 '인디그라운드'를 오픈하였다.

'인디그라운드'는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유통배급 환경개선을 위해 설립되었고, 독립·예술영화의 사회적 가치 확장 및 네트워크 허브 구축을 목표로 운영되며, 한국독립영화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립·예술영화 정보를 구축하고(DB), 라이브러리 운영을 통해 연 240회 무료 공동체 상영을 지원한다. 공동체 상영 지원을 받은 작품은 일반 극장을 포함해 지역의 다양한 상영공간에서 기획, 홍보, 상영하는 대안적인 상영방식을 제공한다. 또한, 라이브러리에 구축된 작품 중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작품에 대해서는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로 선정하여 청소년에게 독립·예술영화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그 외에도 '큐레이팅'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작품 소개와 '독립영화 매칭 워크숍'을 통한 신진 창작자와 유통배급 주체 간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비즈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공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독립·예술영화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인디그라운드는 독립·예술영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아카이빙과 큐레이팅을 지원한다. 먼저, 독립·예술영화DB는 1990년~2022년 동안 한국에서 제작한 독립·예술영화 약 4,112편의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감독, 배우, 스태프,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영화장르, 러닝타임, 시놉시스뿐만 아니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채널 정보(네이

'디지털 환경'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버, 왓차, 티빙 등)를 제공한다. 독립영화 라이브러리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을 심사하여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작품'으로 선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순차적으로 상영한다. 기타 온라인 플랫폼의 유통배급을 위한 제휴 프로모션 개발 지원과 공동체상영회 지원, 개발 작품에 대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2020년도는 70편의 작품이 선정되었고, 2021년도는 87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공동체 상영회는 극장과 극장 외 공간(동네카페, 서점, 마을회관, 갤러리 등)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작품을 배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상영관은 선정된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작품'을 대상으로 큐레이션하여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한다. 가령 현재(2022년)는 '세상의 모든 배리어와 유쾌하게 맞서기'라는 주제의 큐레이션을 통해 관련 작품 5건에 대한 상영과 '고백 다이어리'라는 주제의 큐레이션으로 6건의 작품에 대한 온라인 상영회를 진행한다.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는 독립영화를 매개로 한 청소년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작품' 중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가족, 남북관계, 노동, 마을, 미디어, 문학, 성평등, 인권, 주거, 청소년, 환경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로 선정하고 교육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와 영화 상영을 지원한다. 또한, 2021년부터 신진창작자와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사와의 매칭 프로그램인 '독립영화 매칭 워크숍: 퍼스트링크'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2021년 12편, 2022년 15편의 작품을 지원하였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사업 예산 : 20억 원, 152만 달러 / 2021년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서)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예술영화 제작기업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디지털 환경'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1. 정책 및 조치명

공연예술의 디지털 전환 및 유통 플랫폼 구축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예술의전당, 국립중앙극장, 국립극단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 : <https://www.sac.or.kr/site/main/sacOnScreen/sacOnScreen#non>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 <https://on.ntck.or.kr/Main/Index>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에 상당 부분 제약과 어려움이 가중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의 디지털 전환 및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그간 고정된 틀이나 관성에서 벗어나 비대면 예술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연예술계 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2020.9)을 발표하며, 2021년도에 3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술의전당, 국립중앙극장, 국립극단의 우수 공연콘텐츠에 대한 영상화 작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3년부터 'VIP보다 더 좋은 객석'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며 예술의전당 공연·전시 콘텐츠의 영상화 사업인 SAC on Screen(이하 SoS)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서울과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오페라, 발레, 클래식, 음악, 연극, 현대무용, 뮤지컬, 전시를 영상으로 구현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와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국내·외에 무료로 보급한다. 국내는 전국 문예회관, 영화관, 도서관, 학교 등에 보급되었고, 해외는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집트, 짐바브웨 등 10여 개 국가에 있는 재외 한국문화원에 상영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그동안 문화소외계층 문화복지의 일환으로 무료 배급을 견지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공연콘텐츠의 영상화가 새로운 수익모델로 주목받게 되며 2019년을 전후하여 유료 상영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뮤지컬 <웃는 남자>를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에서 유료 상영하였고, 국내에서는 전국 메가박스 영화관 18개 지점에서 287회 상영하였다. 그 외에도 LGU+를 통해 뮤지컬 <명성황후>와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등 공연콘텐츠를 판매함으로써 IPTV VOD 서비스 등의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영상 콘텐츠의 배급을 시도하였다.

2021년에 예술의전당은 공연예술을 한층 더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 콘텐츠를 제작·상영하였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성악 무대를 AR과 3D 음향 기술을 통하여 실감나게 구현한 <조수미 홀로그램 미니 콘서트>는 예술의전당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158,287명의 관람객이 체험하였고, VR로 구현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를 체험할 수 있는 <함께 부르는 가곡>, 공연예술과 미디어아트를 융합한 <메타 갤러리> 전시 등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이외에도 기존의 공연콘텐츠 배급처를 세종학당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82개국 234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확장에 기여하였다.

'디지털 환경'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국립중앙극장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공립 공연장 휴관 조치 대응으로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사업을 시행하였다. 국립극장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하여 대표 레퍼토리 공연 실황 전막을 온라인 상영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OTT(콘텐츠웨이브), 영화관(롯데컬처웍스) 등과 협업을 통하여 국립극장 우수 레퍼토리의 4K UHD 고품질 공연실황 영상을 제작 및 유통하였다. 또한 수어, 자막, 음성해설을 삽입한 무장애 공연 영상을 제작·유통하여 장애인 문화향유권을 확대하였다.

한편, 국립극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극장 방문 관객 감소와 공연예술 수익 확대 및 공연 접근성 완화를 위한 자구책으로서 공연 영상화 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2020년 새롭게 부임한 예술감독은 국립극단의 새로운 과제로 공연의 영상화 사업인 OTT 플랫폼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개관 계획을 선언하였고, 2021년 11월 정식 오픈하였다. 특히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의 일부 콘텐츠는 수어, 화면해설, 자막을 활용한 배리어프리 옵션을 제공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구현하였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예술의전당 SoS는 2018년도에 148개처 배급, 889회 상영, 147,349명 관람하였고, 2019년도에는 1,359회 상영, 97,591명이 관람하였다. 2020년도는 오프라인 관람객 수가 90% 감소한 반면 온라인 상영 및 실시간 스트리밍 이용자가 크게 확대되어 총 21회의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737,621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다. 2021년도에는 오프라인 상영을 재개하여 총 625회 상영, 33,978명이 관람하였다. 온라인 상영은 국내외 합산 총 10,187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해외에는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집트, 짐바브웨 등 2018년도 10개국, 2019년도 11개국에서 현지어 자막을 제작하여 상영하였고, 2020년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상영은 3개국으로 줄어들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6개국에서 16개의 작품을 상영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전환된 2021년도에는 해외 오프라인 상영이 8개국으로 확대되어 52회 상영하였으며, 온라인으로도 10개국에서 29회 상영하였다.

또한, 영화관과 IPTV VOD 서비스 등 배급 플랫폼을 확대하고 공연콘텐츠에 대한 관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국 메가박스에서 뮤지컬 <웃는 남자>의 유료 상영을 통해 총 278회 상영 및 13,083명 관람하였고, LGU+ IPTV VOD 서비스를 통해 한 달 동안 총 13,003회를 조회하였다.

국립중앙극장은 2020년 <패왕별희>, <목향> 등 6개 공연 전막을 상영하였고, <삼삼오樂>, <미술관에 갈 여우樂> 등 온라인 전용 공연 영상 콘텐츠를 유통하였다. 그 결과 2020년 비대면·온라인 공연 콘텐츠 총 조회 수 31.6만 회,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 약 4.8배 증가 등을 기록하였다. 2021년에는 고품질 공연실황 영상 10편, 무장애 공연 영상 5편을 제작하였고 15편을 웨이브

'디지털 환경'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및 롯데시네마에 유통하였다. 또한 SBS 문화가중계에 <이음음악제>, <여우락페스티벌> 촬영분을 방영하였다. 그 결과 웨이브 총 조회수 15,469건, 롯데시네마 총 관객수 1,148명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은 2021년 11월 개관 이후 총 14편의 작품을 제작·공개했으며, 2021년 1,768명, 2022년 2,283명(8.26.기준)의 관객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국립극단 제작 작품뿐 아니라, 국내 연극 단체들의 우수공연 실황 작품을 '온라인 극장' 플랫폼에 기획 초청하여 관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연극계 영상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2021년도는 정부의 공연 영상화 지원(공연실황 촬영 및 온라인 송출)으로 민간부문 우수공연 40편을 아르코 온라인 극장을 통해 약 18만 명이 관람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품질 공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술의전당에 '공연영상스튜디오 실감'을 2021년 완공하였고, 2022년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예술 지원방안 예산 : 31억 5천만 원, 240만 달러/ 2020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예술 지원방안」(2020.9) 발표자료)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예술의전당, 국립중앙극장, 국립극단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소개

당사국들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연관되며, 특히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 자금; 공공당국 및 여타 시민사회단체(CSO)²⁾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 기회; 문화 정책을 설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공간 등을 제공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요 질문

1. 다음 분야들에 해당하는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를 대표하는 전문 단체 및 노동조합이 국가(your country)에 존재한다 (음악가협회, 출판인조합 등) :

-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출판 시각예술 공연예술

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지원하는 공공기금 제도가 존재한다:

- 예 아니오

3. 지난 4년 동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의사소통, 옹호 및 기금 모금에 관한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공공당국이 훈련 및 멘토링 기회를 조직하거나 지원했다:

- 예 아니오

4. 지난 4년 동안, 문화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당국과 시민사회단체간의 대화 메커니즘이 시행되었다 (회의, 워킹그룹 등)

- 예 아니오

4-1. '예'인 경우, 2가지 예시 제시

새문화정책준비단(2017.1~2018.5),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수립에 참여
새예술정책수립특별진담팀(2017.10~2018.4), 「새 예술정책」 수립에 참여

5. 지난 4년 동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 및 조치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구체화되었다:

- 예 아니오

2) 이 협약의 목적에 있어서, 시민사회란 비정부기구, 비영리단체, 문화분야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 예술인 및 문화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지칭합니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에 관한 운영지침 제3 문단 참조).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민간 주도 중장기 문화정책계획 수립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새예술정책수립특별전담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2018년 문화예술정책은 민관협치의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2018년 5월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들 중장기계획은 그동안 정부에서 주도하고 민간위원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 위주로 TF를 구성, 운영하여 계획의 기본 방향, 정책 비전, 전략과제 설정, 세부과제와 사업 발굴 등 전 과정을 관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화비전 2030」을 위해 민관협력체인 '새문화정책준비단'과 「새 예술정책」을 위한 '새 예술정책 수립 TF'를 조직하였고, 지역토론회와 포럼, 간담회,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새문화정책준비단의 23차례 정례회의, 13차례의 지역순회 문화청책(聽策) 포럼, 6차례의 분과별 현장토론회와 홈페이지(페이스북), 현장토론회 및 집담회 등에서 제안된 약 252건의 국민 의견에 대한 논의를 거쳐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설정하고, 9대 의제, 47개 대표과제, 186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새 예술정책」 수립을 위해 예술계, 학계 인사 35명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지원기관 담당자를 포함한 총 53명으로 구성된 새 예술정책 수립 TF를 구성하였고, 분야별·장르별 10개 분과가 활동하였다. 아울러 현장 예술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장르별로 100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40여 회의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8대 전략과제와 25개 실행과제, 83개의 대표사업으로 구성된 새예술정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새문화정책준비단, 새예술정책수립특별전담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1. 정책 및 조치명

지역문화재단 주도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구. 무지개다리사업)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역문화재단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 <https://cda.or.kr/>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과 시민사회 주도의 문화다양성 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구. 무지개다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은 지역사회 내 국적·세대·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주체의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와 상호 소통 및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소수주체의 문화권을 제고하고 국민의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여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운영을 총괄하여 전국 지역문화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비(문화다양성 인식 및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인적·물적 기반마련, 소수주체들의 문화권 보장, 소수주체 간 또는 소수주체 및 다수주체 간 상호 교류)를 지원하며,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기획 및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주관기관에서는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전문인력 등 문화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25개 내외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다.

주관기관은 다양한 문화주체(시민)들로 구성된 협의체, 워킹그룹 등을 통해 지역특화형 사업을 기획하고, 이들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연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UN이 지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로부터 일주일 동안 추진되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를 기획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에 앞장 서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5월 21일~27일 일주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의 지역 주관기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토론회·영화제·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은 국적·세대·성별·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문화 간 소통과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를 통해 공존의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 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지역민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운영, 문화 다양성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민 간 공감대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이주민, 장애인, 외국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이주민 라디오 채널 운영 및 소식지 발간, 장애인 가족이 직접 기획하고 공연하는 연극제 개최 등을 지원해 지역 내 문화적 소외계층에게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 내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 형성을 위한 지역민 토론회 개최, 지자체 공무원과 문화활동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성, 지자체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등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는 2018년 249,918명에서 2021년 291,036명으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는 83,324명으로 감소했으나,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더욱 많은 참가자에게 접근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간 20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추진되며 20만 명 내외의 지역민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사업 참여자의 문화다양성 인식은 프로그램 참여 전 대비 약 18% 증가하였고,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가치에 대한 이해도는 35.4%, 문화다양성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17.7% 증가하였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예산 : 2,200백만 원, 167만 4천 달러/ 2021년 기준 ※전담기관 교부금액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문화예술정책백서)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역문화재단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 예 □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은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정책기반 확대 및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에 대한 지역민과 지자체 정책 담당자의 이해도에 차이가 있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Goal 2.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과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증진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소개

당사국들은, 전 세계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내부 및 외부로 향하는 이동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³⁾ 제 16조에 정의된 우대조치를 포함한, 정책 및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국들은 또한, 남-남 및 삼각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을 오가는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주요 질문

1. 다음 중 귀하의 국가에 존재하는 정책 및 조치가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외부로 향한 이동성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조치
 - 예: 외부 이동 사무소, 문화 분야 종사자를 위한 국제 문화 시장 참여 지원 등
- 귀하의 국가로 해외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입국을 지원하는 특정한 비자 정책 또는 국경 통과 조치
 - 예: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비자 비용 감면, 장기 비자 발급 등
- 귀하의 국가에서 해외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입국을 지원하는 취업 허가 규정
 - 예: 이중과세방지협약, 특별 취업허가서 및 건강보험, 생활비 보조금 등

2. 지난 4년 동안, 공공 당국에서 개발했거나 당국으로부터 지원 또는 자금을 받은 운영 프로그램을 표시해 주십시오

-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보 자원 또는 훈련 서비스
 - 예: 인터넷 플랫폼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많은 해외 예술가들을 유치할 수 있게 해주는 인프라
 - 예: 예술가 숙소, 문화기관 등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많은 해외 예술가들을 유치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 문화행사
 - 예: 문화 시즌(프로그램), 페스티벌, 문화 산업 시장 등

3. 지난 4년 동안, 다음과 같이 이동성을 위한 자금 지원이 공공당국의 관리 또는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출국 이동성을 지원하는 공적 자금
- 해외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입국 이동성을 지원하는 공적 자금
- 북-남-남 및 남-남 협력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하는, 또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공적 자금

3) 협약 제16조는 "선진국은 적절한 제도적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더불어, 예술가, 문화 분야 전문인력 및 실무자들에게 우대조치를 부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대조치, 달리 말하자면 특별하고 차별적인 조치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무역 자유화 협정의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있어서 문화 우대조치라는 예외상황을 설정하는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상업적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이 균형잡힐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 영화/시청각 예술 ■ 디자인 ■ 미디어 아트 ■ 음악
- 공연예술 ■ 출판 ■ 시각예술 ■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문화로 : <http://www.kcultureroad.kr/>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예술가와 문화 분야 전문인력의 국가 간 이동과 국제문화교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이들의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정보 파악에는 어려움이 잇따랐다. 이에 2019년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인 ‘문화로(K-Culture Road)’를 구축하였다. 문화분야 종사자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국제문화교류 수요자에게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문화로’는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 현황과 각종 문화동향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9개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정보를 문화포털 공공데이터와 연계하고 42개국의 해외통신원을 통해 글로벌 문화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국제문화교류 정보를 교류현황, 교류지원, 교류지식, 교류기관, 교류정책 및 동아시아문화도시에 관한 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제문화교류 사업 현황을 지역별·유형별·기관별·연도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부문 교류단체는 478개의 지자체·기관, 국제기구·NGO,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으며, 민간부문 교류단체는 국내외 1,577개의 협회·재단,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다. 국내 문화교류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탑재하여 주요 교류국가, 교류목적, 교류형태, 교류장르, 교류방식,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황정보와 한·중·일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인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세종학당재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장르별·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문화로’에서 제공하는 국제문화교류 정보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교류현황, 교류지원, 교류지식, 교류기관, 교류정책이 그것이다.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교류현황)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를 통해 2011년부터 진행된 국내·외 다양한 국제행사와 축제를 조회할 수 있으며, 2018년 142개, 2019년 424개, 2020년 15개, 2021년 170개의 축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교류지원) 국내의 민간교류단체, 관련 종사자, 유관기관, 일반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위한 교류지원을 위해 행사·전시·광고, 교육 및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75회 행사 정보와 103회 전시 개최 정보를 안내하고 있고, 2018년 5회, 2019년 37회, 2020년 10회, 2021년 98회의 교육·포럼의 소식을 수집하여 제공한다.

(교류지식) 간행물, 문화이슈, 한류생생리포트를 구독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대표적으로 793호까지 발간된 <유네스코 뉴스>와 261호까지 발간한 <위클리 글로벌>이 있다(2022년 기준). 또한 2000년 이후 작성된 문화·콘텐츠·관광·통계 및 정보에 대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제공하며, 현재 총 450건이 등록되어 있다(2022년 기준).

(교류기관) 국내·해외기관 위치 및 정보 검색과 교류단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기관 109곳과 해외기관 46곳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공공단체 478곳과 민간단체 1,577곳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교류정책)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조사되는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의 6개 분야 주요 정보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2021년 12월 기준 총 39개 문화분야 유관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총 22,991건(행사 375건, 전시 103건, 광고 1,233건, 교육 170건, 일자리 869건, 교류지식 20,241건)의 정보를 탑재하는 등 점차 보유 정보량을 확대하고 있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예산: 150백만 원, 11만 4천 달러/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1. 정책 및 조치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 사업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아르코 국제교류사업 : <https://www.arko.or.kr/eng/international/support?lang=ko>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국내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지원, 해외문화기관 협력사업 및 국제예술 공동기금 사업 등이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술가(또는 단체)에게는 국제교류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참가비, 비자 발급비, 여행자 보험료와 같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여 항공료, 숙박료 등 이동 및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내용에 따라 해외 작품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집행할 수 있다.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지원’은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의 8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며, 예술가가 직접 해외 레지던스를 발굴하여 참가하는 ‘비지정형(자율형) 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굴한 해외 창작거점 기관에 예술가를 파견하는 ‘지정형(기획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은 민간 차원의 국제예술교류를 통해 한국예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예술가 공동협업, 국내외 초청사업, 네트워킹 등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가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은 물론 ‘프랑스 세계 문화의 집’, ‘유럽방송연맹’ 등 개별 예술가 단위로 접근하기 어려운 플랫폼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협약을 맺어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지원’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들이 해외 예술가 및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예술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신규 추진되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지원’은 2018년 102건 대상으로 4억 7천 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116건 대상으로 6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에는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국가적 이동제한으로 해외 주요 플랫폼들이 문을 닫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55건에 대하여 약 3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코로나19로 적시 지원이 어려운 경우, 선정예술가와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 차기 연도로 순연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업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취소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도 사업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은 2019년에 해외예술가의 국내 초청, 국내 예술가 해외 진출, 해외예술가 및 예술단체, 기관과의 공동협업 등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121건의 사업에 20억 8천 3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2020년은 95건의 사업에 18억 3천 7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지원’은 2019년 총 44건을 대상으로 6억 9천 8백만 원, 2020년에 27건을 대상으로 5억 1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은 해외 주요 예술지원기관과의 MOU를 기반으로 예산을 매칭하여 추진하는 협력 프로젝트다. 공동기금 조성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양국 간의 예술교류 및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2016~2018 영국(영국예술위원회), 2017~2018 독일(주한독일문화원), 2018~2019 덴마크(덴마크공정청), 2019~2021 싱가포르(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 2020~2022 네덜란드(더치컬처 국제문화협력센터)와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사업에 선정된 후 국내외 초청, 판권 판매, 수상 등 국제적 활동으로 확산된 건수는 총 116건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는 국제예술위원회문화기관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이사기관으로 각국 문화예술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예술지원제도, 창작 진흥, 관객개발, 문화향유 등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산 : 6,230백만 원, 474만 달러/ 2021년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

소개

당사국들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보다 균형 잡힌 교류를 전 세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협약 제16조에 정의된 우대조치를 포함한, 정책 및 조치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및 조치는, 문화·창의 산업을 위한 해외 직접 투자와 더불어, 특히 수출 및 수입 전략, 북-남 및 남-남 문화 협력 프로그램 및 무역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주요 질문

1. 다음과 같은 문화 영역에 대해, 외국에 있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전략 또는 조치를 존재한다:

-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2. 지난 4년 동안, 귀하의 국가가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균형 잡힌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조치*를 부여했거나 또는 그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

- 예, 우대조치를 부여했다
 예, 우대조치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

2-1. '예'인 경우, 2가지 예시 제시

유네스코 신탁기금

* 우대조치, 달리 말하자면 특별하고 차별적인 조치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무역 자유화 협정의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있어서 문화 우대조치라는 예외상황을 설정하는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상업적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이 균형잡힐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3. 지난 4년 동안, 무역 정책을 수립할 역량을 구축하고,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특별한 지위를 제공하는 협정의 협상과 시행을 도와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한 형태로서, 무역지원 원조를 제공했거나 또는 그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

- 예, 무역지원 원조를 제공했다
 예, 무역지원 원조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

3-1. '예'인 경우, 2가지 예시 제시

문화동반자 초청연수 사업

통계

문화·창의 산업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액 (미국 달러 기준)

문화ODA(문화체육관광부) 예산 : 78.7억 원, 599만 달러/ 2021년 기준
(관계부처 합동,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콘텐츠수출 통합정보시스템 '웰콘(WelCon)'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한국콘텐츠진흥원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웰콘 : <https://welcon.kocca.kr/>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2015년 콘텐츠 업계 조사에서 해외진출에 있어서 정보부족이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년 콘텐츠 수출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서비스인 콘텐츠수출 마케팅 플랫폼 'WelCon'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웰콘(WelCon)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행사·사업정보, 수출정보, 비즈니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국내외 콘텐츠 행사 및 마켓 정보와 비즈니스 매칭 지원, 현지 콘텐츠마켓 동향과 바이어 정보 통합 제공,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웰콘(WelCon)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편하였고, 2022년부터는 새롭게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웰콘(WelCon)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콘텐츠기업 대상, 수출역량 진단, 해외진출 상담, 지원사업·행사소식 등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14개 유관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콘텐츠 해외 진출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만화, 출판, 음악 장르의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콘텐츠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 진단, 해외진출 상담, 공모·지원사업 정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부터 제공하는 마켓 플레이스는 콘텐츠 수출 기업들의 비즈니스와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으로 국내 콘텐츠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온라인 직접 교류 및 비즈니스 매칭 등 온라인 거래 기반이다.

참고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웰콘서비스를 포함하여 약 11건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웰콘(WelCon)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행사·사업정보, 수출정보, 비즈니스로 구분한다. 먼저 '행사·사업정보'는 콘텐츠 장르와 대상 국가에 따라 구분하여 크게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주관 행사, KOCCA 지원 해외 마켓 및 주요 콘텐츠 행사 정보로 분류돼 국내외 콘텐츠 행사와 사업의 기본정보, 모집안내, 참가신청, 디렉토리북, 비즈매칭 등을 제공한다. KOCCA 주관 행사로 K-콘텐츠 엑스포, K-콘텐츠 비즈워크 및 K-콘텐츠 수출상담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회가 있고, KOCCA 지원 해외 마켓에서는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실감콘텐츠, 캐릭터, 음악, 패션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해외마켓 참가 지원 안내를 제공한다.

수출정보는 K-콘텐츠 뉴스, 수출지원사업, 장르별 해외시장분석, 해외동향정보 및 맞춤형 큐레이션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에 대한 인사이트 및 해외시장 동향을 제공하고, 비즈니스는 해외진출 시 필요한 실무 정보, 법률, 지식재산권, 조세, 금융(투자), 마케팅, 창업 등 장르별·분야별·국가별 자문단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비즈니스의 경우 크게 해외진출상담과 수출역량진단으로 나누어 국내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준비 과정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마켓플레이스를 새로 오픈하여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백서」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콘텐츠산업동향, 위클리글로벌, 심층분석리포트, 글로벌마켓리포트, 한류트렌드, 규제 및 지적권 정보 등 1,522건의 신규 정보를 수집하여 누적 총 5,091건의 수출 정보를 제공하였고, 국내 콘텐츠관에 2,851건, 기업관에 1,380건의 DB 구축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된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지원 예산 : 37,831백만 원, 2,879만 5천 달러/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한국콘텐츠진흥원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1. 정책 및 조치명

도서저작권 수출 가이드북 제작 및 출판콘텐츠의 수출지원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https://www.kpipa.or.kr/>
 출판수출 통합플랫폼 K-BOOK : <https://k-book.or.kr/>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3년부터 국내 도서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출판시장에 대한 소개와 실질적인 수출 방법과 전략, 성공사례의 내용을 담은 「도서저작권 수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 도서저작권 수출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은 기초편과 국가별 출판 시장 환경을 반영한 중국, 동남아, 영미, 중남미편을 통해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출판사는 국가별·장르별 수출전략, 수출을 위한 계약절차와 계약서 양식, 각종 국제 도서전과 세계 출판사 현황, 국내 에이전시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출판시장 환경을 고려해 2020년과 2021년에 기초편과 중국편의 개정판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도서의 해외출판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동시에 2020년 기준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에서 출판산업이 16.8% 비율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영화, 웹툰, 게임의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며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도서 및 도서저작권의 수출 지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수출지원 사업의 수를 늘려 2021년 기준 12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외 바이어가 한국도서에 대한 정보를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판수출 통합플랫폼 '케이북(K-BOOK)'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수출 코디네이터 운영 등 해외에 한국도서정보를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한국의 우수한 출판물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8권(개정판 포함)의 「도서 저작권 수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2019년도에 출판수출 통합플랫폼 케이북(K-BOOK)을 신규 구축하여 해외 바이어가 한국도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말 누적 접속자가 15,44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케이북(K-BOOK)과 연계하여 한국 도서의 해외 홍보를 위한 월간 영문 웹진 <K-Book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Trends> 발간을 통해 국내 출판 동향 및 정보와 케이북(K-Book)에 업로드된 콘텐츠·작가·출판사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해외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수출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해외시장의 출판수출 현지 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출 코디네이터는 현지 출판시장 동향 및 이슈 파악, 현지 출판단체 조사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K-Book 전시 및 홍보 활동, 현지 및 인접국 출판·독서 행사 참가 및 참관기 작성 등의 활동을 한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예산 : 1,801백만 원, 137만 달러/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조약 및 협정

소개

당사국들은, 그들이 이미 서명했거나 또는 현재 국제, 지방 및 양자간 수준에서 협상 중인, 무역 및 투자 협정에 있어서, 문화 상품, 서비스 및 디지털 상품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당사국들은 또한, 다른 조약과 협정은 물론, 선언, 권고사항 및 결의안에 있어서, 협약의 목표와 원칙을 증진하기 위해 채택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무역, 외교, 문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의해 시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호의존성을 반영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요 질문

1. 지난 4년 동안,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특별한 지위를 제공하는 다자간 또는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에 있다:

예 아니오 협상 중

2. 지난 4년 동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디지털 제품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특정 조항을 삽입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다:

예 아니오 협상 중

3. 지난 4년 동안, 협약의 목적이나 원칙을 고려하기 위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에 연관된 다자간 또는 양자간의 협정, 선언 및 전략이 체결되었거나 개정되었다:

- 예: 교육, 디지털, 지적 재산, 지속가능발전, 양성평등 등

예 아니오

'조약 및 협정'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문화협력 양해각서(MOU)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간 문화예술 및 창의산업, 문화유산, 언어교육 등 문화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자 간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협력과 전문가 교류에 대해 협력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양해각서(MOU)는 양자간 문화담당 부처가 대표로 서명하여 대체로 3년~5년 기간을 두고 협상을 체결하고 있다.

양해각서(MOU)로 협약된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및 창의산업에 대한 정보교환, 전문성과 역량강화 교환을 촉진하고 있다. 대체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의 문화·예술·유산 관련 기관 간 협력 증진, 문학·공연예술·시각예술 등 문화 활동 제고, 고고학, 박물관학, 기록물 자료 전시, 문화 관련 출판물 및 시청각 자료 교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관련 양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는 2018년 덴마크,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2021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헝가리, 호주가 해당된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대한민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양국 간 문화예술 및 창의 산업, 문화유산 자료 교환 등 양국 간 협력 관계가 강화되었고, 문화분야 협력을 위한 양국 간 전문가교류,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환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양국간 문화 관련 경험, 출판물 등 정보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 협력이 진행되었고,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 관련 교육·연수, 전시회 및 공연 홍보 등도 추진되었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Goal 3.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에 문화 통합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소개

당사국들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정책의 전략적 요소로서, 창의성과 문화적 표현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및 조치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달성하고 문화적 자원 및 표현에 대한 공평한 분배 및 접근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경제 성장, 환경 지속성, 사회적 통합 및 문화를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시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호의존성을 반영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요 질문

1.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전략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

- (전반적인) 문화 창의성 및 혁신 문화·창의 산업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전략에 문화를 포함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의 유형을 1~4점으로 평가하십시오. 1=가장 높은 기대 결과, 4=가장 낮게 기대 결과

- 경제적 - 예: 고용, 무역, 지적 재산, 문화·창의 산업, 농촌 및 영토 개발
 사회적 - 예: 사회적 응집력 및 통합, 불평등 및 빈곤 감소, 가치와 정체성,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권한 및 인적 자원 교육
 환경적 - 예: 천연자원, 문화산업 및 활동의 환경적 영향력 감소
 문화적 - 예: 문화 인프라, 문화 참여 및 접근, 혁신, 예술가 지원

3.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계획의 설계 및 시행에 문화·창의 산업을 담당하는 공공문화단체 및 기관이 참여한다:
 - 예: 합동계획위원회와 같은 조정 메커니즘에 참여

- 예 아니오

4. 지난 4년간, 지역, 도시 및 농촌 수준의 문화산업 기반 재생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 예 아니오

5. 정책 및 조치는, 문화생활 참여 및 다양한 문화 시설과 표현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며 특히 소외계층 또는 취약계층의 요구를 충족한다:

- 예: 입장료 인하, 관객개발, 예술교육 및 관객 인식 제고 등

- 예 아니오

통계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참여율 최신 데이터(성별/연령집단/농촌-도시/소득수준/교육수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2021년 기준

(성별) 남성 33.6%, 여성 33.6%

(연령) 청소년(15-19세) 57.4%, 20대 63.8%, 30대 42.2%, 40대 33.2%,
 50대 27.7%, 60대 17.5%, 70세 이상 5.6%

(도시/지방) 대도시 39.2%, 중소도시 33.4%, 읍면지역 21.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4.7%, 100-200만원 14.4%, 200-300만원 26.9%, 300-400만원 30.2%,
 400-500만원 38.0%, 500-600만원 44.2%, 600만원 이상 48.9%

(학력수준) 초졸이하 11.1%, 중졸 22.0%, 고졸 31.3%, 대졸이상 45.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문화도시 조성 사업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지방자치단체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지역문화진흥원 : <http://www.rcda.or.kr/>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2014년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2019년~2022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전국 30여 개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문화도시의 정책비전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고, 추진 목표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사회혁신 제고이다.

법정 문화도시를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분야로 구분하여 주제를 선정할 수 있고,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지정된다. 먼저 지역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면(1단계), 문체부 장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2단계), 1년 동안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한다(3단계). 예비사업 운영 내용을 문화도시심의위원회가 지정 심의한 후(4단계), 최종적인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한다(5단계).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에게는 5년 동안 국비 최대 100억 원, 지방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중심의 거버넌스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상의하달식 지원이 아닌 지역중심·시민중심 거버넌스 형성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의체인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민간단체인 문화도시지원센터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민관협력체인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인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체계를 구축한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2019년 7개 지역에 대해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5개 지역을 제2차 문화도시로, 2021년 12월 6개 지역을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18개 지역이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다. 2022년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16개 지역에서 일 년 동안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과평가 결과 문화도시 지정 지역 중 20년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에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가, 21년도에 제주 서귀포시, 강원 원주시, 전북 완주군이 우수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귀포시와 청주시는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각각 '노지문화'와 '기록문화'라는 도시브랜드 창출에 기여하였다. 참고로 노지문화란 마을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의미로 서귀포시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이다.
2. 12개 문화도시(1차, 2차)에서 `20년 이후 총 685개의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지역주민 문화향유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3. 문화도시 참여 누적인원은 총 1,078,060명으로 실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도시별 대표사업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가 평균 86.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 원주시와 완주시의 경우 지역 환경에 맞는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를 통한 거버넌스를 실현하였다.
5. 포항시는 유희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협업하였고, 강릉시는 영등포구와 협업하여 지역 간 문화교류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연계사업을 통해 문화적 도시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문화도시 조성 예산 : 18,400백만 원, 1,400만 5천 달러/ 2021년 기준 ※지역지원계정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18개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단체(문화도시센터)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 예 □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전국 지자체의 39.5%에 해당하는 96개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하였고, 82개 지역에서는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문화도시 사업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문화정책 투자 계획을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성과는 도시문화 브랜드 확립, 문화거점 확대 조성, 주민 만족도 제고, 문화거버넌스 구축, 문화일자리 창출, 문화가치 및 문화적 접근 확산 등으로 요약된다. (지역문화진흥원, 2021 문화도시 성과 자료집)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문화바우처 사업(통합문화이용권)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문화누리 : <https://www.mnuri.kr/>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1만 원(2022년 기준)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되었고, 2014년 이용 범위 확대(문화+여행+스포츠 관람), 2017년~2021년 1인당 지원금액 증액, 2022년 지원인원 확대(수혜율 100%)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오고 있다. 그동안 문화바우처 사업은 2015년 이용편의 제고(가구당에서 개인당 발급), 2018년 이용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발급·이용 접근성 제고, 2019년 재충전(ARS) 편의 제고, 2021년 모바일앱 출시 및 자동 재충전 시행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문화향유 매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되며 문화바우처의 온라인 사용처(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스트리밍, 전자책 등)를 발굴,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문화바우처는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1만 원의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 약 2만 5,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추진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시·도별 지자체와 지역주관처가 사업비 집행,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용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문화바우처 지원금액은 2017년 6만원에서 매년 1만원씩 증액되어 2021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지원대상은 2017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비 수혜인원 비율 61.2%(161만명)에서 점차 확대되어 2021년 80%(197만명)를 실현하고 2022년 100%(263만명)를 달성하였다. 사업예산 또한 지속 증가하여 2017년 69,875백만 원에서 2021년 140,154백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문화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사업효과 조사결과, 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를 통해 정서적·사회적·문화적 측면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측면에서 행복감과 생활활력,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2019년도에 비해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2020년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에서 타인과 어울리는 즐거움, 타인과 교류에 대한 부담 감소 효과는 2020년에 비해 2021년도 소폭 증가하였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예산 : 140,154백만 원, 1억 668만 달러/ 2021년 예산현액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문화바우처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 활동이 증가하였고 이는 소득에 따른 문화향유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바우처 대상자와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이용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 이용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소개

당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역동적인 창의적 분야의 발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의 전략적 요소와 남-남 협력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통합하도록 설계된 정책 및 조치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정책 및 조치는 일반적으로 국제 협력 기관 및 외교 및 문화를 담당하는 부처 및 기관에 의해 시행됩니다. 보고하는 조치는, 적절하다면, 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질문

1. 지난 4년 동안,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에 공헌했거나 또는 그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

- 예, 우리나라는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 공헌했다
- 예, 우리나라의 공공단체 또는 비정부기구가 국제문화다양성기금의 혜택을 받았다

2. 남-남 협력 전략을 포함한, 개발 협력 전략은, 창의성과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 가진 전략적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

- 예 아니오

2-1. '예'인 경우, 해당 전략의 이름과 채택 연도를 작성하십시오.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채택년도: 2015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채택년도: 2021

3. 국가는 다자간 및 양자간 기술 지원을 관리하며, 역량 강화 협력 프로그램은 다음을 지원한다:

- 개발도상국의 문화정책 개발 및 시행
- 개발도상국의 창의 산업 및 시장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발
-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

통계

1.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 대해 국가의 총 공헌액 (미국 달러 기준)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 : 8.5천만 원, 7만 6,610달러 / 2021년 기준⁴⁾
(문화체육관광부, 2021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4)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 달러 기준은 2021년 납부 당시의 환율 적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문화ODA 사업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http://kofice.or.kr/>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발도상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문화예술ODA', '해외예술계 인력양성', '해외작은도서관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기반으로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 문화ODA는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문화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연수사업과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문화ODA는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을 전수하여 ① 수원국의 문화발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기여하고, ② 문화를 활용한 교류 다각화 및 쌍방향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ODA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05년부터 추진된 개발도상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사업인 '문화동반자 초청연수' 사업이 있다. 본래 개발도상국의 문화·예술·문화산업·미디어 분야의 유망한 전문인력을 3~5개월 간 초청하여 문화전문기관에서 실무연수, 공동창작,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였으나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자국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공공문화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행정가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문화예술교육(ODA)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도하여 협력국 현지 교사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기획과 방법론 강의를 시행한다. 현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연극·문학·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동반자 사업을 통해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수요에 맞는 전문 연수 실시 및 후속사업 발굴·연계함으로써 일방적 한류 확산이 아닌 쌍방향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ODA 수원국과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ODA) 사업은 2013년부터 베트남,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여 추진하며 수원국의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대한민국의 문화ODA 예산은 2012년부터 지속 확대하여 2014년과 2015년에는 일본보다 많은 문화ODA를 제공하였고, 2018년에는 일본과 프랑스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문화ODA를 제공하였다. 대한민국 전체 ODA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비율은 2018년 0.45%(119.7억 원), 2019년 0.49%(135.2억 원), 2020년 0.46%(143.6억 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원) 수준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내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2021년 예산 비율은 0.23%(78.7억원)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문화ODA 예산 편성 비율을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체육 분야 예산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에는 문화 분야 예산비율이 52.5%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문화ODA(문화체육관광부) 예산 : 78.7억 원, 599만 달러/ 2021년 기준

(관계부처 합동,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문화ODA 사업의 대표사업인 문화동반자 초청연수 사업은 기존의 단기적으로 진행되던 국제문화교류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도국의 예술인과 문화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역량 강화 참여 대상자의 연수를 통한 학업적 성과가 궁극적으로 현지의 문화·창의 분야 사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Goal 4.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양성평등

소개

당사국들은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양성평등⁵⁾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 및 조치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국들은, 여성이 의사결정을 하는 직책을 맡을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이들이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창작자,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여성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 및 조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이 문화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당사국들은 또한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양성평등을 향한 진전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주요 질문

-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정부기관 또는 의회기관이:
 - 존재하며,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과 관계가 있다
 - 존재하며, 예술가 및 문화 분야 종사자들과 관계가 없다
 - 존재하지 않는다
- 지난 4년간, 여성이 문화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조치가 시행되었다:
 - 예 아니오
-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창조적 기업가로서 여성의 인식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가 채택되었다:
 - 예: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 자금 지원에 관한 동등한 기회부여, 코칭 또는 멘토링 제도, 차별금지 조치 등
 - 예 아니오
- 다음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 및 배포한다:
 - 문화 및 미디어 분야의 양성평등
 - 문화생활에 대한 여성참여

통계

- 여성 예술가와 제작자에게 지원되는 총 공적자금의 비율
-
- 공공 및 민간부문의 문화 및 미디어 기관들에서 의사결정/관리직을 가진 여성/남성의 비율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15.5% / 2021년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49.1% / 2021년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내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40% 이상 비율 92.6% / 2021년 기준
- 예술 및 문화 산업(영화, 출판, 음악 산업 등)의 중요한 페스티벌에 전시/기획된 여성/남성 예술가의 작품 비율
한국 개봉영화의 여성감독 작품 비율 : 21.5% / 2020년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
- 전국수준의 예술상의 수상/입상 여성의 비율
세종문화상 수상자 여성비율 : 17.6% / 2018~2021년 평균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자료)
-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
문화예술행사 관람 비율(여성) : 33.6% /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예술활동증명 비율(여성) : 54.0% / 2021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현황)

5) 양성평등은 유네스코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협약 제7조에 따르면, 당사국들이 "여성의 특별한 상황과 니즈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장합니다.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화예술단체, 양성평등단체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input type="checkbox"/> 영화/시청각 예술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미디어 아트 <input type="checkbox"/> 음악 <input type="checkbox"/> 공연예술 <input type="checkbox"/> 출판 <input type="checkbox"/> 시각예술 <input type="checkbox"/>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mcst.go.kr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p>문화체육관광부는 2003년 여성문화TF를 구성하고 여성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1995)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적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양성평등 환경 조성 및 종사자 인식 개선,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p> <p>2020년에는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조사, 연구,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p> <p>공공부문 정책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공무원, 정부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 역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소관 부서와 함께 점검 중에 있다.</p> <p>또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공부문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소속 및 공공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양성평등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양성평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 순회 포럼도 개최하고 있다.</p> <p>이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인식제고를 위해, ‘양성평등문화상’ 시상, 백텔테스트를 활용한 양성평등 우수 영화 및 영화인 선정 및 홍보, 근·현대 여성 인물 사업 발굴, 종사자별 맞춤형 성인지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p> <p>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걸친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관리를 통해 성별 균형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시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성인지 통계 연구도 시행하고 있다.</p>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이후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먼저 2018년 12월 발표된 「문화비전 2030」에는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성평등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혁신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과제를 포함하여 양성평등 문화 실현 비전이 포함되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정책 실행 기반 마련,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우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고위공무원은 '18년 7.1% 대비 '21년 15.5%, 본부 과장급 공무원은 '18년 22.2% 대비 '21년 49.1%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위원회 여성 위촉 위원 40% 이상 위원회 비율도 '18년 70.8%에서 '21년 92.6%로 20%p 증가하였으며, 106개 내부위원회의 훈령·예규·고시를 외부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 초과되지 않도록 개정 추진하여 완료하였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대한 논의 및 자문을 위한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2018년부터 운영하여 24회 개최하였으며, 문화예술계 양성평등 이슈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정책 공유를 위해 소속·공공기관 간 '양성평등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장 종사자들이 양성평등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 순회 포럼을 매년 개최하여 현장과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한 인물 및 콘텐츠를 발굴하여 양성평등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백텔테스트를 활용한 양성평등 우수 영화-시리즈(20편) 및 영화인(8명)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근·현대 여성 인물을 발굴하여 특별기획 전시('21.12월)를 하였으며, 문화예술기획 및 행정인력 대상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성인지교육 콘텐츠를 제작(5강)하였다.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108개 실시, 55건 개선)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을 '20년 대비 '21년 10% 확대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별 균형을 강화하였으며, 성별 현황 파악 및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지표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통계 조사 분석 연구」를 3건 추진하였다.

조직 내 직원들의 양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을 매년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담당자 대상으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 행정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국내외 주요 양성평등 정책 및 이슈 관련 카드뉴스를 매월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예산 : 1,030백만 원, 78만 4천 달러/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화예술단체, 양성평등단체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공부문 <input type="checkbox"/> 민간부문 <input type="checkbox"/>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1. 정책 및 조치명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하는 문화영역

■ 영화/시청각 예술 ■ 디자인 ■ 미디어 아트 ■ 음악
■ 공연예술 ■ 출판 ■ 시각예술 ■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 <http://www.kawf.kr/social/sub11.do>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 <https://www.kocca.kr/bora/>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http://solido.kr/>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의 성차별적 관행 근절과 여성예술인의 안전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해시태그 운동 확산을 계기로 문화예술계 전반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시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문학, 미술, 사진 분야를 대상으로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예술인의 성에 대한 인식, 성폭력 예방 교육 실태, 성폭력 피해 목격 및 경험, 성폭력 피해 대응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계 내 위계질서에 의한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 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조직하였다.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법령 정비, 가해자 지원 배제 등의 논의가 구체화되어 세 차례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문화예술계에 발생하는 불공정한 성폭력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상담을 담당하는 기관은 총 5개이다. 이 중 문화예술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로는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와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총 3개 기관이 있다. 모두 2018년 개소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민·형사 소송에 대한 변호사 법률지원과 비용 지원(법률소송대리 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각 센터에서는 예술인,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1.8)을 통해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영화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영화산업 내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단을 양성하여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연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에 따라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는 매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년 현장 집합교육,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든든 이슈브리프」, 활동 결산자료집, 성폭력 예방 가이드북 배포 등을 통해 영화계 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p>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가해자 제재 조치, 현장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였다.</p> <p>제도개선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금지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다. 2019년에는 문화예술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분야별 비교·분석 가능한 공통조사표를 개발하여 2021년에 문화예술·관광분야 실태조사에 적용하였으며, 2020년에 분야별 상담센터 사례 분석 및 피해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에도 정기적인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콘텐츠를 개발(47종)하고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19~'21, 85,847명)하였다.</p> <p>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한 누적 피해신고는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122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167건,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에서는 15명의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든든과 보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2018년~2021년 동안 든든의 의료·상담지원은 31건, 법률지원은 212건 추진되었고, 보라는 일반상담 1280건, 피해지원 27건을 추진하였다.</p> <p>각 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가 실시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8,804명이 수강하였고, 보라에서 추진한 성평등 예방교육을 통해 14,056명이 수강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든든에서는 2018년 95건, 2019년 119건, 2020년 총 112건, 2021년 164건의 교육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p>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700백만원)+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126백만원)+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450백만원) 예산 : 1,276백만 원, 97만 1천 달러/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p>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예술적 자유

소개

당사국들은 예술적 자유⁶⁾를 증진하기 위해 채택되고 시행된 정책과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당사국들은, 검열이나 협박 없이 창작할 권리,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분배 및 보상을 받을 권리, 이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예술가의 사회적 및 경제적 권한을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증진하는 활동에 대해 강조해야 합니다.

주요 질문

1. 헌법 또는 국가 규제 프레임워크는 공식적으로 다음을 인정한다:

- 예술가가 검열이나 협박 없이 창작할 권리
-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작품을 전파 및 공연할 권리
- 모든 시민이 공공 및 민간 예술작품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권리
- 모든 시민이 아무 제한 없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불만을 접수하거나 예술적 자유에 대한 위반과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 단체가 설립되어 있다:

- 예 아니오

3. 지난 4년 동안, 위협에 처해 있거나 망명 중인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하였거나 지원하였다:

- 예: 은신처 제공, 지도 및 훈련 등

- 예 아니오

4. 정부기금/국가보조금 및 예술가를 위한 시상에 대한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및 이니셔티브가 존재한다:

- 예: 독립 위원회 등

- 예 아니오

5. 지난 4년 동안, 예술가의 전문적 지위를 고려한 사회적 보호조치가 채택 또는 개정되었다

- 예: 건강보험, 은퇴제도, 실업수당 등

- 예 아니오

6. 지난 4년 동안, 예술가의 지위를 고려한 경제 조치가 채택되거나 개정되었다

- 예: 단체협약, 소득세 및 기타 규제 프레임워크 등

- 예 아니오

6) 협약 제2조는 "표현, 정보 및 통신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문화적 표현 선택 능력 등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다"고 첫 번째 지침 원칙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자유'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1. 정책 및 조치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련 제도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영화/시청각 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공연예술 출판 시각예술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http://www.kawf.kr/>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동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재단을 통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왔다.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 것은 2016년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듬해 출범한 제19대 대통령(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장과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그리고 문화예술계 공적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으로 2017년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1년 제정되었다. 해당 법률의 주요 골자는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증진, 양성평등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의 세 가지이며,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예술인조합을 조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창작안 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작역량 강화 사업, 직업역량 강화 사업이 있다. 기초적인 창작활동 지원사업과 더불어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2017),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2018), 서면계약위반 신고·상담 창구(2020)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제도(2012)와 고용보험 제도(2020)를 도입하고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용자지원 사업(2019)을 추진하고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하며, 코로나19 이후 각종 정

'예술적 자유'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부 지원정책 참여를 위해 예술활동증명 가입자 수가 대폭 확대되어 2018년 57,417명에서 2021년 129,450명으로 증가하였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예술인패스를 발급한 인원 역시 2018년 58,125명에서 2021년 114,677명으로 늘어났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에 필요한 자금(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1년까지 총57,798명을 지원하였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路)는 예술인이 예술적 역량을 통해 기업·기관·마을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00명 내외 예술인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지역사업을 신설하고 2021년에는 12개 광역문화재단(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울산, 세종, 강원, 경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자녀돌봄지원을 위해 2014년 대학로 반디돌봄센터(종로구)와 2017년 예술인자녀돌봄센터(마포구)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2021년 3,340명이 센터를 이용하였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프리랜서 예술인이 개인 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산재보험 가입 과정에서의 사무를 대행하고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50~90%를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중장기적인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120~270일간의 구직급여(실업급여)와 90일간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프리랜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도입하여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기간에는 '특별융자'를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예술활동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게 융자를 지원하였다. 2021년 총 예산규모는 230억이며 수혜자수는 2,418명이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산 : 85,762백만 원, 6,527만 8천 달러/ 2021년 예산현액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예술적 자유’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1. 정책 및 조치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련 제도

2. 정책 및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 정책 및 조치에 해당되는 문화영역

- 영화/시청각 예술
- 디자인
- 미디어 아트
- 음악
- 공연예술
- 출판
- 시각예술
- 문화경영

4.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http://www.i-eum.or.kr/main/view>

5. 정책 및 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2008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항’이 포함되면서, 복지영역에서 추진되던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문화정책으로 수렴하게 되었고, 2015년 전담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설립하였으며, 2020년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14년 문화다양성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소수집단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화되었고, 2015년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설립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사업, 네트워크 실행·발전 정책전달을 체계화하였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장애인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포함하였고, 「문화비전 2030」의 추진과제로 제시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포함시켰다.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활동 지원, 작품 발표기회 확대, 고용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이다. 장애예술인지원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방향성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2021.2~10), 장애예술인·전문가·정부 분과위원회 구성하여 24회에 걸친 분과회의와 자문회의의 진행(2021.4.~11),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의 의견 수렴(2021.7. 및 2022.5.),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및 협의(2022.4.),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2022.5.17.),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 심의(2022.7.5.)를 거쳐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2.9.8.)를 통해 발표하였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 예 아니오

7.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설립되며,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 조사, 포럼이 추진되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2018),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2018), 「장애예술인 전용극장 조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초조사」(2018), 「장애예술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9),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20)가 진행되었고, 2018년과

'예술적 자유'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2

2021년에 걸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83.7%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34.3%, 지체장애 26.0%, 시각장애 15.0%, 자폐성장애 13.0%, 청각·언어장애 4.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주요 활동 예술분야는 서양음악(27.2%), 미술(26.8%), 대중음악(11.4%), 국악(8.5%) 순이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1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예술인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지원은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70.5%),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지원(8.0%), 홍보·마케팅 지원(6.0%)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8% 늘어난 247억 원, 2022년에는 260억 원이다. 지원 예산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장애예술인 전문 교육,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국제장애예술주간 등 국제교류 사업,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 등에 사용된다. 또한 한국 최초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접근성을 고려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을 2023년 개관할 예정이다.

9. 정책 및 조치에 할당된 재정 규모 (미국 달러 기준)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 : 247억 원, 1,880만 달러/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10.)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본격 가동")

10.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1.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12. 정책 및 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시민사회단체가 보고한 조치 및 이니셔티브

소개

2005년 협약 제11조 및 관련 운영지침은, 협약의 실행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CSO)의 주요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정보공유 및 투명성"의 관련 운영지침 14번째 문단에는 "당사국은 공동으로 합의된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보고서는 시민사회가 초안 과정에 참여한 방식에 대해서도 표시해야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4년 주기 정기보고서를 정교하게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방식
- 지난 4년 동안, 협약의 4가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시행한 관련 조치 및 이니셔티브
- 협약을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식별해낸 우선순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 양식을 여기에서 다운로드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응답 및 기여 마감일을 수렴하는 조직을 표시 합니다
-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활동이 식별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공개적으로 기여를 요청하여 선정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시민사회단체 양식을 배부합니다
- 4년 주기 정기보고서 양식의 첫 번째 섹션인 "일반 정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양식을 사용하여, 조치 및 이니셔티브를 보고한 시민사회단체의 세부연락처 정보를 포함합니다
- 다음 방법으로 아래 섹션을 완성하십시오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과정을 설명합니다
 - 시민사회단체 양식을 통해 수집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조치 및 이니셔티브를 선택합니다
 - 향후 우선순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응답을 취합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협의과정

이 보고서 작성 시, 시민사회단체 양식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을 증진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양식배포 및 취합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양식이 포함됩니다. 당사자에 의해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고 4년 주기 정기보고서에 포함된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비율을 표시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유네스코 정기보고서에 보고할 시민사회단체 활동 사례 선정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사례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였다. 10여 회에 걸친 시민사회단체와의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10개 시민사회단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목표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5개 시민사회단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체에게는 '시민사회단체 작성 양식'을 배포하여 약 한 달간의 작성 기간을 부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보고한 조치 및 이니셔티브

협약의 4가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시민사회단체가 시행한 관련 조치와 이니셔티브를 아래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와 이니셔티브 입력 시 수적 제한은 없습니다. 각각의 조치/이니셔티브에 맞춰 새 양식을 작성하려면, 각 목표 아래에 있는 "조치 추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Goal 1. 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지원

조치 N.1

1. 조치 및 이니셔티브명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프로그램

2. 조치 및 이니셔티브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명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3. 조치 및 이니셔티브에 해당되는 문화 영역

- 영화/시청각/라디오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출판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창의 분야

4. 만약 있다면,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웹사이트

경기문화재단 : <https://www.ggcf.kr/>

5.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경기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문화재단이다. 2019년 경기문화재단 내 예술교육팀이 신설되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획자, 매개자, 예술가가 기획, 창작, 실행, 홍보, 발표 전 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를 제작하였다. 또한, 일반인과 예술인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다이아프로젝트 'O' 이야기>라는 교육용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이는 다수와 소수가 함께 공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외국 원작도서를 기반으로 6분 길이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경기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문화다양성 주제의 기획 사업으로 '입체촉지도' 제작을 진행하였다. 입체촉지도란 시각장애인에게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형물로, 장애인에게는 공간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 연구자와 예술가, 기획자가 공동 참여하여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진행되었고, 현재 경기도북부청사 평화광장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임구에 설치되어 있다. 공공 시설에 설치된 세계 최초의 배리어프리 안내 지도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 예 아니오

7. 조치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안내서」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사회적 갈등(혐오, 차별, 불안심리,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안내서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창작, 실행, 홍보, 발표 단계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020년은 안내서 제작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 12회와 문화분야 종사자 14명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2021년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선정기관, 선정단체,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와 함께 두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 결과와 문화예술 현장 사례를 반영한 안내서 보완 작업을 추진하였다. 안내서에 대한 3분 길이의 소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안내서 최종본을 전국의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260여 곳에 배포하였으며 원본 파일을 경기문화재

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다이아프로젝트 'O' 이야기> 또한 유튜브에 게시하여 약 1.4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입체촉지도 제작 프로젝트 역시 제작 및 설치과정과 시각장애인 연구원, 예술가, 기획자의 인터뷰를 담은 기록용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여 공유하였다.

그 외에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의 문화다양성 공모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연수, 워크숍, 콘텐츠 제작, 전시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Goal 2. 균형적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과 예술가 및 문화분야 종사자의 이동성 증진

조치 N.2

1. 조치 및 이니셔티브명

아동청소년 연극 국제교류

2. 조치 및 이니셔티브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명

사단법인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ITEJ KOREA, 아시테지 코리아)

3. 조치 및 이니셔티브에 해당되는 문화 영역

- | | | | |
|-------------------------------------|-------------------------------|--|-----------------------------------|
| <input type="checkbox"/> 영화/시청각/라디오 |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 <input type="checkbox"/> 미디어 아트 | <input type="checkbox"/> 음악 |
| <input type="checkbox"/> 출판 | <input type="checkbox"/> 시각예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연예술 | <input type="checkbox"/> 문화·창의 분야 |

4. 만약 있다면,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웹사이트

사단법인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 www.assitejkorea.org

5.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1982년 설립된 아시테지 코리아는 1965년 파리에서 창립된 아시테지 국제아동청소년연극 협회의 87개 회원국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의 발전과 확산에 힘쓰고, 회원(단체 및 개인) 상호 간의 교류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내 200여 개의 어린이·청소년 전문 공연단체, 극작가, 평론가, 기획자, 연구자 등이 함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폭넓고 질 높은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시테지 코리아의 대표사업으로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이하 여름축제)’와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이하 겨울축제)’가 있다. 두 축제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우수한 공연예술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이며, 영·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가족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발달과정에 부합하는 공연예술을 발굴 및 육성하여 공연하고 있다.

여름축제는 1993년 ‘서울어린이연극제’로 시작하였으며 1995년부터 해외 우수어린이청소년극을 초청하여 국제공연예술제로의 면모를 갖추었고 1997년 ‘서울국제어린이공연예술제’, 2001년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로 발전하였다. 2009년 ‘제17회 아시테지 여름축제’에 이어 2013년 제21회부터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로 행사명을 바꾸고 해외 참가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매년 7월 셋째 주부터 10여 일 간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작품을 초청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40여 개국 170여 작품을 초청하였다. 공연뿐 아니라 부대 프로그램인 워크숍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국내·외 예술가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2005년 시작된 겨울축제는 매년 1월 첫째 주, 10여 일간 개최하는 공연예술축제이다. 양질의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작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시장을 형성하고, 국내·외 예술가의 창작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당해 연도의 국내 우수한 공연작품을 공연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섹션인 K-PAP(Korea Performing Arts Platform for children and youth)을 통해 국내·외 예술가가 창작방식을 공유하여 상호 교류, 협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겨울축제에 소개된 모든 공연작품은 K-PAP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프로모터에게 소개되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조치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2022년 제30회를 맞았으며, 30년 동안 40여 개국 170여 작품을 초청하여 약 30만 명 이상의 국내 어린이·청소년들을 만났다. 2014년부터 지역 어린이·청소년에게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개의 해외작품을 지역연계공연으로 진행했던 것을 확대하여, 2021년 전국 4개 지역(광주, 대구, 인천, 김해)과 연계하여 유수의 어린이·청소년 공연 및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한 유류 상승과 입국 격리 상황의 빈번한 변화로 해외공연 진행에 차질이 발생, 당초 5개 지역에서 남양주(정약용도서관)와 광주(ACC) 2개 지역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작품 수용 의지를 가진 지역을 확인하였으며 2023년에는 지역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테지 겨울축제는 2022년 18회를 맞았다. 축제 후 참가작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시상식’은 1992년 시작된 국내 유일의 아동·청소년연극상인 ‘서울어린이연극상’에서 시작되어 2022년 제30회 수상작을 배출했다. 본 상은 국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창작공연의 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수상작품들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받아 전 세계축제에 초청을 받고 있다. 겨울축제 기간에 진행되는 국내 유일 어린이·청소년 아트 마켓이자 플랫폼 사업인 K-PAP은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2년 간 총 29개국 46명의 프로모터들이 참여, 3개 극단의 해외 진출, 12개 극단의 진출이 논의되는 성과를 이루었다(2019년 기준).

Goal 3.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에 문화 통합

조치 N.3

1. 조치 및 이니셔티브명

기후변화 주제 예술가 레지던시

2. 조치 및 이니셔티브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명

프로듀서그룹 도트(Producer Group DOT)

3. 조치 및 이니셔티브에 해당되는 문화 영역

- 영화/시청각/라디오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출판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창의 분야

4. 만약 있다면,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웹사이트

프로듀서 그룹 도트 : <http://producergroupdot.kr>

예술터밭 예술가 레지던시-기후변화 : <http://artstutbatclimatechange.com>

5.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프로듀서 그룹 도트는 공연예술 분야 독립 프로듀서들의 콜렉티브 단체로 2014년 설립되었다. 현재 4명의 공연예술 프로듀서가 주축이 되어 연극, 무용, 다원예술 분야에서 공연 예술작품 창작, 국제공동제작, 국제교류, 국제 레지던시 연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도트는 예술의 동시대성이라는 주요한 화두를 가지고 아시아 연대, 도시, 경계, 난민, 장애, 기후변화 등의 주제 탐구를 하며 연극, 무용, 다원예술 분야의 협력예술가들과 작품을 창작하며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2019-2022) 도시와 예술, 장애와 예술, 기술사회와 예술, 기후변화와 예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레지던시, 기술랩, 커넥티드 시티 등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아시아프로듀서플랫폼(APP)와 예술터밭 예술가 레지던시: 기후변화가 있다.

아시아프로듀서플랫폼(APP)은 2013년 한국, 대만, 일본, 호주의 민간 프로듀서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플랫폼으로 한국에서는 프로듀서 그룹 도트 프로듀서가 APP의 창립위원 및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일본, 호주, 대만, 홍콩, 마카오,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00여명의 독립 프로듀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아시아의 공연예술 프로듀서 50여명이 참가하는 캠프 프로그램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도트는 한국 동시대 예술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고 투어, 국제 공동제작 뿐 아니라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며 집적된 지식과 정보 네트워크를 공연예술계에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한다.

예술터밭 예술가 레지던시: 기후변화는 2020년 시작한 주제형 예술가 레지던시이다. 연극, 시각예술, 영화, 영상, 문학, 다원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기획자, 리서처들이 참여하며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동시대 주요 화두인 기후위기에 대해 탐구한다. 2020년, 2021년 레지던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전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운영했으며, 2022년은 관점의 전환이라는 큰 주제 하에 '에너지'라는 소주제로 보다 구체화하였다.

레지던시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첫째, 레지던시 참여 작가 전원이 함께하는 워크숍·강연 형식의 '공동 워크숍' 둘째, 개별 참여 작가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연구·작업 활동인 '개별 리서치' 셋째, 전체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레지던시' 넷째,

참여 작가들이 레지던시 활동 결과물을 전시·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하는 ‘오픈텃밭’이다.

특히 오픈텃밭의 경우 지역 리서치 전시와 환경 영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인이 예술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장애와 예술, 난민을 주제로 한 공연작품 제작 및 유통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장애와 예술을 주제로 2019년 포용적 접근의 장애 예술 창작 개발과 관객 개발 리서치 및 워크숍, 2020-2021년 시각장애인의 무용 향유를 위한 무용공연 음성해설 워크숍, 2022년 공연작품 창작을 위한 워크숍 및 작품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예 아니오

7. 조치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아시아프로듀서플랫폼(APP)은 2014년 한국을 시작으로 매년 특정 국가를 선정하여 APP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현재까지 총 6회의 캠프를 진행하였다.

2020년 시작된 예술텃밭 예술가 레지던시: 기후변화는 3년째 지속되고 있다. 6개월씩 기후변화 레지던시 진행과 함께 세 번의 워크숍을 가져 개별·공동 리서치를 진행하고 결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화천에서 환경을 말하다2020」, 「관점의 전환, 세상을 보는 시선들」,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의 소주제로 레지던시를 진행하고 있다.

레지던시 참여 작가들은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포럼, 강연, 웹진 필진 등으로 활동하며 레지던시 작업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레지던시에서 발표된 작품들 또한 축제와 극장, 갤러리 등에 초청되며 ‘예술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를 예술계 내 확산시키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기후변화 예술가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Goal 4.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조치 N.4

1. 조치 및 이니셔티브명

여성창작자를 위한 아트테크 교육

2. 조치 및 이니셔티브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명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3. 조치 및 이니셔티브에 해당되는 문화 영역

- 영화/시청각/라디오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출판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창의 분야

4. 만약 있다면,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웹사이트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 <http://womanopentechlab.kr/>

5.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2017년에 결성된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이하 여성기술랩)은 도심제조업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온 을지로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을지로라는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메이커 문화, 미디어아트 등 기술을 활용하는 영역에 만연한 젠더편향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여성'과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결합하여 "기술의 젠더적 접근-페미니즘의 기술적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워크숍, 전시, 세미나, 강연, 연구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의 기술에 대한 리터러시를 키우고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기술에 대한 주체적 사고와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 프로그램으로 기술연구모임, 저항하는 기술 The Resisters, 기술 교육 콘텐츠개발이 있다.

기술연구모임은 2017년부터 매년 10명 이하의 여성 예술가 및 창작자를 모집해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모임을 갖는 활동이다. 매회 모임의 키워드 주제를 선정하고, 참여자 개개인의 큰 주제 내에서 관심있는 세부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활동한다. 키워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참여자들은 기술이 예술과 결합하면서 어떤 식으로 정의되고, 매핑되고, 필터링되고, 도구화되는지를 고민한다.

‘저항하는 기술 The Resisters’는 설치, 조형예술, 미디어아트 등 예술 창작에 유용한 몇 가지 기술을 함께 경험하고, 이를 다시 각자의 언어(예술적 표현)로 새롭게 창작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10명의 청년(29세 이하) 여성 예술가를 모집하여 진행되었으며, 여성 창작자의 기술 자립도, 기술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여성 창작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또한 기술 교육 콘텐츠개발을 통해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수자를 위해 기술 워크숍 및 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하여 기술 리터러시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E-Textile(이-텍스타일), 피지컬 컴퓨팅, 코딩, DIY 크래프트, 기술 해킹 등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기술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입문 키트를 개발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 예 아니오

7. 조치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기술연구모임은 2017년도 1기 모임에서 '기초 전자 기술'을 주제로 연구하였고, 2018년도에는 'E-Textile(이-텍스타일)'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한 3기 모임은 '기술을 활용해 여성이 직접 만드는 여성을 위한 어떤 것'이라는 주제로 구성원을 새롭게 모집하고 2020년 4월 온라인 전시 <f 항목 추가 중(Editing f in Encyclopedia)>을 개최하였다. 2020년 6월 시작된 4기 모임은 서킷 벤딩(Circuit Bending)을 주제로 모임을 이어왔으며 2021년 1월에 '킵킷 서킷(Kick-it Circuit)'이라는 웹사이트를 열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5기 모임은 '서킷 브레이커스(Circuit Breakers)'라는 이름으로 각자가 원하는 회로(PCB)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보는 모임을 진행했다. 2022년 6월, 6기 모임은 '비판적 기술 읽기(Reading Technology Critically)'를 주제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저항하는 기술 The Resisters는 2020년 서울문화재단 도시문화LAB[Out: 학교/장르 밖으로]에 선정된 프로젝트이다. 젊은 여성 창작자를 대상으로 9회차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온라인 전시를 열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동료로서 젊은 여성 창작자들이 만나 전기, 용접, 해킹, 3D 모델링 등의 기술을 함께 경험하고, 기술에 관한 주체적인 사유를 깨우며, 위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기술 문화를 모색하는 장이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 10명의 작업을 온라인 전시 <Click and Run>으로 개최하였다.

기술 교육 콘텐츠를 통해 E-textile(이-텍스타일) 입문키트와 몸(MOM) 키트가 개발되었다. <E-textile 입문키트 : 바느질로 회로를!>은 전자기술과 텍스타일이 결합된 E-textile(이텍스타일)을 체험해보는 DIY키트이다. E-textile용으로 디자인된 불(BUL, LED)과 밥(BAB, battery socket),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실, 바늘, 똑딱이 단추 등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은 LED를 켜는 회로를 바느질로 완성할 수 있다. 워크숍에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키트를 구매해서 동봉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스스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몸(MOM) 키트는 센서, 스피커 등 다른 전자부품과 연결 가능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이다. 아두이노로 대표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개념을 사람 모양의 몸 보드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전도성 테이프, 전도성 실과 같은 재료들과 함께 쓰기 용이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몸 보드를 이용하여 간단한 회로를 구성하고, 만들기과 결합하여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자기술과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된다. 몸(MOM) 키트에는 몸 보드와 연결 가능한 부품인 불(BUL, LED), 밥(BAB, battery socket), 툴(TOOL, open circuit)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나만의 을지로스타일 멀티탭 만들기 워크숍, 신체와 감각을 잇는 피지컬 인터페이스 디자인 워크숍이 개발되었다.

Goal 4.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조치 N.5

1. 조치 및 이니셔티브명

지역별·장르별 장애인예술연합회 활동 지원

2. 조치 및 이니셔티브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명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3. 조치 및 이니셔티브에 해당되는 문화 영역

- 영화/시청각/라디오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출판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창의 분야

4. 만약 있다면,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웹사이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www.fdca.or.kr

5.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애총)는 전국 11개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연합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창작자이자 향유자로서의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 창작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예술만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이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의 고용 창출과 자립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문화향유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 동시에 예술을 통한 행복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축제 개최, 장애예술인 육성 교육, 예술 활동 공간 마련 사업, 장애예술 국제교류 사업 및 장애예술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Festival,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경연대회 Special K,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이 대표적이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Festival’은 2009년부터 시작된 축제로 장애인의 잠재적 가능성(Ability), 열린 접근성(Accessibility), 활기찬 역동성(Activity)을 모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Arts)로 함께(All Together)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장애인이 수동적 관객이 아닌 예술 창작의 주체자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경연대회 Special K’는 장애예술인의 사회적·예술적 발판을 마련하여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 실용음악, 클래식, 무용, 연극·뮤지컬 분야의 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제10회를 맞이하였다.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은 공모를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상금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학상은 운문부(시·동시)와 산문부(단편소설·중편소설·수필·동화)로 나뉘고, 미술대전은 한국화·서양화·공예·조각·서예·문인화·전각·서각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 예 아니오

7. 조치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 예 아니오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Festival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회차가 진행되었고, 약

140만 명의 관람객과 2만 명의 장애예술인이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경연대회 Special K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회차를 진행하며 매년 실용음악, 클래식, 무용, 국악, 연극·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있다. 2022년 현재까지 3,000여 명의 공연예술 분야 장애예술인을 발굴하였고 이들은 전국 각지와 해외 다양한 무대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은 2022년 32회를 맞이하였다.

이 외에도 장애청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예술 활동을 증진하고 있다. '장애인창작아트페어'를 통해 매년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3,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0만 원 이상의 작품을 판매하였다. '국제장애인미술교류'를 통해서도 매년 접수되는 600여 점의 작품을 심사하고 최종 선정하여 국제교류 국가에서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FDCA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장애예술 현황 파악, 발전방안 논의와 더불어 기획, 편당, 홍보를 위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였다.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예술과 요양 보호를 융합한 직무인 '정서지원예술사'라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직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시설 종류별(주출입구, 장애인주차시설, 출입문 등)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유형별(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매년 'AND 웹진'을 발행하고 있다. 'AND웹진'은 Art & Disability의 약자로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통합하는 온라인 화합의 장으로 기획하였다.

협약의 향후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우선순위

시민사회단체 양식을 통해 제공된 응답의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4년간 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우선순위 10가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나타난 횡단적 이슈

소개

당사국들은, 매 보고 주기마다, 협약의 관리기관이 식별한 새롭게 나타난 횡단적 이슈에 대해 보고합니다. 당사국들의 총회 결의안은 4년의 보고서 주기에 따라 보고되는 횡단적 이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서브섹션은 또한 당사국들이 협약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협약의 11개 모니터링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정책과 조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관련 정책 및 조치

조치 N.1

정책명/조치명

문화예술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정책/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극단,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부산현대미술관

정책/조치에 해당되는 문화 영역

- | | | | |
|-------------------------------------|-------------------------------|--|-----------------------------------|
| <input type="checkbox"/> 영화/시청각/라디오 |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 <input type="checkbox"/> 미디어 아트 | <input type="checkbox"/> 음악 |
| <input type="checkbox"/> 출판 | <input type="checkbox"/> 시각예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연예술 | <input type="checkbox"/> 문화·창의 분야 |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

정책/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파리협약을 계기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22년 시행 예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 영역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인식은 2021년을 전후하여 이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적 표현의 한 형태로 연구, 포럼, 예술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정책과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와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 방향」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2021년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제9회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립극단에서는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공연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공연제작, 홍보, 관람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측정하여 향후 공연예술계 탄소발자국 절감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문화역 서울284에서 기후위기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성찰하는 <사물을 대하는 태도> 전시를 개최하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의 주제를 반영한 <아쿠아 천국> 전시를 선보였다.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지속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와 <그 후, 그 뒤,> 등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2021년 7월 이탈리아에서 채택된 「G20 문화장관 선언문」에서는 문화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기후위기(climate crisis)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문화 활동은 국제의 제 이행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이 정책/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정책/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공공영역에서 문화를 매개 한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 포럼, 예술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공연과 전시 활동이 두드러진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국립극단의 <기후비상사태: 리허설>이 대표적이다. 창작자들은 공연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공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무대, 의상, 조명, 음향 및 영상, 분장 영역에서의 노력을 시도하였다. 무대 제작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트 제작을 줄이고 국립극단이 보유한 소품을 사용해 공연 후 폐기물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의상 또한 새롭게 제작하기보다 기존의 의상을 활용하고 세탁 시에는 식물성 세제를 사용하였다. 조명 설치에 있어서는 백열등 조명이 아닌 LED 조명을 사용해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며, 음향은 비교적 적은 전력으로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 분장 시에는 비건 화장품을 사용하고자 했으며, 홍보를 위한 포스터와 프로그램북은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활용해 제작하였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부산현대미술관이 대표적이다. 2021년 <지속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 전시를 개최하며 작품 운송,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뉴욕에 있는 6점의 작품을 항공운송이 아닌 해상운송으로 실어와 탄소 배출량을 1/40로 감축시킨 성과를 보였다. 기후변화 시대에 해양오염 문제를 주제로 한 전시 <그 후, 그 뒤,>에서는 전시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재활용한 에코백을 제작해 판매하였고, 업사이클링 체험 키트 '내 가방 속 꿈꾸는 바다'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하였다.

정책/조치에 할당된 재정적 자원의 액수(미국 달러 기준)

-

정책/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정책/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정책/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조치 N.2

정책명/조치명

대학교 다양성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및 행사 진행

정책/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정책/조치에 해당되는 문화 영역

- 영화/시청각/라디오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 출판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창의 분야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 <https://diversity.snu.ac.kr/page/provision.php>

정책/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2016년 3월 국내 대학 최초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학문공동체와 건강한 대학문화의 구축을 목적으로 다양성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다양성위원회에서는 매년 「다양성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양성 도서 및 영화 공모전, 다양성을 주제로 한 공론의 장 마련 및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성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전체 구성원의 다양성 현황을 소속기관, 성별, 국적, 직급, 출신학교, 계약 형태, 장애등록여부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대학생활 지원과 일·생활 균형 지원을 살펴본다. 다양성 도서 및 영화 공모전은 매년 3~4월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구성원에게 추천사를 공모받아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후속 행사로 다양성 도서 북콘서트, 다양성 영화 관객과의 대화 등을 개최한다. 또한 다양성위원회의 기획 연구과제의 결과를 공유하는 정책포럼과 다양성 대화를 통해 다양성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도록 활동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이 정책/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정책/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을 기념하여 다양성 도서 추천사 공모전 및 다양성 도서전, 북 콘서트를 개최하여 학내 존중과 배려의 문화에 대해 사유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도서전의 사전 행사로 ‘다양성 도서 추천사 공모전’을 시행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추천사 도서를 전시하는 다양성 도서전을 중앙도서관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한, 2019년부터 다양성 도서 추천사 공모전에서 선정된 도서 30선을 중앙도서관 2층 북 카페에 한 달간 전시하였으며, 30선 추천사를 담은 홍보자료 및 기념품을 배포하고, 도서전의 후속행사로 저자를 초청하여 북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022년부터 매체를 확장하여 다양성 도서/영화 추천사 공모전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사업으로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 교육과정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를 진행하여 개발한 기본과정이 2021년 12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개설되었다.

정책/조치에 할당된 재정적 자원의 액수(미국 달러 기준)

-

정책/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정책/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정책/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조치 N.3

정책명/조치명

소멸위기 제주어 보존과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정책/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명

제주학연구센터

정책/조치에 해당되는 문화 영역

- 영화/시청각/라디오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악
 출판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창의 분야

만약 있다면, 정책/조치의 웹사이트

제주학연구센터 : <http://www.jst.re.kr>

정책/조치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8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제주학 연구와 대중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된 제주어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소멸위기 제주어 보존을 위해 ‘제주어 조사 사업’과 ‘제주어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어 구술 화자를 직접 만나 음성, 영상 자료로 기록하였고, 동시에 전통문화와 세시풍속 등 특정 주제에 따른 조사도 병행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전사와 구술자료집, 단행본 책자 발간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였다.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2014-2016)’과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제주어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어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안 및 정책 연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제주어 관련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어 길라잡이(제주어 총서) 발간’을 통해 일반인이 제주어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옷, 음식, 집 등 문화와 접목하고, 생활어로서의 제주어를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주어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안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어를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한 제주어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제주어 상담 창구인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봄서’ 운영은 물론 아름다운 제주 말과 글을 찾기 위한 제주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어 관련 단체, 활동가가 모여 제주어 연구 및 활동에 관한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제주어 포럼과 제주어 자료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이 정책/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정책/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제주어 조사 사업은 제주어 구술자료 표준어 대역 사업,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지역 12개 읍면의 36개 마을의 제주어 조사 자료를 표준어로 바꾸고, 각주 작업을 진행하여 제주어구술자료집 36권 발간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제주어와 제주 전

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관련 자료집 총 3권 출간하였고, 2022년에는 제주의 돌문화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어 연구 사업으로 대표적인 4개의 활동이 추진된다. 제주어 길라잡이(제주어 총서)가 총 2권 발간되었고(2020년), 2020년과 2022년에 걸쳐 제주어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19년도는 총 3회차의 제주학대회를 개최하고, 2022년은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어 대중화 사업은 제주어 홍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개소한 제주어 종합상담실을 통해 상담 진행 및 자료집을 총 3권 발간하였고, 2018년부터 제주어 공모전 사업을 통해 총 4개의 수상 작품집을 발간하였다. 2022년 현재 제10회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제주어 포럼 '놀다'를 개최하여 연구자와 단체, 활동가들이 성과물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정책/조치에 할당된 재정적 자원의 액수(미국 달러 기준)

-

정책/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파트너(들)의 이름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정책/조치의 시행에 참여한 단체 유형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정책/조치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도전과 성취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달성된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 목표마다 최소 각 1개의 주요 성과)

대한민국은 국가 전반에 걸쳐 정책 및 조치, 프로그램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촉진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정부 간, 민관 간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시키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국제적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 문화다양성 확산과 정책 및 조치 참여를 확산한 점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는 다양한 문화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보고서(QPR)의 보고 기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과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상생하는 환경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대응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버넌스 체계) 문화의 창작, 생산, 유통, 향유 전 주기에 걸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국민 인식조사, 공공기관 실태조사 등 문화다양성 정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확대하고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 거버넌스 체계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예술가와 문화분야 종사자 이동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동성을 증진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혁신을 촉진하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예술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 서부터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술가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정책을 촉진하는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원하고, 시민사회단체 협력을 일시적인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형성하였습니다. 현재 17개 지방자치단체와 2개 지역 교육청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12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이슈를 발굴하는 실태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 양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개발 및 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특히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을 보장하고자 올해(2022년) 9월 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였습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창작지원, 전문교육 및 인력양성, 국제교류, 표준공연장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약 이행 도중 직면하게 되는 주요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미 발견했거나 또는 향후 예상되는 주요 해결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은 관련국가와 협력을 비롯하여 국내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결과이고, 대부분이 인식개선, 역량강화와 같은 노력과 과정 중심의 특징에 의해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법, 제도, 거버넌스 체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력과 성과 모니터링은 어려운 도전과제입니다. 많은 정책 및 조치는 예산이 할당되지 않는 비재정 사업인 연구 및 조사, 계획수립, 데이터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상품 및 서비스는 민간경제(산업) 부문에서 활발한 담론과 가치 확산이 중요할 수 있으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있는 민간경제 활동에 대한 협력은 현실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 및 조치에 정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경제 영역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4년 동안, 협약을 계속해서 이행하기 위해 계획된 단계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보고 과정에 대한 결론을 토대로 한 향후 정책 활동을 위해 식별된 우선순위 영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021년~2024년 기간 동안 정책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이며, 관계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계획의 주요 전략은 1) 문화다양성 보호 및 확대, 2) 소수자의 문화참여 및 접근성 보장, 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으로 문화 제작, 유통, 향유 전반에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사업의 개발 및 확대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모니터링 및 평가 이니셔티브 개발, 정부당국 및 시민단체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제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국가보고서 작성 기간인 2022년에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는 문화다양성 협약 철학과 맥을 같이하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앞으로 정책 전반에서 문화다양성과 포용성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이행될 것입니다.

부록

귀하의 국가에 있어서, 협약의 4가지 목표 및 11가지 모니터링 영역의 이행에 관련된 문서(법률, 정책, 협정, 규정, 전략 등), 연구 및 통계를 PDF 형식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는 이 정기보고서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문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목과 설명에 대해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제목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문서 설명

대한민국이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10개 정부부처의 정책 및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021년 첫 번째 계획이 발표되었고 계획 기간은 2021년~2024년이다.



Electronic Form for Periodic Reporting to the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19 edition

유네스코 전자제출본(2022.9)

GENERAL INFORMATION

TECHNICAL INFORMATION

NAME OF PARTY (COUNTRY)		DATE OF RATIFICATION		
Republic of Korea		1	4	2010
OFFICIALLY DESIGNATED NATIONAL POINT OF CONTACT OF THE CONVENTION				
Title		First Name		Family Name
Ms.	Mr.	Sungmi		Yang
Telephone		Mailing Address		Email
+82 44-203-2516		Government Complex-Sejong 388, Galmae-ro, Sejong-si 30119		mymariah20@korea.kr
Organiz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tact details of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the quadrennial periodic report (QPR). Please also include the contact details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if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QPR drafting, including through the CSO form

Organization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Email **brj@kcti.re.kr**
 Website **<https://www.kcti.re.kr/>**

Organizati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mail **ybk@unesco.or.kr**
 Website **<https://www.unesco.or.kr/>**

Organization **Arts Council Korea**
 Email **kcdm@arko.or.kr**
 Website **<https://www.arko.or.kr/>**

Organiz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Email **diversity@snu.ac.kr**
 Website **<http://diversity.snu.ac.kr/>**

Organization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Email **hwang2138@ggcf.or.kr**
 Website **<https://www.ggcf.kr/>**

Organiza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Email **assitej@assitejkorea.org**
 Website **<http://assitejkorea.org/>**

Organization **Center for Jeju Studies**
 Email **kimmijin@jst.re.kr**
 Website **<http://www.jst.re.kr/>**

Organization **Producer Group DOT**
 Email **jsunarts@yahoo.com**
 Website **<http://producergroupdot.kr/>**

Organization **Women Open Tech Lab**
 Email **wandt.lab@gmail.com**
 Website **<http://womanopentechlab.kr/>**

Organization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Email **jangyechong@fdca.or.kr**
 Website **<http://www.fdca.or.kr/>**

Describe the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 process established for the preparation of this report, including consultations with relevant ministries, public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prepare for the Quadrennial Periodic Report (QPR) of Korea,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rts Council Korea,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have participated. It includes substantial amount of interviews and written consultations.

The draft of the QPR of Korea on the 2005 Convention was prepared by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CTI), a national 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It conducted an extensive research to identify best policies, measures, initiatives, and data related to cultural statistic. Relevant statistical data included in the QPR of Korea were prepared based on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provided by the Statistics Korea (KOSTAT), and the collected measures and policy cases were evaluated by the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From April to June 2022, ten workshops were held to promote participation of CSOs in the preparation of the QPR of Korea, where they shared the purpose of the 2005 Convention and discussed the CSOs' measures and initiatives.

Based on this draft, the QPR of Korea was comple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ECUTIVE SUMMARY

This one-page summary should present the main objectives and priorities of the Party's policies to implement the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he summary is not an introduction to the report nor an annotated table of contents. The summary is presented to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nd the Conference of Parties.

The Republic of Korea regards UNESCO's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s a major value in cultural policy, and specifies it in laws, institutions and cultural policy plans. Moreover,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2014. Based on the Act, the '1st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2021–2024)' was established in 2021. In the same year, Arts Council Korea was designated as an exclusive agency to effectively deliver cultural diversity policies throughout the society. With such agency, the Republic of Korea executes discourses and policies that focus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on a broader scale.

The main goal for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cultural policy and the 2005 Convention is to create a cultural ecosystem of diversity and inclusion. Particularly with the change in population composition and the growing awareness of social conflicts and discrimination in recent years, the Republic of Korea actively promotes policies to raise awareness of civil society for cultural coexistence.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special provisions of artists' rights, such as stipulating penalties for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tak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more seriously.

The Republic of Korea has important priorities for the following policies, which clearly align with the goals of the 2005 Convention.

1. (Governance system/Human rights and basic freedoms) For various cultures to coexist, reinforce policies on managing cultural diversity data, educating cultural diversity values, and ensuring accessibility (such as barrier-free and media literacy) of immigrants and minorities for cultural participation. Particularly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in 2020,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ctively supports artists with disabilities in numerous areas such as their creative activities, international exchanges, and standard performance theater.

2.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In 2021,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was enacted to legally protect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protect and promote professional rights, and create gender equality in art environment. Based on the 'Artist Welfare Act' in 2011, policies such as living stabilization fund loans and employment insurance for artists were promoted from 2019.
3. (Balance 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Non-contact Cultural Strategy for a Warm and Connected Society' policy was promoted in 2020. This policy aims to reduce the gap in culture and art participation, and to alleviate social loneliness. Moreover, protection and supports for endangered or marginalized dialects, independent arts, and traditional culture were expanded.
4.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tinues to support international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and fosters development of projects for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 in developing countries. It also voluntarily contributes to trust funds, and expands cultural exchanges with third-world countries.

Goal 1. SUPPORT SUSTAINABLE SYSTEMS OF GOVERNANCE FOR CULTUR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TRODUCTION

Parties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regulatory frameworks and sector specific policies and measures they have adopted to support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nd to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within their territory (at the national, regional or local levels) and at different stages of the cultural value chain (creation; production; distribution/dissemination; participation/enjoyment). They are also required to report on-go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in the arts and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well as measures and programmes supporting job creation and entrepreneurship. Parties shall also provide information on the mechanisms they have established to promote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as well as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regional government authorities.

KEY QUESTIONS

1. A Ministry (or agency with ministerial status) is responsible for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YES NO

2. Regional, provincial or local governments or administrations have decentralised responsibilities for policies and measures promoting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YES NO

3. Regulatory frameworks and sector specific laws, policies and/or strategies supporting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have been revised or adopted during the last 4 years:

YES NO

3-1. If YES, has at least one of them been designed through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involving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responsible for policy areas, such as communication, education, ICT, trade, foreign affairs, labor, finance):

YES NO

4. Specific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in the arts and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re established, including:

Digital literacy programmes for creation and experimentati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in: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Tertiary and university education degrees in: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5. Specific measures and programmes have been implemented over the last 4 years to:

Support job creation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 Encourage the formalization and growth of micro/small and medium-sized cultural enterprises

6. Statistical offices or research bodies have produced data during the last 4 years:

- related to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 evaluating cultural policies

STATISTICS

1. Share of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USD)

Contents industry value added ratio to GDP: 2.61% (50,545.2 Billion Won, about 38.5 Billion Dollars) /As of 2020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콘텐츠산업조사)

1-1. 가능하면 최대한 분야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부가가치액	분야	부가가치액
Publication	8,759 Billion Won	Broadcasting	7,699.9 Billion Won
Cartoon	562.7 Billion Won	Advertisement	5,874.6 Billion Won
Music	1,982.9 Billion Won	Character Industry	4,863.8 Billion Won
Film	1,015.5 Billion Won	Knowledge Information	8,686.3 Billion Won
Game	8,320.9 Billion Won	Content Solution	2,546.5 Billion Won
Animation	232.9 Billion Won	Total	505,451 Billion Won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콘텐츠산업조사 /2020년 기준)

2. Share of employment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Employment rate in arts, sports and leisure-related services: 1.7% (467,000 people) /As of 2021.1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고용률)

Employment population in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dustries: 2,078,000 /As of 20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2-1. Please provide whenever possible disaggregated data by sector, age, sex and type of employment.

—

3. Total public budget for culture (in USD)

Cultural and tourism sector budget among 16 government finance allocated sectors: 8,481.6 Billion Won, about 6.4 Billion Dollars /As of 2021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1. Please provide whenever possible the share allocated by cultural sectors/domains (in %)

Budget ratio for culture and tourism sector (Out of 16 government finance allocated sectors): 1.5% (8,481.6 Billion Won, about 6.4 Billion Dollars) /As of 2021

- Culture and arts 3,722.6 Billion Won,
- Sports 1,759.4 Billion Won,
- Tourism 1,499.8 Billion Won,

- Cultural heritage 114.1 Billion Won,
 - Culture and tourism in general 358.2 Billion Won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1. Name of the policy/measure

Establishment of the 1st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to establish a basic policy plan to strategically implement the 2005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enacted in 2014), and announce it after the approval and deliberation by the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under Article 7 of the Act. Although the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was stipulated to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ime Minister at the time of enactment in 2014,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was amended to organize the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20. With the formation of the first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February 2021, it became possible to establish a basic plan.

According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stablished the *1st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2021–2024)* in cooperation with 10 related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t was officially announced in May 2021 after deliberation by the 1st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As a result, Korea established a cross-ministerial cooperation policy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5 Convention for the first time.

The 1st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presented ‘a cultural nation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through cultural diversity’ as a policy vision, reflecting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the post COVID–19. There are four core values: correcting discrimination and raising awareness (respecting identity), cultural participation and accessibility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accessibility/inclusion),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creativity/antitrust), and mutual cultural exchange (openness/reciprocity). The plan presents three promotion strategies, seven core tasks, 18 promotion tasks, and 51 detailed tasks. This basic plan is particularly meaningful as it contains a wide range of policies to achieve the major objectives of the 2005 Convention. The policies have diverse measures including improving access to cultural facilities and media for the underprivileged residents with migrant background or with disabilities, realizing linguistic diversity by preserving dialects and expanding support for special languages (braille and sign language), revitalizing the traditional cultural industry ecosystem and expand cultural urban regeneration,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 of contents with cultural professionals and support for the cultural se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expanding cultural content diversity through support for minor genres such as independent arts and independent publishing, and educating and raising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In order to establish the 1st basic plan for cultural diversity, a private–sector advisory committee on major policy agendas was formed, and the direc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tasks was set,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advisors, to faithfully incorporate the opinions of private experts on the plan.

In addition, in order to apply public–private governance, the basic plan was confirmed after deliberation by the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which consisted of 10 vice–ministerial level officials from 10 related ministries and 10 private experts in each field such as culture, tradition, art, and media.

For the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lan, related ministries and all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17) establish 'Cultural Diversity Protection and Promotion Implementation Plan' annual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striving to promote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by oversee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of related institutions.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818,199 Million Won, **620 Million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7개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시행계획 예산)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the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243 local governments (17 metropolitan and 226 municipal governments)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To promote the basic plan, releva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examine the main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plan, which is established every year, and submit the annual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after deliberation by the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The first analysis of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plan in 2021 showed that 11 centra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promoted a total of 732 projects (57 central ministries, 675 local governments). The 'Protecting the Cultural Rights of Diverse Cultural Subjects Including the Underprivileged' project, the core task of the basic plan, had the highest proportion with 249 projects (13 central ministries, 236 local government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Cultural Diversity Policy Annual Report)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1. Name of the policy/measure

Cultural Impact Assessment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a policy assessmen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which prescribes the rights of the citizen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concerning culture. It is a system that evaluates the impact of public policies plann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citizens from a cultural perspective, and is promoted with the aim of 'spreading the social value of culture.'

Cultural impact assessment began in earnest in 2014, the year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rounding clause in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After a pilot assessment, the main annual assessment has been carried out since 2016. The main purpose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are social acceptabil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ies that considers cultural influences, sustainable growth, spread of cultural values through 'policy culturalization', and improvement of people's cultural competence and quality of life. In order to evaluate the impact of public policy on the people from a cultural perspective, the evaluation area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basic cultural rights,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development. Each area consists of two evaluation indicators. One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cultural development is the "impact of public policy on cultural diversity." This evaluates the influence relationship on whether the planned policy project affects the cultural uniformity of the region or the cultural activities of local minority groups, and whether the policy project leaves room for marginalized groups in cultural consumption.

Based on its purpose, the cultural impact evaluation is divided into self-assessment and professional assessment. The self-assessment is divided into diagnostic evaluation and abbreviated evaluation, and the professional assessment is divided into basic evaluation, in-depth evaluation, and strategic evaluation. The self-evaluation is done by a central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using a checklist to self-examine the impact of the planned public policy on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culture. The professional evaluation is utilized to evaluate the cultural impact of public policy conducted by a third-party with expertise.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In 2014 and 2015, nine public policy plans were assessed through pilot projects. The system began in earnest from 2016 to 2020, carrying out 146 evaluations, with a total of 155 evaluations of public policy. In each type of evaluation target, 74 case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45 cases for cultural city and specialized projects, 13 cases for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and utilization projects, and 23 cases for other projects were carried out.

So far, six government ministries and 142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have participated. In order to conduct their own assessmen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Gyeonggi province, Gyeongsangnam province, ChangWon-City, and Busan Metropolitan City have enacted related ordinances and conducted their own cultural impact assessments.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conducted a self-evaluation of a total of four cases from 2018 to 2019, Gyeonggi Province a total of seven cases from 2018 to 2020, and ChangWon City conducted one case in 2020.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1,403 Million Won, 1.07 Million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2 local governments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With the start of the main assessment in 2016,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achieved positive progress in pre-diagnosing, considering, and applying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cultural influences, including cultural diversity, to major policies and projects of six ministries and 142 local governments. However, as the scale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types of public policies subject for evaluation are diversified, it is time to develop specialized indicators, refine and systematize evaluation methods, and improve the evaluation guidelines for each typ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20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 보고서)

MEDIA DIVERSITY

INTRODUCTION

Parties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efforts made to protect free, independent and pluralistic media, uphold regulations on media concentration, and support production, distribution and access to diverse contents for all groups in society. They are also required to report on the policies and measures adopted to support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 in all types of media (public, private and community-based).

KEY QUESTIONS

1. Public service media has a legal or statutory remit to promote a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YES NO

2. Policies and measures promote content diversity in programming by supporting:

Regional and/or local broadcasters

Linguistic diversity in media programming

Community programming for marginalised groups (e.g. indigenous peoples, migrants and refugees, etc.)

Socio-cultural programming (e.g. children, youth, people with disabilities, etc.)

3. Domestic content regulations for audio-visual media exist (e.g. quotas for production or distribution requirements for national films, TV series or music on radio):

YES NO

4. Regulatory authority(ies) monitoring media exist:

YES NO

4-1. If YES, please provide the name and year of establishment of the regulatory authority(ie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Year of Establishment : 2008)

4-2. If YES, these regulatory authority(ies) monitor:

Public media Community media Private sector media Online media

4-3. If YES, these regulatory authority(ies) are responsible for:

Issuing licenses to broadcasters, content providers, platforms

Receiving and addressing public complaints such as online harassment, fake news, hate speech, etc.

Monitoring cultural (including linguistic) obligations

Monitoring gender equality in the media

Monitoring editorial independence of the media

Monitoring diversity in media ownership (diversity of ownership structures, transparency of ownership rules, limits on ownership concentration, etc.)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1. Name of the policy/measure

Media Diversity Promotion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Promotion Agency(KOBACO)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Based on the Broadcasting Ac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nages media diversity by maintaining fairness, publicity, diversity, balance, and realism of channels and programs. Since 2009, the Media Diversity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otect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in broadcasting (Article 35-4 of the Broadcasting Act), and since 2018, the committee has been providing broadcast statistics such as broadcasting media usage behavior survey and broadcasting market competition evaluation via the broadcasting statistics portal, Mediastat. The committee has been also providing current status of viewing share by broadcaster to enhance media diversity, but from 2021, it has been providing detailed TV viewing records and N-Screen (Smartphone, PC, VOD) viewing records for each broadcast program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industry and academia.

The viewership share survey and calculation, which is the main project of media diversity promotion, is calculated by adding the viewer share of related parties to the viewer share of broadcasters every year. For daily newspapers, the subscription rate is converted into viewer share and added to the corresponding broadcaster. The calculated results are announced every year through the decision of the 'Media Diversity Committee'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current viewership share has been calculated and announced up until 2020.

After the development of index to use as a base factual data for media diversity in 2014 and 2015,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Promotion Agency, have been conducting the annual 'Media Diversity Survey' since 2016. Since the index is modified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the Media Diversity Committee,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it has propensity to change slightly from year to year. In the 「Media Diversity Survey」, media diversity is judged by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and the representation of media program content compared to reality.

The 2016~2019 survey investigated the platforms, channels, and programs on the diversity of channel composition, diversity of the owners, diversity of supply sectors, diversity of organization and content, and the audience perception. Diversity in terms of supply, such as the ownership entity and organiza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and diversity in regards to content was examined by comparing the degree of representation to reality on the distribution status of gender, age, occupation, and disability of the characters in dramas, news, entertainment shows, and investigative report programs. In 2020, the survey on the usage aspects(viewership) of media operators was intensified.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Since 2011, the viewership share of broadcasters has been surveyed and calculated every year. After surveying and calculating the viewing share of 425 channels of 294 broadcasting companies in 2020, it showed that they all satisfied the viewership share caps of less than 30%.

According to the 2021 Media Diversity Survey, dramas had more male characters (57.2%) than female characters (42.8%), with 77.8% aged between 15-29 and 30-49, and 99.6% without disabilities. As for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news, there were more male (71.9%) cast members than that of females (28.1%), with 87.0% aged between 30-49 and 50-69, and 99.9% without disabilities. As a response to a survey of viewers' perception on fewer number of female cast members compared to the actual proportion of women in reality, 41.8% of TV viewers and 35.8% of TV news viewers perceived that 'There is not'(not appearing less).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3,491 Million Won, **265 Million Dollars** /As of 2022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Promotion Agency, 실명제 사업내역서)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1. Name of the policy/measure

The Community Radio Project Based on Local Community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The Community Radio Project is a non-profit radio broadcasting targeting small areas such a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with a small power of less than 10W in the FM frequency band. As of 2021, 20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operators have been newly licensed and are operating in 27 regions nationwide.

During the tenure of the 19th President (President Moon Jae-In), one of the 100 national projects presented was 'healthy development of media', and the expansion of community radio was included as a detailed task. Particularly with COVID-19,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was reinforced. While it is difficult to deliver local community news in a timely manner on national public radio,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is suitable for conveying local issues, events, and news as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mmunity. There are cases when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transmitted emergency safety information effectively during COVID-19. Gwanak FM has sent out breaking news of the COVID-19 outbreak in Gwanak-gu. Daegu Seongseo FM effectively provided the current status of face mask inventory at local pharmacies in real time.

Sinc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is a non-profit that is operated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of the local community, it is operated by local citizens to deal with diverse issues in the community. It also serves as a place for public discussion for residents' autonomy. For reference, 'broadcasting programs in regards to reporting' cannot be scheduled, and only broadcasting programs such as local information, culture, and music may be transmitted based on Article 50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It is also effective in enhancing digital accessibility for the underprivileged becaus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can easily provide community information to underprivileged groups such as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immigrants who are not familiar with new media such as social media.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rate of residents with various backgrounds is high because local residents can share stories about themselves or their neighborhood. Representatively, there is the ‘Korean–Corporation (Koryoin Village)’ in Gwangsan–gu, Gwangju City, which was newly approved in 2021. It organized a Russian language program because Koryoin compatriots and descendants who moved to Korea are participants of the program and are the main audience. ‘Ansan Community’, a division based in Ansan–City, Gyeonggi province, has a high proportion of residents with migrant backgrounds. They are also planning a program targeting migrants from various cultures.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Ever since it changed into a regular business in 2009,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has been operating in seven regions nationwide up until 2020. In 2021, a total of 27 community radio broadcasts will be operated nationwide with additional permits from operators in 20 regions. Specifically, there are ten metropolitan areas such as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wo in Gangwon province, four in Chungcheong province, seven in Gyeongsang province, and four in Honam province.

In addition, for the operation of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th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Support Group’ was form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local business operators. The support group consists of government ministrie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miss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ublic institutions (Viewer Media Foundation), and private organizations (six institutions including Korea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Association,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Association).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At the national level,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de an announcement to expand the policy of revitalizing community radio to strengthen media publicity and improve disaster broadcasting response systems. At the regional level, in order to revitalize the operation of community radio, programs that meet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are programmed and transmitted, and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programs are posted on YouTube to promote close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200 Million Won, **152,000 Dollars** /As of 2021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방통기금 지출 설명자료))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Support Group,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operators in 27 regions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DIGITAL ENVIRONMENT

INTRODUCTION

Parties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policies and measures that support digital creativity and competencies, local cultural industries and markets, for instance by promoting fair remuneration for creators or by modernizing cultural industri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y shall also report on initiatives to improve access to and discoverability of diverse cultural expressions in the digital environment.

KEY QUESTIONS

1. Policies, measures or mechanisms are in place to support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and institutions (e.g. funding for digitization of analogue industries):

YES NO

2. Policies or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to ensure vibrant domestic digital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markets with a diversity of e-players of all sizes (e.g. fair remuneration rules; control market concentration; prevention of monopolies of digital content providers/distributors or their algorithms that potentially restrict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etc.):

YES NO

3. Policies and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to enhance access to and discoverability of domestically produced cultural content in the digital environment (e.g. action plans or policies for digital content pluralism, public support to cultural or artistic portals in specific languages, national or regional online distribution platforms for domestic content, etc.):

YES NO

4. Measures and initiativ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omote digital creativity and competencies of artists and other cultural professionals working with new technologies (e.g. spaces for experimentation, incubators, etc.):

YES NO

5. Statistics or studies with recent data on access to digital media, including on the type of cultural content available through digital media, are available:

YES NO

STATISTICS

1.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with subscriptions to online cultural content providers (e.g. Netflix, Spotify, Amazon, etc.)

OTT usage rate : 81.7% /As of 202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1. Name of the policy/measure

Independent and Artistic Film Distribution Platform, Indieground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Korean Film Council, The Association of Korean Independent Film & Video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Indieground : <https://indieground.kr/indie/>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Korean independent and artistic films are well received by audiences and critics for their cinematic quality. Nevertheless, there is a severe imbalance in promotion, marketing and distribution, with more than 25% of the annual production of independent and art films (about 1,000 films) excluded from screening opportunities. Especially with the COVID-19 pandemic, the movie consumption behavior has quickly shifted from movie theaters to online-based such as VOD and OTT. This raised the need to establish an online platform to improve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to support production costs for independent and art films, as well as to operate a dedicated theater.

Accordingly, in 2019,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a plan to build a public online platform through the 「Korean Film Industry Development Plan」 to respond to the issues of audience access to independent and art films (expanding audience's choice) and decreasing opportunities for creators to perform. In addition, Korean Film Council newly organized a budget for 'Comprehensive Support for Distribution of Independent and Art Films' in 2020 and opened 'Indieground', a public distribution platform for independent and art films.

Indieground, which is entrusted to The Association of Korean Independent Film & Video, improves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of Korean independent and art films, and operates with the aim of spreading social value of independent and art films and establishing a network hub. Indieground creates an information database (DB) of independent and art films, and operates a Library which holds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free community screenings 240 times a year. The films screened by community screening receive alternative screening opportunity to plan, promote, and screen in various local screening venues, including general theaters. Among the films stored in the Library, the ones with educational, cultural, and social values will be selected as 'independent films recommended for youth' to increase accessibility of independent and art films to young people. Indieground also promotes various support to revitalize independent and art films, focusing on public online platforms such as 'Curating' service that introduces customized films and 'Independent Film Matching Workshop' that serves as a business matching program to establish a network between emerging creators and distributors.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Indieground archives and curates various works to spread the social value of independent and art films. First, the independent and art film DB has information data on about 4,112 independent and art films produced in Korea between 1990 and 2022. It provides data of directors, actors, staff, production companies, distributors, release dates, genres, running times, synopsis, media channel information (Naver, Watcha, TVing, etc.). The Independent Film Library examines the films submitted through public contest, selects them as 'Independent Film Library Selection', then sequentially screens them on the online platform. For the distribution on other online platforms, Indieground supports the development of affiliated promotions, community screenings, and promotion on development of films. A total of 70 films in 2020 and 87 films in 2021 were selected.

A community screening is a distribution program that provides selected films from Independent Film Library in theaters and other venues (neighborhood cafes, bookstores, village halls, galleries, etc.). It curates the films from 'Independent Film Library Selection' and holds an online screening. As of 2022, five curated films will be screened under the theme of 'Fun Against All Barriers in the World', and six online screenings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of 'Confession Diaries'.

In order to support youth educational activities using independent films as a medium, 'Independent Films Recommended for Youth' are selected out of 'Independent Film Library Selection' based on educational, cultural, and social values. Then the selected films are categorized as family, inter-Korean relations, labor, villages, media, literature, gender equality, human rights, housing, youth, and the environment to support the screening and to provide educational materials. Additionally, a matching program between emerging creators and independent art film distributors, the 'Independent Film Matching Workshop: First Link' contest project, has been operating since 2021. It has supported 12 films in 2021, and 15 films in 2022.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2 Billion Won, 1.52 Million Dollars /As of 2021

(Korean Film Council, 2021년 Korean Film Council 사업계획서)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 Association of Korean Independent Film & Video, Independent Artistic Film Production Company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1. Name of the policy/measure

Digital Transformation of Performing Arts and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Platform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Seoul Arts Center, National Theater of Korea,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Seoul Arts Center SAC ON SCREEN : <https://www.sac.or.kr/site/main/sacOnScreen/sacOnScreen#non>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Online Theatre :
<https://on.ntck.or.kr/Main/Index>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As the COVID-19 pandemic has added significant restrictions and difficulties to art activities such as face-to-face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tried to expand support for new ways of non-face-to-face art by breaking away from fixed frames and inertia through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distribution platform of the performing art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the 「Measures to support non-face-to-face arts in daily life of COVID-19」(Sep 2020) to respond to the crisis i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vesting 3.15 Billion Won in 2021 for a video recording and documentation project of the outstanding performances of Seoul Arts Center, National Theater of Korea, and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Even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the Seoul Arts Center has launched SAC on Scre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oS) in 2013, which is a video recording and documentation project for performances and exhibition content of the Seoul Arts Center, under the slogan of 'Better than a VIP seat'. Through the Korea Culture and Arts Center Association and the Overseas Culture Promotion Agency, the project distributes videos of opera, ballet, classical music, music, theater, modern dance, musicals, and exhibitions free of charge domestically and abroad in order to expand cultural opportunities for residents, and to bridge the cultural gap between Seoul and other provinces. In Korea, the videos were distributed to art centers, cinemas, libraries, and schools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nationwide. In overseas, the films are screened at Korean cultural centers in about 10 countries including Brazil, Spain, Argentina, Egypt, and Zimbabwe.

The Seoul Arts Center has maintained free distribution as part of cultural welfare for the underprivileged. However after COVID-19, the video recording and documentation of performances have attracted attention as a new profit model. Around 2019, the Seoul Arts Center has been attempting paid screenings. Accordingly, the musical <The Man Who Laughs> was screened in New York, the United States, and Tokyo, Japan. In Korea, it was screened 287 times in 18 Megabox theaters nationwide. Also, by selling performance content such as musical <Empress Myeongseong> and <Baek Gun-woo Piano Recital> through LGU+, video content was distributed through new platforms such as IPTV VOD service.

In 2021, the Seoul Arts Center produced and screened a variety of convergence content for people to enjoy performing arts more closely. <Sumi Jo Hologram Mini Concert>, which embodies soprano Sumi Jo's vocal performance through AR and 3D sound technology, had 158,287 audience at the Seoul Arts Center and Gwangju Design Biennale. <Singing Songs Together>, a concert hall stage of the Seoul Arts Center with VR, and <Meta Gallery>, a combined exhibition of performing arts and media art, were also presented to the audience. Furthermore, the Seoul Arts Center contributed to the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performing arts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King Sejong Institute and the existing performance content distributors to 234 locations in 82 countries.

In response to the closure of national and public performance hall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in 2020,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implemented the 'Nearest National Theater' project. Through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YouTube channel and NaverTV, the entire live performance of the representation repertoire was streamed online. Further, a 4K UHD high-quality live performance video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was produced and distributed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OTT(Content Wave) and movie theaters(Lotte Cultureworks) in 2021. In addition, the rights to enjoy cultu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expanded by producing and distributing barrier-free performance videos with sign languages, subtitles, and audio commentary.

Meanwhile,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recognized the necessity of video production of performance as a self-rescue measure for the reduced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number of theater visitor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for the expansion of profits and eased accessibility of performing arts. Accordingly, the newly appointed art director in 2020 announced a new project to open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s OTT platform 'Online Theater', which officially became available in November 2021. In particular, some of the contents from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s Online Theater provide barrier-free options such as sign languages, descriptive video service, and subtitles for everyone to enjoy.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In 2018, the Seoul Arts Center SoS distributed in 148 locations, screened 889 times, and had 147,349 audience. In 2019, it screened 1,359 times and had by 97,591 audience. In 2020, the number of offline visitors decreased by 90%, while the number of online screenings and real-time streaming users increased significantly, recording 737,621 views through a total of 21 online streams. In 2021, offline screenings resumed, with a total of 625 screenings and 33,978 audiences. The online screening recorded a total of 10,187 views domestically and abroad.

In overseas, local-language subtitles were produced and screened in 10 countries in 2018, and 11 countries in 2019 including Brazil, Spain, Argentina, Egypt, and Zimbabwe. In 2020, the number of offline screenings was reduced to three countri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but 16 artworks were screened in six countries using online platforms. As COVID-19 cases turned to a decline in 2021, the overseas offline screenings were expanded to eight countries with 52 screenings, and online screenings in ten countries with 29 screening.

The private companies are also expanding distribution platforms such as cinemas and IPTV VOD services, and enhancing audience access to performance content. In 2019, a total of 278 screening and 13,083 people watched the musical <The Man Who Laughs> through paid screenings at Megabox nationwide, and a total of 13,003 views in a month through LGU+ IPTV VOD service.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screened the entire six performances in 2020, including <Farewell My Concubine> and <Scent of Ink>, and distributed online performance video contents such as <Samsamo Rock> and <Yeowoo Rak Festival at the Art Museum>. As a result, non-face-to-face and online performance contents were had a total of 316,000 views, and the total number of official YouTube subscribers increased by about 4.8 times in 2020. In 2021,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produced ten high-quality live performance videos, five barrier-free performance videos, and distributed them to Wavve and Lotte Cinema. In addition, <Jeum Music Festival> and <Yeowoo Rak Festival> were filmed on SBS Cultural Relay. Consequently, Wavve recorded a total of 15,469 views and Lotte Cinema had a total of 1,148 total audiences.

In addition,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s Online Theater produced a total of 14 works since its opening in November 2021. It accumulated 1,768 audiences in 2021 and 2,283 audiences in 2022 (as of Aug 26). From the second half of 2022, not only works produced b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ut also the live performances of excellent performances by other domestic theater groups will be planned and invited to the 'Online Theater' platform to promote video recording and documentation business of the theater industry.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 video content production of performances (live filming and online streaming) in 2021, the Arco Online Theater was able to show 40 outstanding performances in the private sector to approximately 180,000 audiences. In order to continue the support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video content of performances, the government completed the 'Performance Media Studio, Shilgam' at the Seoul Arts Center in 2021, which is scheduled to open in 2022.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3.15 Billion Won, 2.4 Million Dollars /As of 2020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예술 지원방안」(2020.9) 발표자료)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PARTNERING WITH CIVIL SOCIETY

INTRODUCTION

Parties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measures target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¹ (CSO) involved in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providing, inter alia: public funding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pportunities for networking with public authorities and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raining opportunities to acquire skills; spaces for dialogue with government authorities to design and monitor cultural policies.

KEY QUESTIONS

1.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or trade unions representing artists and/or cultural professionals in the following sectors exist in your country (i.e. federation of musicians, publishers unions, etc.):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ublishing Visual arts Performing arts

2. Public funding schemes supporting CSOs involvement in promoting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exist:

- YES NO

3. Training and mentoring opportunities were organized or supported by public authorities during the last 4 years to build skills on communication, advocacy and/or fundraising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YES NO

4. Dialogue mechanisms between public authorities and CSOs for cultural policy making and/or monitoring have been implemented during the last 4 years (meetings, working groups, etc.)

- YES NO

4-1. If YES, please provide up to 2 examples

New Culture Policy Preparatory Group(January.2017.1~May.2018.5), participated in establishing 「Culture Vision 2030–Culture with People」

New Art Policy Establishment TF(January.2017.10~May.2018.4), participated in establishing 「New Art Policy」

5. Policies and measures promoting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have been elaborated in consultation with CSOs during the last 4 years:

- YES NO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1. Name of the policy/measure

Establishment of Private–Led Mid–To–Long–Term Cultural Policy Plan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The Culture and Arts Policy in 2018 established *Culture Vision 2030* and the *New Art Policy* based on the governanc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May 2018. These mid–to–long–term plans are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fact that they have moved away from the traditional methods that have been led by the government and established under the advice of private advisors. The plans have been organized and operated by private experts centered on TF to manage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plan, the policy vision, the setting of strategic tasks, the detailed tasks, and the development of projects.

For *Culture Vision 2030*,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body of ‘New Culture Policy Preparatory Group’ and ‘New Art Policy Establishment TF’ were organized for the *New Art Policy*. The opinions of the people were actively reflected through regional discussions, forums, conferences, and online public proposals.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 YES NO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Composed of private experts, the New Culture Policy Preparatory Group went through 252 discussions on public opinions, 13 regional cultural policy forums, and six on-site discussions by division, website (Facebook), field discussions, and meetings. Based on these, they set autonomy, diversity, and creativity as three major values of 「Culture Vision 2030-Culture with People」, deriving nine agendas, 47 representative tasks, and 186 promotion tasks.

To establish the 「New Art Policy」, a New Art Policy Establishment TF was formed with a total of 53 people, including 35 from the arts and academia, researchers from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nd people in charge in institutions supporting arts. Then they were divided into 10 divisions by sector and genre. In addition, in order to gather the opinions of artists in the field, more than 100 discussions and conferences were held for each sector and genre, and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were actively collected through 40 regional discussions. As a result, a new art policy was established and announced, consisting of eight strategic tasks, 25 implementation tasks, and 83 representative projects.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New Culture Policy Preparatory Group, New Art Policy Establishment TF,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예'인 경우, 주요 결론/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1. Name of the policy/measure

Regional Cultural Foundation–Led Cultural Diversity Expansion Project (Formerly Rainbow Bridge Project)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Cultural Diversity Archive: <https://cda.or.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been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expansion project (formerly the Rainbow Bridge Project) since 2012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in Korean society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cultural diversity l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Cultural Diversity Expansion Project is to support the expansion of cultural expression opportunities, mutual communication, and exchanges of various cultural subjects according to nationality, generation, and gender in the local community. In particular, it aims to spread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by enhancing the cultural rights of minorities and the people's receptiveness to other cultures.

The project promotion plan for the aforementioned project i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the exclusive agency of the project, oversees the project operation and selects a lead organization from regional cultural public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The selected organizations are given project expenses based on the size of the project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and spread of values, pro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materials for cultural diversity, protection of cultural rights for minorities, mutual exchange between minorities or between minority and majority). It provides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necessary for planning and carrying out projects, and supports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between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the lead organizations. Regional organizations promote projects by utilizing cultural resources such as cultural infrastructure, cultural and artistic groups,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in the region. There are around 25 regions participating in every year.

The organizers plan regional-specific projects through a council and working groups composed of various cultural subjects (citizens), and operate year-round projects based on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m. They are also taking the lead in spreading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region by planning and operating a week-long 'Cultural Diversity Week' from the World Cultural Diversity Day (May 21), designated by the United Nations.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designates the week from May 21 to May 27 as Cultural Diversity Week. Accordingly, during this period, the regional organizers of the cultural diversity expansion project, as well as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will promote various cultural events such as forums, discussions, film festivals, and exhibitions to spread cultural diversity values.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 cultural diversity expansion project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a culture of coexistence by promoting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cultures, and enhancing the understanding and acceptability of other cultures through a civic consciousness and 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s in nationality, generation, gender, and physical conditions. Representative programs are as follows. First, orchestras and choirs with various local residents project and cultural diversity festivals project provide opportunities to form consensus among resident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Second, there are projects for migrant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foreign nationals like migrant radio channels and publication of newsletter, and a theater festival organized and performed by families with disabilities. These provide opportunities for expression to the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culturally underprivileged in the region. Third, there are projects that support policy activities such as holding a policy discussion forum for local residents to form a basis for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policies in the region, organizing a policy council in which local government officials, cultural activists, and citizens participate, and enacting local cultural diversity ordinance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project increased from 249,918 in 2018 to 291,036 in 2021. Although it dropped to 83,324 people in 2020, right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e detailed program operation method of the project was switched to online, which served as an opportunity to expand access to more participants.

More than 200 programs are carried out annually, and around 200,000 local citizens participate in the programs. As of 2021, the participants'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increased by about 18%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value of cultural diversity increased by 35.4%, and their will to practice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increased by 17.7%.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2,200 Million Won, 1.7 Million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년 문화예술정책백서)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Although the cultural diversity expansion project has shown achievements in expanding the cultural diversity policy foundation and raising cultural diversity awareness in the local community, there are still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protection and promotion policies between local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 policy makers.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method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Goal 2. ACHIEVE A BALANCED FLOW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INCREASE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INTRODUCTION

Parties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policies and measures, including preferential treatment as defined in Article 16 of the Convention², aimed at promoting the inward and outward mobility of artists and other cultural professionals around the world. They shall also report on operational programmes implemented to support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particularly those moving to and from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programmes for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KEY QUESTIONS

1. Please indicate if the following policies and measures exist in your country:
 - Policies and measures supporting the outward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e.g. export offices,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ultural markets for cultural professionals, etc.)
 - Specific visa policies or other cross border measures supporting the inward mobility of foreign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in your country (e.g. simplified visa procedures, reduced fees for visas, visas for longer durations)
 - Work permit regulations supporting the inward mobility of foreign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in your country (e.g.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s, special work permits and health insurance, subsidies to cover living expenses, etc.)
2. Please indicate if the following operational programmes have been developed or supported/funded by public authorities during the last 4 years:
 - Information resources or training services providing practical guidance to facilitate the mobility of cultural professionals (e.g. Internet platforms)
 - Infrastructure (e.g. arts residencies, cultural institutes, etc.) having a mandate to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hosting a large number of foreign artists, notably from developing countries
 - Major cultural events (e.g. cultural seasons, festivals, cultural industries markets, etc.) having a mandate to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hosting a large number of foreign artists, notably from developing countries
3. Please indicate if the following mobility funds (e.g. scholarships, travel grants, etc.) have been managed or supported by public authorities during the last 4 years:
 - Public funds supporting the outward mobility of national or resident artists and other cultural professionals
 - Public funds supporting the inward mobility of foreign artists and other cultural professionals
 - Public funds specifically supporting the mobility of artists and other cultural professionals

from or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North–South–South and South–South cooperation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1. Name of the policy/measur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K–Culture Road’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K–Culture Road : <http://www.kcultureroad.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Although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betwee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was extremely important, it was difficult to obtain their information about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Accordingly,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an institution in charge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stablished the ‘K–Culture Road (Munhwa–ro)’, which is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in 2019. The ‘K–Culture Road (Munhwa–ro)’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by providing integrated information to cultural professionals, related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K–Culture Road’ provides integrat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related projects and various cultural trends promoted domestically and abroad. As such, there are 39 institution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at link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jects with public data on the cultural portal. They also provide global cultural trend information through overseas correspondents in 42 countries. Variou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information is classified by exchange status, exchange support, exchange knowledge, exchange institutions, exchange policies, and East Asian cultural cities. For convenience, the status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jects is categorized by region, type, institution, and year.

In addition, there are 478 public sector exchange groups registered in the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system including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performance facilities, museums, and art galleries. There are also 1,577 domestic and overseas private sector exchange groups including associations, foundations, performance halls, museum, and art galleries. They contain the main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status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conducted for domestic cultural exchang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providing various status information such as major exchange countries, exchange purpose, exchange type, exchange genre, exchange method, and difficulties. The current status of the East Asian Cultural City project, a jointly promoted project by Korea, China, and Japan, is also available.

For reference, in Korea,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ies are not only implemen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but also by various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cluding Arts Council Korea,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rea Film Council, and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by genre and field.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vided by 'K-Culture Road' can b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exchange status, exchange support, exchange knowledge, exchange institution, and exchange policy.

(Exchange Status) Through the 'K-Culture Road',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vides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vents and festivals from 2011, and the information on 142 festivals in 2018, 424 in 2019, 15 in 2020, and 170 festivals in 2021.

(Exchange Support) Information on events, exhibitions, announcements, education and jobs is collected and provided to support exchanges for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domestic private exchange organizations, related workers,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It provides information on 375 events and 103 exhibitions from 2018 to 2021, and provides information on education and forums collected from events held 5 times in 2018, 37 times in 2019, 10 times in 2020, and 98 times in 2021.

(Exchange knowledge) The 'K-Culture Road' provides publications, cultural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issues, and Hallyu live reports for subscription or download.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UNESCO News> and <Weekly Global> (each published up to 793, and 261 issues, as of 2022). In addition, it provides various research reports on culture, content, tourism, statistics and information from 2000. A total of 450 cases have been registered (as of 2022).

(Exchange institution) The 'K-Culture Road' provides the location and informa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institutions, and the information on exchange institutions. The information on 109 home institutions, 46 overseas institutions, 478 public organizations and 1,577 private organizations are registered.

(Exchange Policy) The 'K-Culture Road' provides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y vision, goals, and implementation tasks.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the major results of 'Survey on the Status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in six areas.

As of December 2021, the 'K-Culture Road' has linked and provided information from 39 cultural sector-related institutions, and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by accumulating 22,991 number of information(375 events, 103 exhibitions, 1,233 announcements, 170 education, 869 jobs, 20,241 exchanged knowledge).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150 Million Won, 114,000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1. Name of the policy/measure

Arts Council Korea,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Arts Council Korea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ARKO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
<https://www.arko.or.kr/eng/international/support?lang=ko>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The Arts Council Korea supports various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creative capabilities of domestic artists through the Culture & Arts Promotion Fund. Representative projects include support for artists' participation in overseas residency programs, support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Korean art, support for global expansion of young artists, cooperation with overseas cultural institutions, and the International Arts Joint Fund.

After examination, the selected artists (or group) are subsidized a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In addition to various fees such as participation fee, visa issuance fee, and travel insurance premium, travel and project proceeding expenses such as airfare and accommodation are provided. Depending on the project, expenses occurred during working overseas may also be covered.

'International Artist-in-Residence' is a project that supports artists to participate in overseas residency programs. It supports seven fields of literature, visual art, theater, dance, music, and performing arts in general. There are 'non-designated (autonomous) type program' that artists contact and participate in overseas residency programs, and 'designated(planned) type program' where artists are dispatched to overseas arts institutions founded by Arts Council Korea.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With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art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in non-governmental level, the 'ARKO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supports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such as joint cooperation of overseas artists, domestic and foreign invitation projects, and networking between artists. In addition to supporting artists' independent projects, the council has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and the 'European Broadcasting Union', platforms that are not easily accessible to individual artists, to provide various international exchange opportunities.

In 2019, the 'International Networking for the Emerging Artists' was launched as a project to support young artists aged 39 or younger to strengthen their artistic capabilities and to build a foundation for cooperation networks through exchanges with overseas artists and institutions.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 'International Artist-in-Residence' program provided 472 Million Won for 102 projects in 2018, and 660 Million Won for 116 projects in 2019. After the spread of COVID-19 in 2020, major overseas platforms closed or reduced significantly in size due to national movement restrictions, providing 380 Million Won for 55 projects. In case timely assistance was difficult due to COVID-19, artists were to offered alternative methods such as adjusting project period and postponing project to the following year. In addition, if the cancellation of the project was unavoidable, various fees related to the cancellation could also be enforced within the project cost to minimize damage to the artist.

In 2019, the 'ARKO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provided 2,083 Million Won to 121 projects announced domestically and abroad, including invitations of international artists to Korea, global expansion of domestic artists, joint collaborations with international artists, art groups, and institutions. In 2020, it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provided 1,837 Million Won to 95 projects.

The 'International Networking for the Emerging Artists' provided 698 Million Won for a total of 44 projects in 2019, and 518 Million Won for 27 projects in 2020.

The 'International Arts Joint Fund Program' is a cooperative project that matches budgets based on MOUs with major international arts institutions. Through the creation of a joint fund, art exchanges and creative activ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securely supported. Various exchange projects are prompted by establishing strategic networks with 2016~2018 UK (British Arts Council), 2017~2018 Germany (German Cultural Center in Korea), 2018~2019 Denmark (Denmark Palace), 2019~2021 Singapore (National Singapore Arts Council), and 2020~2022 Netherlands (Dutch Culture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Center).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re was an expansion of international activities in domestic and abroad invitations, sales of copyrights, and awards after getting selected by ARKO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with a total number of 116 cases.

In addition, Arts Council Korea, as a boar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IFACCA), has established a network among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in each country to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culture and arts policies such as art support systems, creative promotions, audience developments, and cultural enjoyments.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6,230 Million Won, **4.74 Million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FLOW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INTRODUCTION

Parties shall report on policies and measures, including preferential treatment, as defined in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that facilitate a more balanced exchange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globally. Such policies and measures include, inter alia, export and import strategies, North-South and South-South cultural cooperation programmes and aid for trade programmes as well 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KEY QUESTIONS

1. Export strategies or measures to support the distribution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outside your country exist for the following cultural domains: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2. Your country has granted or benefited from preferential treatment* to support a balanced exchange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in the last 4 years:

- YES, I have granted preferential treatment
 YES, I have benefited from preferential treatment

2-1. If YES, please provide up to 2 examples

UNESCO Trust Fund

* Preferential treatment, also referred to a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is a deviation from the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trade liberalization agreements intended to address structural inequalitie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exceptions in the name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culture in trade or investment agreements signed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s to provide support - on a non-reciprocal basis - to cultural expressions coming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broaden their commercial opportunities and ensure more balanced flow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round the world.

3. Your country has provided or benefited in the last 4 years from Aid for Trade support, a form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at helped to build capacities to formulate trade policies, participate in negotiating and implementing agreements that provide a special status to cultural goods and services:

- YES, I have provided Aid for Trade support
 YES, I have benefited from Aid for Trade support

3-1. If YES, please provide up to 2 examples

Cultural Partnership Invitation Training Project

STATISTICS

Value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in USD)

Cultural OD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dget) : 7.87 Billion Won,
5.99 Million Dollars /As of 2021

(관계부처 합동,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1. Name of the policy/measure

Content Expor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Welcon'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Welcon : <https://welcon.kocca.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As the lack of information in global expansion raised concerns in the 2015 content industry survey,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built a content export marketing platform, 'WelCon', in 2016. It is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hat allows users to understand content export information at a glance. The WelCon servic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event & business information, export information, and business. Each division consist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nt events, market information and business matching support, integrated information on local content market trends and buyers, and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for global expansion. As the spread of COVID-19 made it difficult for domestic content companies to expand globally in 2020, the WelCon newly launched a marketplace service in 2022.

WelCon is a service that provides various services and information for content companies wishing to advance overseas with export capability diagnosis, global expansion consultation, project supports, and events news. It provides information on global expansion of contents that are scattered in 14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and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at once.

WelCon also consults content's global expansion, and provides information on content market with high global influence in the genres like broadcasting, animation, character, game, cartoon, publication, and music. For companies that are planning to expand overseas, WelCon provides various services such as export capability diagnosis, overseas expansion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on open calls or support offerings. The Marketplace, which launched in 2022, is an online marketing platform to support the business and marketing activities of content exporters, where online direct exchange and business matching between domestic content companies and overseas buyers occur.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As a reference,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is promoting about 11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including the WelCon service.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 WelCon servic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event & business information, export information, and business. First, 'Event & Business Information' is classified according to content genre and target country, and is largely classified into events hosted by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and international markets supported by KOCCA or major content event information. The service provides support for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directory book, and biz matching. KOCCA-hosted events include K-Contents Expo and K-Contents Biz Week. For international markets supported by KOCCA, the service provides support for information on overseas market particip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broadcasting, animation, games, immersive content, characters, music, and fashion.

Secondly, the 'Export Information' program provides insights on domestic content and overseas market trends through K-content news, export support business, overseas market analysis by genre, international trend information, and customized curation service. As for the 'Business' program, it provides professional consulting by an advisory group by genre, field, and country in areas like la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axation, finance (investment), marketing, and start-up. The business program is largely divided into consultation for overseas expansion and diagnosis of export capability, and supports the preparation process for domestic content companies' global expansion. From 2022, a newly launched marketplace provides services for domestic content companies and overseas buyers to interact directly through the platform.

According to the *Contents Industry White Paper*, there were 1,522 cases of new information such as content industry trends, weekly global, in-depth analysis reports, global market reports, Hallyu trends, regula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collected in 2020, with a cumulative of 5,091 cases of export information. It is confirmed that 2,851 database are stored in the domestic content pavilion, and 1,380 database in the corporate pavilion.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37,831 Million Won, 28.795 Million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1. Name of the policy/measure

Production of Export Guide on Book Copyright and Export Support of Published Content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https://www.kpipa.or.kr/>
Publishing and export integrated platform, 'K-BOOK' : <https://k-book.or.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Since 2013, the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has produced the 'Rights Guide', which contains an introduction to the overseas publishing market, practical export methods and strategies, and successful cases to help domestic books to export. The basics edition covers overall information about exporting book copyrights. There are country-specific editions reflecting the publishing market environment in China, Southeast Asia, US and UK, and Latin America for the domestic publishers planning to expand in those specific markets. They provide export strategies by country and genre, contract procedures and formats of contracts, the status of various international book fairs and world publishers, and the status of domestic agencies. The basic edition and revised edition of the guide for the Chinese market were updated and distributed in 2020 and 2021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d publishing market environment after COVID-19.

Furthermore, the need to support the export of domestic books and book copyrights was further emphasized as the publishing industry accounted for 16.8% of the total content industry sales as of 2020, with Han Rivers' "Vegetarian" winning the Man Booker Awards International Prize in 2016. Accordingly, the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is promoting 12 support projects as of 2021 by increasing the number of export support projects.

Particularly, the agency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a publishing and export integrated platform, 'K-BOOK' that allows overseas buyers to check information on Korean books in English. In addition, the agency is pursuing various new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projects to promote Korean book information abroad, including the operation of export coordinators.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A total of eight volumes (including revised editions) of 「Rights Guide」 were produced and distributed from 2013 to 2021 for the overseas expansion of excellent Korean publications. The K-BOOK platform, an integrated publishing and export platform, was newly established in 2019 to provide English services for overseas buyers to search and check information about Korean books. At the end of 2021, there was a cumulative of 15,441 visitors.

In conjunction with K-BOOK platform, the agency publishes a monthly English webzine, <K-BOOK Trends> to promote domestic publishing trends,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writers, and publishers that are uploaded in K-BOOK platform. With the aim of global expansion from 2020, the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also established 'export coordinator' program to provide a local information network for publication export. The export coordinator is responsible for identifying local publishing market trends and issues, researching local publishing groups and building contacts and networks, exhibiting and promoting K-BOOK platform, participating in local and neighboring countries publishing and reading events, and writing observations.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1,801 Million Won, 1.37 Million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

TREATIES AND AGREEMENTS

INTRODUCTION

Parties shall report on the ways in which cultural goods,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 are provided a special status in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signatories or which are under negotiation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or bilateral levels. Parties shall also report on the initiatives undertaken to promote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in other treaties and agreements as well as in declarations, recommendations and resolutions. Typically, these measures are implemented by agencies responsible for trade, foreign affairs and culture. The measures should reflect this interdependence and indicate the establishment of dedicated coordination mechanisms.

KEY QUESTIONS

1. Multilateral or bilateral trade and/or investment agreements providing a special status to cultural goods and/or services have been signed during the last 4 years or are under negotiation:

YES NO UNDER NEGOTIATION

2. Multilateral or bilateral agreements including specific provisions providing a special status to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 in the field of e-commerce have been signed during the last 4 years or are under negotiation:

YES NO UNDER NEGOTIATION

3. Multilateral or bilateral agreements, declarations and/or strategies on relevant policy issues for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e.g. education, digital, intellectual property, sustainable development, gender equality, etc.) signed or amended to take into account the objectives or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during the last 4 years:

YES NO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1. Name of the policy/measur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Cultural Cooperation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cultural cooperation such as cultural and artistic and creative industries, cultural heritage, and language education between countries, forming a framework for cooperation on bilateral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and expert exchange.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s signed by two cultural ministries as representatives and is generally negotiated over a period of three to five years.

Programs, signed a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recognize the principles of the 2005 Convention and promotes exchange of information, expertise, and capacity building in the cultural arts and creative industries. In general, the MOU of understanding includes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cultural, artistic, and heritage-related organizations, enhancing cultural activities such as literature, performing arts, and visual arts, archaeology, museology, archival materials exhibitions, and exchanging cultural-related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materials.

Countries that have signed bilateral MOUs on culture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clude Denmark in 2018, Saudi Arabia in 2019, and Malaysia, Colombia, Hungary, and Australia in 2021.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 MOU strengthened th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luding cultural, artistic, and creative industries, and the exchange of cultural heritage materials. It also exchanged the cultural professional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cooperation in the cultural sector, and held seminars for the exchange of expertise and for capacity buil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ere carried out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 such as cultural experiences and public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cultural, artistic, and creative industries, exhibitions, and performance were also executed.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Goal 3. 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AND PLANS

INTRODUCTION

Parties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policies and measures designed to integrate creativity and cultural expressions as strategic elements in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ning and policies. Information shall also be provided on how these policies and measures contribute to achiev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outcomes and ensuring equitable distribution and access to cultural resources and expressions. Typically, these measures are implemented by agencies responsible for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ocial inclusion and culture. The measures should reflect this interdependence and indicate the establishment of dedicated coordination mechanisms.

KEY QUESTIONS

1.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es recognize the strategic role of:
 Culture (in general) Creativity and innovatio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2. Please rate from 1 to 4 the type of outcomes expected by the inclusion of culture in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es (1= most often expected outcome; 4= least expected outcome):
 Economic (e.g. employment, trade, intellectual property,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rural and territorial development)
 Social (e.g. social cohesion and inclusion, inequality and poverty reduction, values and identity, vulnerable and minority groups, empowerment and human capital, education) 1
 Environmental (e.g. natural resources,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 of cultural industries and practices)
 Cultural (e.g. cultural infrastructure, participation and access to culture, innovation, artists support) 3
3. Public cultural bodies and agencies responsible for culture or creative industries are involved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and plans (i.e. participate in coordination mechanisms such as joint planning committees):
 YES NO
4. Cultural industry-based regeneration initiatives and projects at the regional, urban and/or rural level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last 4 years:
 YES NO
5. Policies and measures facilitate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and access to diverse cultural facilities and expressions, notably addressing the needs of disadvantaged or vulnerable groups (e.g. via reduced entrance fees; audience development, arts education and audiences awareness-raising):
 YES NO

STATISTICS

1. Latest data on cultural participation rates by socio demographic variables (sex/age

groups/rural– urban/income levels/education levels)

Culture and Art Event Attendance Rate /As of 2021

(Gender) Male 33.6%, Women 33.6%

(Age) Youth (15–19 years old) 57.4%, 20s 63.8%, 30s 42.2%, 40s 33.2%, 50s 27.7%,
60s 17.5%, 70s and older 5.6%

(Urban/Region) Large cities 39.2%, small and medium cities 33.4%, Rural areas 21.7%

(Income Level) Less than 1 Million Won 14.7%, 1 to 2 Million Won 14.4%,
2 to 3 Million Won 26.9%, 3 to 4 Million Won 30.2%, 4 to 5 Million Won 38.0%,
5 to 6 Million Won 44.2%, 6 Million Won or above 48.9%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graduate or less 11.1%,
middle school graduate 22.0%, high school graduate 31.3%,
college graduate or higher 45.6%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1. Name of the policy/measure

The Cultural City Development Project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gional Culture & Development Agency,
Local Government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Regional Culture & Development Agency : <http://www.rcda.or.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designated a statutory cultural city based on Article 15 of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in order to enhance cultural creativity by effectively utilizing cultural resources unique to each region since 2019. In 2014, the legal basis was prepared, and in 2018, a roadmap for promoting a cultural city was established. It was announced that 30 regions would be designated nationwide as cultural cities from 2019 to 2022. The policy vision of the cultural city is to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culture and the spread of the cultural life of local citizens’, and the main goals ar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ustainable growth through culture, and enhancement of social innovation.

Based on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local governments applying for statutory cultural city can select themes by historical traditions, arts, cultural industries, social culture, and local autonomy. The theme is officially designated through a total of five steps. First, if it applies for a designation as a cultural city (step 1), the region undergoes review and approval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tep 2), and promotes a preliminary project as a cultural city for one year (step 3). The Cultural City Deliberation Committee reviews the preliminary project operation (step 4), and the final statutory cultural city is designated (step 5). For the regions designated as cultural cities, up to 10 Billion Won of government expenditure and up to 10 Billion Won in local expenses are provided for five years.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An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the cultural city project is a local citizen-centered governance.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for regional cultural development' from a cultural point of view, aiming to form regional and citizen-centered governance rather than top-down support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To this end,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Cultural City Review Committee, a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and the Cultural City Support Center, a private organization. The local government will establish a cultural city promotion committe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a cultural city promotion organization system, and a citizen organization.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In 2019, seven regions were designated as the first culture city. Consequently, five regions were designated as the second cultural city in January 2021 and six regions as the third cultural city in December 2021. 18 regions became statutory cultural cities. In order to designate the fourth cultural city in 2022, 16 regions are conducting preliminary cultural city projects for a year. Among the regions designated as cultural cities, Cheongju City of Chungbuk province and Pohang City of Gyeongbuk province in 2020, Seogwipo City of Jeju, Wonju City of Gangwon province, and Wanju County of Jeonbuk province in 2021 were rated as excellent cities in performance achievement.

Representative examples and results are as follows.

1. Seogwipo City and Cheongju City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urban brands such as 'noji culture' and 'record culture' respectively by utilizing the unique cultural resources of the region. For reference, noji culture is a word newly created for this cultural city project to show the village's culture as is.
2. Out of 12 Cultural Cities (1st, 2nd), a total of 685 cultural spaces have been created since 2020, serving as a base for the cultural enjoyment of local citizens.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3. The cumulative number of participations in the Cultural City is 1,078,060,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actual local citizens. The satisfaction level of participants for each city's representative projects is high, an average of 86.7%.
4. In the case of Wonju City and Wanju City, governance through culture was implemented by preparing various discussions centered on local citizens.
5. Pohang City collaborated with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convert an idle space into a complex cultural space. Gangneung City promoted cultural exchange programs between regions in cooperation with Yeongdeungpo-gu. Those association projects have become the engine of the cultural city project.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18,400 Million Won, **14.005 Million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rivate Organizations, 18 Local Governments(Cultural City Center)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About 40% of the national local governments (96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d in the statutory cultural city contest. Further, 82 regions enacted cultural city ordinances and expanded the local governments' cultural policy investment plans to implement cultural city projects. The major achievements of the cultural city development project are summariz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urban culture brand, expansion of cultural bases, enhancement of citizen satisfaction, establishment of cultural governance, creation of cultural jobs, and expansion of cultural values and cultural approaches.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1. Name of the policy/measure

Culture Voucher Project (Integrated Cultural Pass)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Culture Nuri Card : <https://www.mnuri.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The culture voucher (integrated cultural pass) is a project to provide cultural service exchange vouchers worth 110,000 Won per person per year (as of 2022) to financially underprivileged groups. The project has been expanding through increasing the range of uses of the culture voucher (culture, travel, and sports viewing), the amount of support per person in 2017–2021, and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22 (100% beneficiary rate). In the meantime, the culture voucher program has been focusing on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use in 2015 (issued per household per person),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issuance and use for minorities (the elderly, the disabled, etc.) in 2018, enhancing the convenience of recharging (ARS) in 2019, and launching the mobile app and start auto recharging in 2021. As the medium for cultural enjoyment has shifted from analog to digital after COVID–19, the project is working to discover and expand the use of culture vouchers online (OTT, music, and e–books).

Currently, the culture voucher is issued through 'Culture Nuri Card', which can be used in about 25,000 franchises nationwide. It provides 110,000 Won per person to basic living recipients and the near–poverty groups aged 6 and above.

As for the project promotion syste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stablishes the policy direction and basic plan, and Arts Council Korea oversees the project operatio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designated offices for each city and province operate the project with project expenses, Culture Nuri Card issuance, and franchise management.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 amount of support for culture voucher increased by 10,000 Won every year, with 60,000 Won in 2017 to 100,000 Won in 2021. The ratio of beneficiaries for basic living recipients and near-poverty groups gradually expanded from 61.2% (1.61 Million) in 2017, to 80% (1.97 Million) in 2021, and to 100% (2.63 Million) in 2022. The project budget also continued to increase, from 69,875 Million Won in 2017 to 140,154 Million Won in 2021.

The result of the survey on the business effect on the culture voucher users illustrated that cultural vouchers led to positive changes in emotiona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In terms of emotional aspect, the level of happiness and life energy have increased. As for cultural aspect, the level of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leisure activities increased slightly in 2020 compared to 2019. In terms of social aspect, the enjoyment the pleasure of interacting with others increase while and the burden of interaction showed a slight decrease 2021 compared to 2020.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140,154 Million Won, **106.68 Million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Cultural activities of the financially underprivileged have increased through the culture voucher project, which eased the cultural enjoyment gap based on incomes. As culture voucher recipients and budgets continue to expand,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provide targeted-use support for each individual to increase the use of voucher in the fu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RODUCTION

Parties shall report on policies and measures that are designed to integrate culture as a strategic element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programm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South–South cooperation, in order to support the emergence of dynamic creative se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policies and measures are generally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ies and/or ministries and agencies in charge of foreign affairs and culture. The measures to be reported should include, where appropriate, the establishment of coordination mechanisms.

KEY QUESTIONS

1. Your country has contributed to or benefited from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during the last 4 years:
 - YES, my country has contributed to the IFCD
 - YES, a public body or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my country has benefited from the IFCD
2.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including South–South cooperation strategies, recognize the strategic role of creativity and diverse cultural expressions:
 - YES NO

2–1. If YES, please provide the name(s) of the strategy and year(s) of adoption

2nd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Year of Adoption: 2015

3rd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Year of Adoption: 2021

3. Your country manages multi– and/or bilateral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cooperation programmes supporting:
 - Cultural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Medium, small or micro–enterprise development of creative industries and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in developing countries

STATISTICS

1. Value of the total national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n USD)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85 Million Won, 76,610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1. Name of the policy/measure

Cultural ODA Project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 <http://kofice.or.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cultural capabilities based on its own culture and traditions through projects such as 'Enhancing Cultural Resource Capab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Culture and Arts ODA', 'Cultivating Human Resources in Overseas Arts' and 'Creating Overseas Small Libraries'. Among them, the Cultural ODA is a program for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centered 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strengthen cultural capabil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sharing experiences in Korea's cultural development. The Cultural ODA project aims ①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recipient country by transferring Korea's cultural development experience, ② to diversify exchanges and strengthen two ways international cooperation using culture.

A representative project of the Cultural ODA is 'Cultural Partnership Invitation' project, a project to strengthen cultural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 since 2005. Initially, it invited promising professionals in the fields of culture, arts, cultural industry, and media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receive practical training, co-creation, and cultural experience at cultural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3 to 5 months. From 2020, cultural administrator training was also conduct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government officials in developing countries to promote their own cultural industries. In addition, the Cultural and Art Education (ODA) project was carried forward in 2013. The Korea Culture and Arts Education Service,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ovided cultural arts education planning and methodological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lectures for local teachers and preliminary teachers in the partner countries. For local children and youth, art education was provid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atre, literature, and crafts.

The Cultural Partnership project contributed to establishing sustainable partnership with the ODA recipient countries and enhancing national image based on two-way cultural exchanges instead of unilateral spread of Hallyu by conducting professional training and following-up projects to meet local needs. In addition, the Cultural and Art Education (ODA) project has been promoted in cooperation with Vietnam since 2013 and Indonesia since 2018, contributing to expanding the base of cultural and art education in the recipient countries.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South Korea's Cultural ODA budget continued to expand from 2012, providing more cultural ODA compared to Japan in 2014 and 2015, and providing the third-largest cultural ODA after Japan and France in 2018. The ratio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budget to the total ODA budget in Korea has continued to increase to 0.45% (11.97 Billion Won) in 2018, 0.49% (13.52 Billion Won) in 2019, and 0.46% (14.36 Billion Won) in 2020. However, due to the domestic situation including financial deterioration after COVID-19, the budget for 2021 slightly decreased to 0.23% (7.87 Billion Won). When looked at the ratio of the budget for cultural ODA into the field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t can be seen that the sports sector had the highest budget ratio for 2018-2020. However, the cultural sector had the highest ratio at 52.5% in 2021.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Cultural ODA(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78.7million won, 5.99 Million Dollars /As of 2021

(관계부처 합동,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The Cultural Partnership Project, a representative project of the Cultural ODA project, is positively evaluated for its contribution for continuously enhanc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in developing countries at the government level,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short-term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However, a follow-up investigation is needed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academic performance of the participants in capacity building ultimately contributes to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local cultural and the creative sector.

Goal 4. PRO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Gender Equality

INTRODUCTION

Parties shall describe policies and measures taken to promote gender equality³ in the culture and media sectors. Parties shall present, inter alia, policies and measures aiming to support women as creators,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cultural activities, goods and services, as well as women's access to decision-making positions. They shall also report on the policies and measures that support women's full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Parties shall also report on efforts to generate data on progress made towards gender equality in the culture and media sectors.

KEY QUESTIONS

1. Ministries, governmental agencies and/or parliamentary bodies in charge of gender equality:
 - Exist and are relevant for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 Exist but are not relevant for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 Do not exist
2. Policies and measures to support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in cultural life have been implemented during the last 4 years:
 - YES NO
3. Policies and measures have been adopted to support the recognition and advancement of women as artists, cultural professionals and/or creative entrepreneurs, (e.g. ensure equal pay for equal work or equal access to funding, coaching or mentoring schemes, anti-discrimination measures, etc.):
 - YES NO
4. Data is regularly collected and disseminated to monitor:
 - Gender equality in the culture and media sectors
 - Participation of women in cultural life

STATISTICS

1. Percentage of total public funds given to female artists and cultural producers
—
2. Percentage of women/men in decision-making /managerial positions in public and private cultural and media institution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atio of Women in Senior Management 15.5% /As of 202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atio of Women as Head of Office 49.1% /As of 202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atio of Women in Government committee over 40% 92.6% /As of 2021
3. Percentage of works from female/male artists displayed / projected in important festivals of the arts and cultural industries (film, book publishing, music industry

etc.)

Ratio of Women Director's Film released in Korea : 21.5% /As of 2020

(Korean Film Council,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

4. Percentage of women receiving art national prizes/awards

Ratio of Women who won Sejong Culture Award : 17.6% /Average of 2018~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발표자료)

5. Percentage of women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Ratio of Artist who acquired a certificate for artistic careers(Women) : 54.0%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1. Name of the policy/measur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Policy to Create and Raise Awareness of the Gender Equal Cultural Environment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http://www.mcst.go.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med the Women's Culture Task Force in 2003, and continued to promote cultural policies for women. The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1995) to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raised the need to implement substantial gender equality in the field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refore, the Gender Equality Policy Division was newly established in May 2019 under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with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y manage and coordinate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in the field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reate gender equal environment, improve awareness of the professionals in the forementioned fields, and actively promote policies to eliminate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n 2020, a budget of 1 Billion Won for 'creating gender equal cultural environment' was secured and actively used to promote, research, study, respond, and develop a manual for spreading the culture of gender equality and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The budget is increasing every year.

To meet the gender balance in public policy process, the gender ratio with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regularly administered in senior officials, head of offices and government council members. The ratio of internal councils is also inspected with related departments to maintain gender balance.

To establish policies needed in the field, the Ministry formed a 'gender equality policy committee', and 'gender equal council', which consists of officials in

charge of the matters within private organization or public institutions. They also hold regional on-site forums to seek solutions to develop gender equality.

Furthermore, to spread the culture of gender equality and raise awareness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old 'Gender Equal Culture Award', use the Bechdel test to select and promote excellent gender equal films and filmmakers, discover and develop contemporary women-figure projects, and create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content that is customized by professions.

Also, as an institutional basis for gender equality throughou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y conduct gender impact assessment over major policies and projects, and enhance gender balance by managing gender sensitive budgeted projects. Last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duct a gender sensitivity statistics research to bridge the gender gap when making a policy.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Since the MeToo movement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in 2018, active measures were carried out to create gender equal environment. In December 2018, the 'Culture Vision 2030' announced a cultural policy tasks for gender equality society through forming a cultural ecosystem without gender discrimination or sexual violence, creating an administrative reform for a gender-equal cultural ecosystem, and building a women-friendly ecosystem and gender equality society.

Since th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promoted projects such as enhancing woman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basis building for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policies, spreading,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culture of gender equality.

First, as a result of efforts to improve gender balanc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 ratio of women in the senior management increased from 7.1% in 2018 to 15.5% in 2021, and the ratio of women as head of office level more than doubled from 22.2% in 2018 to 49.1% in 2021. The ratio of commissioned women members of the Government Committee with 40% or more were also increased by 20%, from 70.8% in 2018 to 92.6% in 2021. 106 internal

committee revised and completed their directives, regulations, and notices to avoid specific gender from exceeding 60% when organizing external member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lso formed the 'Gender Equality Policy Committee' in 2018, holding 24 discourses and receiving advices on gender equality policies and measures agains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The committee held three discussion sessions on gender equality issues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The private organiz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of the committee operate 'Gender Equality Council' to spread the culture of gender equality and share the policies. Also, they hold regional on-site forums every year to spread the initiative to fields and regions, where field workers share the status of gender equality and seek development plans.

In order to spread the culture of gender equality and raise awareness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un Gender Equal Culture Awards by selecting people and content that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culture of gender equality. They use Bechdel test to select and promote excellent gender equality films-series (20 works) and filmmakers (8 people). They also discovered and hosted a special exhibition of contemporary woman figures (December 2021), and created a customized gender-sensitivity education content (5 copies) for arts and culture planning and administration personnels.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55 out of 107 cases improved) was conducted for the major policies and projects, and the gender sensitivity budgeted project was expanded by 10% in 2021 to improve gender discrimination and to enhance the gender balan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proportion and promote effective gender equality policies, three studies were carried out. An status analysis of gender sensitivity in the field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ender equality index in the field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a statistical analysis of gender sensitivity 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order to enhance the gender equality competency of employees within the organizati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ovide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four times a year, and distribute a gender equality administrative guide book for policy makers as to promote policies from gender equality perspective. Lastl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promoting diverse methods such as issuing monthly updates with the major gender equality policies domestically and abroad and distributing card news on

trending issues.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1,030 Million Won, 784,000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Cultural and Artistic Organizations, Gender Equality Organizations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1. Name of the policy/measur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Sexual Harrassment and Violence of Artist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Sexual Violence Reporting and Counseling Center for Artists' :

<http://www.kawf.kr/social/sub11.do>

Content Gender Equality Center 'BORA' : <https://www.kocca.kr/bora/>

Center for Gender Equality in the Korean Film Industry 'DeunDeun' :
<http://solido.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implementing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to eliminate gender discriminatory practices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and to support the safe creative environment for woman artists.

There are a total of five organizations in charge of reporting and counseling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irst, there are 'Sexual violence reporting and counseling center for artists' and 'Artist Sinmungo', a counseling center for reporting unfair acts that is operated by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Then there is 'Content Gender Equality Center BORA' of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nd 'DeunDeun', a center for gender equality in the Korean film industry, of Korean Film Council. Lastly, there is a 'Sport Ethics Center' for athletes. These institutions and centers support artists and contractor artists in the cultural services, content professionals, filmmakers, and sportsmen with handling cases of unfair acts, especially sexual violence

Each center supports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education to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the people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Promotion Of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ugust 2021), it is mandatory by the Article 3-7 (Preventive Measures Such as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them to take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before shooting, provided by 'DeunDeun', a center for gender equality in the Korean film industry. Since 2018, DeunDeun also runs a project to train and dispatch instructors for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the film industry.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1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stipulating that the employer should conduct annual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in the workplace, Content Gender Equality Center BORA conducts on-site group trainings, non-face-to-face and online trainings by annual basis. In addition to this, they put diverse efforts such as publishing 「DeunDeun Issue Brief」, annual balance papers, and a guidebook to prevent sexual violence to create gender equal cultural environment in the film industry.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stablished a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victim relief system to prevent and eradicate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and strengthened institutional improvement, sanctions against perpetrators, and education on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for field workers.

In order to exclude public support for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perpetrator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he prohibition of sexual violence was stipulated in the standard contract. Moreov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peration Guidelines for the State Subsidy Management' was amended,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became compulsory. In 2019, a survey o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by art and culture field was conducted. In 2020, a common survey table to compare and analyze by field was developed which was utilized in the factual survey in the fields of culture, art and tourism in 2021. Regular investigations o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will be conducted based on case analysis of counseling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centers by sector and damage support measures in 2020. In addition, prevention educational contents for workers were developed (47 type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for workers in the field, and field-tailored education such as 'Visiting Prevention Education' was conducted (2019~2021, 85,847 persons).

From 2018 to 2021, the cumulative number of reports of the victims from The Sexual Violence Reporting and Counseling Center for Artists was counted 122 cases, 167 cases from 'DeunDeun', and 28 cases from 'BORA'. In addition, The Sexual Violence Reporting and Counseling Center for Artists has appointed 15 advisors in each field to support the recovery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rough legal counseling, litigation support, medical expense support,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The same services are provided via 'BORA' and 'DeunDeun'. From 2018 to 2021, 31 cases of medical and counseling support and 212 cases of legal support were provided via 'DeunDeun'. 'BORA' supported 1,280 cases with general counseling and 27 victims.

Each organization is promoting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o prevent sexual violence as well. From 2018 to 2021, 8,630 people took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conducted by The Sexual Violence Reporting and Counseling Center for Artists, and 14,056 people took BORA's gender equality prevention education. DeunDeun has run 95 (2018), 119 (2019), 112 (2020) and 164 trainings. (2021).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1,276 Million Won, 971,000 Dollars /As of 2021

(문화체육관광부)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rean Film Council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ARTISTIC FREEDOM

INTRODUCTION

Parties shall report on policies and measures adopted and implemented to promote artistic freedom. They shall highlight action taken to promote: the right to create without censorship or intimidation; the right to have artistic activities supported, distributed and remunerated;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artists' social and economic rights;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ultural life.

KEY QUESTIONS

1. The constitution and/or 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formally acknowledge:
 - The right of artists to create without censorship or intimidation
 - The right of artists to disseminate and/or perform their artistic works
 - The right for all citizens to freely enjoy artistic works both in public and in private
 - The right for all citizens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without restrictions
2. Independent bodies are established to receive complaints and/or monitor violations and restrictions to artistic freedom:
 - YES NO
3. Initiatives to protect artists at risk or in exile have been developed or supported by public authorities during the last 4 years (e.g. providing safe houses, guidance and training, etc.):
 - YES NO
4. Measures and initiatives intended to ensure transparent decision-making on government funding/ state grants and awards for artists exist (e.g. through independent committees, etc.):
 - YES NO
5. Social protection measures that take the professional status of artists into account have been adopted or revised in the last 4 years (e.g. health insurance, retirement schemes, unemployment benefits, etc.):
 - YES NO
6. Economic measures that take the status of artists into account have been adopted or revised in the last 4 years (e.g. collective agreements, income tax and other regulatory frameworks, etc.):
 - YES NO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1. Name of the policy/measure

Enactment of Act on the Protection of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and relevant system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 <http://www.kawf.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rtists Welfare Act in 2011 to legally protect the professional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to promote the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and to contribute to artistic development by providing artists with welfare support services. Also based on Article 10 of the same Act,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2012. The foundation has provided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upport for the welfare of artists and improved the environment for the promotion of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It was after the artist blacklist incident in 2016 that the higher demand was raised for securing the professional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with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In the following year, the 19th President (Moon Jae-in government) responded to this and one of the 100 national projects reflected 'ensuring the creative rights of artists and creating a fair ecosystem for the cultural industry'.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and the professional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s a follow up measure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exclusion from public support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related discussion began in 2017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n the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was enacted in 2021. The main points of the Act are prote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rtists,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professional rights of artists, and creating a gender equal creative environment. The law also stipulates that artists can organize associations of artists in order to protect their own status and rights.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Th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is promoting a project to build a creative safety net for artists based on the Artists Welfare Act and the Act on the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The main projects of the foundation are the creative empowerment project and the vocational empowerment project. In addition to basic creative activity support projects, they also operate a reporting and counseling center for unfair practices (2017), a sexual violence reporting and counseling center for artists (2018), and a reporting and counseling service for breach of written contract (2020). In addition, they introduce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2012) an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2020) for artists to protect the professional rights of artists. Currently, a loan support project (2019) is being promoted to stabilize the lives of artists.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s run by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artists as professionals must obtain a certificate for artistic careers. Since COVID-19, the number of artists who have completed artistic career certification increased greatly from 57,417 in 2018 to 129,450 in 2021. The number of artists who have been issued with artist pass after completing artistic career certification also increased from 58,125 in 2018 to 114,667 in 2021.

The Creative Fund Support Project has been running since 2015 and provides necessary funds (3 Million Won per person) for artists who are experiencing economic hardship. Since then, a total of 57,798 artists have received the fund support until 2021. The Artist Dispatch Support Project-Art Road is a project that supports collaboration between artists and local society so that artists can solve issues of companies, institutions, and villages through their artistic capabilities. So far, around 1,000 artists are being supported every year. Since 2020, a regional project is established, supporting local artists by build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eight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Busan, Daegu, Gwangju, Daejeon, Chungbuk, Jeonbuk, Jeonnam, and Gyeongnam).

In supporting child care of artists, Daehak-ro Bandi Care Center (Jongno-gu) opened in 2014 and Artists Child Care Center (Mapo-gu) in 2017. The purpose of the centers is to reduce the burden of childcare of artists and to provide a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stable creative environment. Those who proved professional status as an artist with the certificate can use the service. 3,340 artists have used the facilities in 2021.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for artists is a social insurance scheme for a freelance artist which allows them to sign up for a premium as an individual. Th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works as a proxy for administrative work in the insurance sign up, supporting 50–90% of the insurance payment. The artist employment insurance is promot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mid- to long-term welfare treatment of cultural and artistic organizations (employer) and artists. Those artists who are under employment insurance can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of 120–270 days while seeking a job as well as 90 days of salary before or after giving birth. These social insurance schemes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for freelance artists and the preparation of a stable foundation for creative activities.

Starting in June 2019, the artist life stabilization fund (loan) was introduced and started supporting ‘living stabilization fund loan’ and ‘jeonse fundloan’ for freelance artists who are financially vulnerable. Since COVID–19, a ‘special loan’ was newly established and supported artists in need with the budget of 7.1 Billion Won in 2020 and 2.9 Billion Won in 2021.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85,762 Million Won, [65.278 Million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1. Name of the policy/measure

Enactment of Act On The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nd relevant system

2.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 arts Design Media arts Music
 Performing arts Publishing Visual arts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es) above if you are reporting a sectorial policy/measure and leave them empty if the policy/measure covers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as a whole (i.e a global cultural policy or law).

4.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 <http://www.i-eum.or.kr/main/view>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With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was amended to include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in 2008, the art and culture promotion policy for the disabled had been moved from welfare to cultural policy area. In 2015, a designated body of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was established and the Act On The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abled Artists Support Act) was enacted.

The policy in supporting artists with disabilities began with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2014, as awareness was raised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or social minority groups. With the establishment of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in 2015, a systematic approach over policy, project, network implementation, development, and delivery were enabled. In 2017, the task of 'Enhancing cultural and leisure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was included in the 100 national projects of the 19th president (Moon Jae-in government).

The main contents of the 「Act On The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enacted in 2020 are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establish support plans, support their creative activities, expand opportunities to present their artworks, support employment, and improve access to cultural facilities. Based on the forementioned Act, a basic plan to suppor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or the artis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Accordingly, the basic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major issues and directions of the master plan (Feb–Oct 2021), and a subcommittee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experts, and governments was formed to conduct 24 conferences and advisory meetings (Apr–Nov 2021). With the collection of the opinions of the Cultural Activities Support Committee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Jul 2021 and May 2022), inquiry and consultation on opinions of related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April 2022), online public hearing (17th May 2022), and the deliberation by the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Support Committee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the first basic plan (draft) was prepared to suppor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and was announced through the Ministerial Meeting on State Affairs (8th September 2022).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With establishment of the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which manages and operates cultural arts policies for the artists with disabilities, various researches, surveys, and forums were carried out to support the creative activities. It conducted 「*Basic research o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or the disabled*」 (2018), 「*Program development to activate creativity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2018), 「*Basic research and survey for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performance hall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2018), and 「*Feasibility survey on a dedicated performance hall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and basic plan*」 (2019). Also, it held 「*Study on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for the disabled in art and culture*」 (2020), and conducted 「*Survey on th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in 2018 and 2021 to use as a base data to determin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in 2021, 83.7%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re classified as 'disabled with severe degree of disability'. The types of disability were include intellectual disability 34.3%, physical disability 26.0%, visual impairment 15.0%, Autistic disorder 13.0%, and hearing/language disorder 4.9%. Artists with disabilities were most active in Western music (27.2%), fine arts (26.8%), popular music (11.4%),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8.5%), with the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2

average working period of 11 years. Supports artists with disabilities need the most were the expansion of creative work support and beneficiaries (70.5%), space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8.0%), and public relations and marketing support (6.0%).

With the Disabled Artists Support Act in 2020,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actively expanding the budget for supporting artists with disability. In 2021, the budget was 24.7 Billion Won, which was up 58% from the previous year. In 2022, the budget is 26 Billion Won. The increased budget will be used for the creative support projects, professional education, performing arts groups,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such as International Disabled Arts Week, and job support for artists with disability. Additionally, the first dedicated performance hall for artists with disability with universal design is scheduled to open in 2023.

9.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24.7 Billion Won, 18.80 Million Dollars /As of 202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자료(2020.12.10.)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본격 가동”)

10.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11.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12.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12-1.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MEASURES AND INITIATIVES REPORT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RODUCTION

Article 11 and related Operational Guidelines of the 2005 Convention acknowledge the key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Paragraph 14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on Article 9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parency” also states that “Parties ensure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in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s according to jointly-agreed modalities. The reports shall indicate the way in which civil society participated in the drafting process”.

In this section Parties are invited to provide information on:

- how CSOs have been associated to the elaboration of the QPR
- relevant measures and initiatives implemented by CSOs during the last 4 years intended to implement the 4 Goals of the Convention
- priorities identified by CSOs to further implement the Convention.

To do so, Parties can:

- Download the CSO form here and indicate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compiling the CSO responses as well as the deadline for contributions;
- Disseminate the CSO form among identified CSOs working in areas covered by the Convention; and/or CSOs selected on the basis of a call for interest; and/or through an open call for contributions;
- Include the contact details of the CSOs who reported measures and initiatives using the CSO form in the first section of the QPR form “General information”;
- Complete the sections below by:
 - Describing the consultation process with CSOs;
 - Selecting the relevant CSOs measures and initiatives collected through the CSO form;
 - Consolidating the responses of the CSOs regarding their future priorities.

CONSULTATION PROCESS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escribe how the CSO form has been used to promote collaboration with CSOs in the preparation of this report, including the distribution of the form and the modalities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information received. Please indicate the percentage of measures and initiatives received that have been considered as relevant by the Party and included in the QP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conducted policy case reviews and discussions (April to June 2022) to select examples of civil society activities for the QPR of Korea. Around ten workshops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ere conducted and ten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o draw the final f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met the implementation goals of the 2005 Convention. For the selected organizations,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m’ was distributed to be completed for a month before submission.

MEASURES AND INITIATIVES REPORT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lease include hereafter relevant measures and initiatives implemented by CSOs during the last 4 years to implement the 4 goals of the Convention. There is no limit on the number of measures and initiatives that can be included. Click on “add a measure” under the respective Goal to fill a new form per each measure/ initiative.

Goal 1. Support sustainable systems of governance for culture

MEASURE N1

1. Name of the measure/initiative

‘Spreading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for Better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

2. Name of CSO(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initiative

Culture and Art Education team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measure/initiative

- Cinema/Audiovisual/Radio Design Media arts Music
 Publishing Visual arts Performing arts

4. Website of the measure/initiative, if availabl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 <https://www.ggcf.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measure/initiativ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is the first public cultural foundation in Korea established by a local govern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team within the foundation in 2019, a number of activities have been promoted to spread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s. In 2021, the team produced a ‘Guide book for Better Culture and Art Education’, which presented step-by-step guidelines for planners, mediators, and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s to realize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in planning, creation, execution, promotion, and presentation. In order to spread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artists,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team also produced an educational video called <DIA project, ‘A Tale of O’>. It is a six-minute-long animated video on YouTube, and is based on an original book from overseas with the message that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should coexist.

In 2020, a ‘3D Tactile Map’ was produced as a part of a planning project under the theme of cultural diversity. A tactile map is a sculpture that provide spatial information to the visually impaired. While it offers spatial experience for disabled individuals, the tactile map provides an opportunity for non-disabled individuals to understand others. This project was carried out through several discussions of artists, planners, and researchers who are visually impaired. The tactile maps are currently installed in Pyeonghwa square at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northern office as well as the entrance of Imjingak Pyeonghwa Nuri Park. As the world's first barrier-free guide maps in public facilities, they promote understanding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 to the spread of cultural diversity.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 YES NO

7. Does this measure/initiative receive or has it received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funding?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initiative?

The purpose of 「A guidebook for Better Culture and Art Education」 was to respond to the civil conflict (hate, discrimination, anxiety, and polarization) that has worsen after COVID-19. The guidebook presented guideline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in planning, creation, execution, promotion, and presentation of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 In 2020, 12 expert workshops and 14 interviews with the people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were carried out to produce the guidebook. In 2021, two workshops were conducted with the selected organizations for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jec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s well as activists in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field. The results from the workshops and the case studies were reflected to enhance the guidebook. Moreover, a 3-minute-long introductory video about the guidebook is uploaded on YouTube to improve user accessibility, and the final version of the guidebook is distributed to over 260 cultural and arts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The original copy of the guidebook is posted on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website for anyone to use. Further, the educational video <DIA project, 'A Tale of O'> is on YouTube and has about 14,000 views. The production and installation process of the tactile maps was also created as a video and posted on YouTube, where interviews with artists, planners, and researchers who are visually impaired can be watched.

In addition, there were three cultural diversity projects from 2019 to 2022. These projects were executed through training, workshops, content production, and exhibitions as a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ject.

Goal 2. Achieve a balanced flow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nd increase the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MEASURE N2

1. Name of the measure/initiative

International Exchange of Thea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 Name of CSO(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initiativ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SSITEJ KOREA)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measure/initiative

- Cinema/Audiovisual/Radio Design Media arts Music
 Publishing Visual arts Performing arts

4. 만약 있다면,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웹사이트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 www.assitejkorea.org

5.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Founded in 1982, ASSITEJ Korea is one of 87 member countries of the ASSITEJ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founded in Paris in 1965). In Korea, the organization strives to develop and spread the performing arts for infants and toddlers, children, and adolescents. ASSITEJ contributes to active exchanges between members (groups and individual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About 200 domestic performance groups specializing in children and youth, playwrights, critics, planners, and researchers work together to create a social environment where art and culture can be developed and opportunities for a wide range of high-quality art experiences for children and youth are given.

The representative projects of ASSITEJ Korea include the 'ASSITEJ International Summer Festiv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mmer Festival)' and the 'Seoul ASSITEJ Winter Festiv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inter Festival)'. The festivals offer opportunities to meet excell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one place. They also discover and provide performing arts that meet development levels of infants and toddlers, children, adolescents, and families.

Started as 'Seoul Children Theater Festival' in 1993, the Summer Festival has been inviting children and youth plays from abroad since 1995 as 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 festival. In 1997, the name changed to 'Seoul International Children Performing Art Festival', and to 'Seoul Children and Young Performing Art Festival' in 2001. After 'The 17th ASSITEJ Summer Festival' in 2009, the Summer Festival has renamed itself as 'ASSITEJ International Summer Festival' for its 21st festival in 2013 to increase participation from abroad. Every year, the

Summer Festival runs for ten days from the 3rd week of July. It invit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ildren and adolescent in performing arts. For the past 30 years, 170 works from 40 countries have been invited. In addition to the performances, there are workshops and conferences to promote exchanges amo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The Winter Festival that started in 2005 is a performing arts festival that runs for ten days in the 1st week of January every year. It aims to establish a market that continues to develop and provide high quality performing artworks from children and youth. The Winter Festival serves as a platform whe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can work on their creative works. To this end, not only does it present the best domestic performances of the year, the Winter Festival runs a separate section called K-PAP (Korea Performing Arts Platform for children and youth) in whic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share their creative methods for exchange and collaboration. Through this platform, all the performances at the Winter Festival are introduce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moters, resulting in expanding into overseas markets.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YES NO

7. 조치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문화다양성기금(IFCD)의 지원 여부

YES NO

8. 정책 및 조치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성취된 결과물

The ASSITEJ International Summer Festival celebrated its 30th anniversary in 2022. Over the past 30 years, it has invited 170 artworks from 40 countries and met more than 300,000 domestic children and youth audience. Since 2014, the Summer Festival has been conducting one or two overseas works as regional performance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local children and youth to enjoy art. In 2021, it created a partnership with four regions (Gwangju, Daegu, Incheon, Gimhae) to conduct performances and special programs with leading children and youth. In 2022, the increase in oil and gas prices due to the war in Ukraine and frequent changes in the quarantine situation have impacted the initial plan from five performances to two in Namyangju (Jeong Yak-Yong Library) and Gwangju (ACC). However, ASSITEJ was able to identify the regions with interest in accepting the works in the future, and plann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regions for the performance in 2023.

The ASSITEJ International Winter Festival celebrated its 18th anniversary in 2022. The 'Seoul ASSITEJ Winter Festival Awards' is held after the Winter Festival. It started as a 'Seoul Children's Theater Award', which was the only children's play award in Korea established in 1992. In 2022, the ASSITEJ Korea announced the winning works through its 30th Awards. The awards ceremony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qualitative growth of creative performances for children

and youth in Korea. The winning works not only attract attention in Korea but also from the global market, receiving invitations to festivals around the world. K-PAP, the only children's and youth art market and platform business in Korea, is held during the Winter Festival. K-PAP has had 46 promoters from 29 countries for two years before the COVID-19 pandemic, selling three performance works to the global market, with 12 in the process (as of 2019).

Goal 3. Integrate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

MEASURE N3

1. Name of the measure/initiative

Artist Residency Under the Theme of Climate Change

2. Name of CSO(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initiative

Producer Group DOT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measure/initiative

- Cinema/Audiovisual/Radio Design Media arts Music
 Publishing Visual arts Performing arts

4. Website of the measure/initiative, if available

Producer Group DOT : <http://producergroupdot.kr>

Artists' Residency at Arts Farm Tutbat : <http://artstutbatclimatechange.com>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measure/initiative

The Producer Group DOT is a collective group of independent performing arts producers formed in August 2014. Currently, four performing arts producers are leading the planning and operation of diverse projects in the fields of theater, dance, and interdisciplinary arts, such as creation of performing arts, international co-production, international exchange, and international residency research. With the main topic of contemporary art, DOT explores topics such as Asian solidarity, cities, borders, refugees, disabilities, and climate change. It creates and plans art projects through creative collaboration with artists in the fields of theater, dance, and interdisciplinary arts. For the past four years (2019–2022), based on themes around city and art, disability and art, technology society and art, and climate change and art, DOT planned projects such as climate change residency, technology lab, and connected city. Asia Producer Platform (APP) and Artists' Residency at Arts Farm Tutbat – Climate Change are some of the major projects of DOT.

The Asia Producer Platform (APP) was established in 2013 by individual producers from Korea, Taiwan, Japan, and Australia. The Producer Group DOT is the founding and planning member of APP in Korea. About 100 independent producers from Korea, Japan, Australia, Taiwan, Hong Kong, Macau, China, Indonesia, New Zealand, Thailand, Singapore, and Malaysia are participating. Each year, APP operates camp and online programs where about 50 Asian performing arts producers participate. As such, DOT introduces contemporary Korean artworks abroad, and continues to promote international tours,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s well as co-productions.

Artists' Residency at Arts Farm Tutbat – Climate Change is a thematic residency that started in 2020. Diverse artists, planners and researchers participate from the

fields such as theater, visual arts, films, videos, literature, and interdisciplinary arts gather to study climate change, one of the most important topics in current times. The 2020 and 2021 residency programs were operated with a big theme of 'The Change of Perception and Perspective on Climate Change', and 2022 set the sub-theme of 'Energy' under the theme of 'The Change of Perspective'.

There are 4 types of residency program. First, the 'Common Workshop' is formed through workshops and lectures where all the resident artists participate in. Second, the 'Individual Research' is a research or work activity conducted independently by each participating artist. Third, the 'Online Residency' is where all the participating artists communicate online. Lastly, the 'Arts Farm Tutbat' is where the participating artists share their results of residency activities in various forms such a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In particular, the Arts Farm Tutbat program ran local research exhibitions and environmental filming programs which gained great sympathy from local citizens on climate change.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where local citizens participate in art projects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diverse opportunities with local communities who are interested in climate change.

In addition, DOT has carried ou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jects with the themes of disability, art, and refugees. Under the theme of disability and art, DOT held a workshop for development of inclusive arts creation (2019), a research and workshop for audience development (2019), and an audio description workshop of dance performance for the visually impaired (2020–2021). In 2022, DOT proceeded with a workshop for performance arts creation and development.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is measure/initiative receive or has it received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funding?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initiative?

Starting with Korea in 2014, Asia Producer Platform (APP) selected a specific country to conduct an APP camp each year. By 2022, a total of six camps have been organized.

Artists' Residency at Arts Farm Tutbat - Climate Change has been running for three years since 2020. It runs Climate Change Residency every six months and holds three workshops to proceed individual and group research to share the results with the local citizens. There are smaller themes within the residency of 'Talking about Environment in Hwacheon 2020', 'The Change of the

Perspective, The Viewpoints over the World」 , 「Climate Change and Energy」 .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residency has the opportunity to share their residency works by participating in various forums, lectures, and webzine domestically or abroad. In addition, the works presented at the residency are invited to festivals, theaters, and galleries, expanding the concept of 'art and climate change' within the fields of art. This, in turn, naturally builds a network of climate change artists.

Goal 4. Pro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MEASURE N4

1. Name of the measure/initiative

Art Tech Education for Women Creators

2. Name of CSO(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initiative

Women Open Tech Lab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measure/initiative

- Cinema/Audiovisual/Radio Design Media arts Music
 Publishing Visual arts Performing arts

4. Website of the measure/initiative, if available

Women Open Tech Lab : <http://womanopentechlab.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measure/initiative

Formed in 2017, Woman Open Tech Lab (hereafter referred to as Woman Tech Lab) is based in Euljiro, where the urban manufacturing industry has grown spontaneously. It combines not only the physical space of Euljiro but also the keywords of ‘woman’ and ‘technology’ to challenge the gender biased and hierarchical culture that is prevalent within the technology utilizing fields such as makers’ culture and media art. Woman Tech Lab is trying to implement “technology from gender perspective – technological practice of feminism.” Through diverse activities such as workshops, exhibitions, seminars, lectures, and research groups, Woman Tech Lab nurtures women’s literacy in technology, and helps develop women to implement independent thinking and practice over technology from a feminist perspective. Main programs include technology research group, The Resisters, and technology education content development.

From 2017, the technology research group has been running on a long-term basis (at least six months) with about ten woman artists or creators every year. Each group meeting selects a keyword topic, and participating members select a detailed research topic of their own interest that meets their bigger theme for their research and action. Based on the keyword, a forum is held where they discuss how technology combined with art is defined, mapped, filtered, and instrumentalized as a device.

‘The ‘Technology that resists, The Resisters’ is a program participating members can experience several technologies that are useful for art creation such as installation, sculpture, and media arts. It also fosters members to create new arts using their own interpretation of artistic expressions. In 2021, ten young (under the age of 29) woman artists were recruited. The goal was to induce technical independence of woman creators, to increase interest in technology, and to build a network among woman creators.

The Woman Tech Lab also develops technology education content, and provides technology workshops and education for those with difficulty in accessing technology and for those with intention of enhancing technological literacy. The Woman Tech Lab developed an introductory kit, specifically designed for women, to offer comprehensive and basic skills of technology (E-Textile, physical computing, coding, DIY crafting, technical hacking, etc.) in creative ways.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is measure/initiative receive or has it received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funding?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initiative?

The first technology research group conducted a research on the theme of 'basic electronic technology' in 2017, and the second research group conducted a study on the 'E-Textile' in 2018. In October 2019, the third research group recruited new members with the theme of 'something for women made by women using technology' and held an online exhibition <Editing f in Encyclopedia> in April 2020. The fourth research group, which started in June 2020, kept with the theme of Circuit Bending, and launched a website called 'Kick-it Circuit' to announce the research results in January 2021. The fifth research group held meetings to design and manufacture their own circuits (PCBs) under the name 'Circuit Breakers' in 2021. In June 2022, the sixth research group pursuing research in the theme of 'Reading Technology Critically'.

The Resisters was selected as Seoul Foundation of Arts and Culture LAB [Out: of School/Genre] project. Targeting young woman creators, The Resisters ran nine education programs and an online exhibition. As companions living in the same era and colleagues with the same problematic mindset, young woman creators met and experienced technologies together such as electricity, welding, hacking, and 3D modeling during the project. It was a place to set independent thinking, explore new culture in technology, and break down the hierarchy. The works of 10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were presented at an online exhibition <Click and Run>.

The Woman Tech Lab also developed an E-textile introductory kit and MOM (body) kit as a technology education content. <E-textile introductory kit: circuit by sewing!> is a DIY kit to experience e-textile that combines electronic technology with textiles. It consists of BUL (LED) and BAB (battery socket), specifically designed for E-textile, a conductive thread that connects electricity, a needle, and a button. Participants can complete a circuit that turns on the LED by sewing. Anyone can purchase the kit and produce a circuit with the enclosed

manual without even attending the workshop. The MOM (body) kit is a microcontroller board that can be connected to other electronic components such as sensors and speakers. For easy understanding, it uses a concept of a microcontroller that is represented by Arduino, in a human-shaped MOM (body) board along with materials such as conductive tape and conductive thread. With MOM (body) board, participants can compose a simple circuit, and can enjoy electronics and programming in a fun and interesting way through the making process. The MOM (body) kit includes components such as BUL (LED), BAB (battery socket), and TOOL (tools, open circuit) that can be connected to the MOM (body) board.

In addition, the Woman Tech Lab developed a 'Euljiro style multitable making workshop', and 'Physical interface design workshop that connects your body and senses'.

Goal 4. Pro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MEASURE N5

1. Name of the measure/initiative

Support for the Activities of the Disability Arts Association by region and genre

2. Name of CSO(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initiative

Corporation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3.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measure/initiative

Cinema/Audiovisual/Radio Design Media arts Music
 Publishing Visual arts Performing arts

4. Website of the measure/initiative, if available

Corporation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
www.fdca.or.kr

5.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measure/initiative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Jang Ye Chong) is a corporation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stablished by the alliance of eleven cultural and artistic organizations for disabled people across the country.

Jang Ye Chong carries out various activities to ensure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secure their cultural rights as creators and enjoyers. First, it supports artists with disabilities so they become the main body of artistic creation, spreading the artistic value that can only be created by artists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Jang Ye Chong aims to support disabled people to continue their artistic activities as a profession, ultimately encouraging employment and independent living for disabled artists.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enjoy culture, Jang Ye Chong encourages disabled people to participate in society,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d pursuing happiness through arts.

Therefore, Jang Ye Chong promotes diverse projects including culture and art festivals by nurturing artists with disabilities, preparing spaces for artistic activities,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and improving social awareness for disability arts, and policy research project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Representative projects include A+Festival, the cultural arts festival for the disabled, Special K, the cultural arts contest for the disabled, and The National Literacy Awards and Art Exhibition of the Disabled.

'A+Festival' is a culture and art festival that started in 2009. With the motto of Ability, Accessibility, and Activity for the disabled people, 'A+Festival' aims that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ll together through arts. It encourages people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as the main body of their artistic creation,

not as passive spectators. 'Special K', which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in 2022, is a cultural arts contest for the artists with disabilities to serve as social and artistic stepping stones for their active artistic activities. The contest categories include traditional music, practical music, classical music, dance, and theater/musical. 'The National Literacy Awards and Art Exhibition of the Disabled' selects excellent works and awards prizes. The literacy awards have two divisions of verse (poem, children's poem) and prose (short novel, intermediate novel, essay, tale). The art exhibition has Korean painting, Western painting, crafts, sculpture, calligraphy, literary painting, engraving and embossing calligraphy.

6.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7. Does this measure/initiative receive or has it received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funding?

YES NO

8.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initi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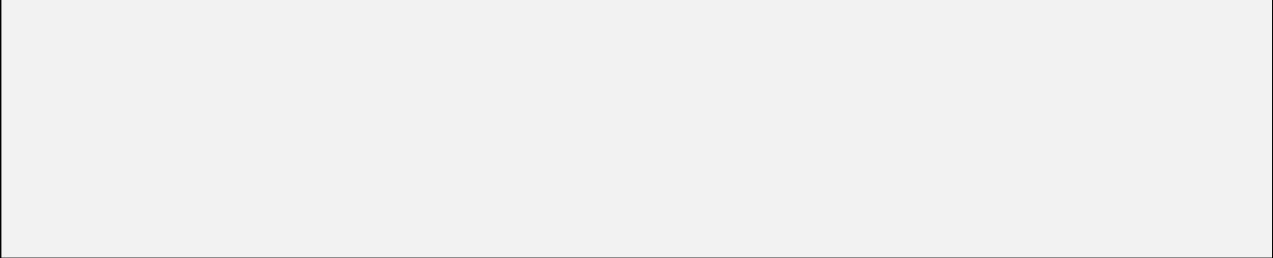
From 2009 to 2022, there were a total of 14 A+Festivals with around 1.4 million visitors and 20,000 artists with disabilities.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in 2022, Special K discovers diverse artists with disabilities in the areas of practical music, classical music, dance,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heater/musical. As of 2022, Special K discovered around 3,000 artists with disabilities in the performing arts area, who are actively performing at home and abroad. 'The National Literacy Awards and Art Exhibition of the Disabled' celebrated its 32th anniversary in 2022.

In addition to this, Jang Ye Chong promotes social participation and artistic activities of disabled people through various initiatives. Through the 'Able Access Art Fair', approximately 60 artists and 3,000 visitors participate every year and more than 20 Million Won of artworks are sold so far. Through the 'International Art Exchang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bout 600 artworks are received, reviewed and finally selected each year, with a special exhibition held i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hrough the 'FDCA Academy', practitioners of cultural and artistic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for disabled people participated and identified the status of disability arts, discussed development plans, and received practice training for planning, funding, and publicity. With the 'Job Development Project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initiative, a new job titled 'Curator of Emotional Support' was developed which combines art and nursing care, with proper training and job manuals. In addition, Jang Ye Chong conducted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to cultural gathering facilities' to build convenient and accessible facilities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Jang Ye Chong inspected whether facilities are compliant with accessibility regulations, and suggested improvements by the types of facilities (main entrance, parking facility for the disabled, door, etc.) and types of disability (visual, hearing, intellectual, physical development). Lastly, 'AND Webzine' are published every year since

2020. 'AND Webzine', an abbreviation of Art & Disability, was designed as an online forum for people with or without disabilities to communicate and integrate through art and culture.

**MAIN PRIORITIES IDENTIFIED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responses provided through the CSO form, present up to ten main priorities of CSO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over the next four years.



EMERGING TRANSVERSAL ISSUES

INTRODUCTION

Parties report on emerging transversal issues identified by the governing bodies of the Convention for each reporting cycle. A resolution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could determine the transversal issue(s) to be reported on for each four-year reporting cycle. This sub-section also enables Parties to present any other policies and measures that directly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at would not necessarily be covered by one of the 11 monitoring areas of the Convention.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MEASURE N1

Name of the policy/measure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in the fields of art and culture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sia Culture Center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Radio Design Media arts Music
 Publishing Visual arts Performing arts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With the 2015 Paris Agreement,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and responds to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Korean government is discussing measures in all areas of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y organizing the 2050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ssion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and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effective from 2022). From around 2021, the cultural field has recognized and responded to climate crisis.

Starting with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research, forums, and artistic activitie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s a form of cultural expression.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conducted a basic research to establish cultural and tourism policies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in 2021 such as 「A study to Introduce Environment Friendly Perspective in Cultural Arts」 and 「The Tourism Policy Direction to Respond 2050 Carbon Neutrality」.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held the 9th <Human

and Culture Forum> under the theme of 'How to improve our environment – Things we needed for a sustainable global environment' in 2021. Furthermore, <Climate Emergency: A Rehearsal> b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not only reminded the audience of the importance of carbon neutrality, but also measured the carbon footprint generated in the entire process of production, publicity, and showing of the performance. It was an attempt to establish standards for carbon footprint reduction for the future performing arts.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held an exhibition <All About Attitude> in Culture Station Seoul 284, which reflected the essence of human beings through the climate crisis. Asia Culture Center held <Aqua Paradiso>, reflecting the themes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risis.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also presented special exhibitions on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Sustainable Museum: Art and Environment> and <Posteriority>.

In July 2021, The Ministers of Culture of the G20 group had a meeting in Italy and agreed on a declaration that firmly positions culture as a major engine for sustainable socio-economic recovery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It particularly mentioned culture having a very important role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ssue. In this context, Korea's cultural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in the public areas l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artly contribute to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agenda.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re is diverse research, forums, art activities happening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using culture as a median.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with the themes of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 issues stand out among those.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Climate Emergency: A Rehearsal> b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creators shared the carbon emissions generated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and tried to reduce them in the areas of stage setting, costume, lighting, sound and video, and makeup. In the stage setting, the creators tried to cut back the production of new sets and minimized post-performance waste by using existing props owned by the theater company. Instead of making new costumes, they used existing clothes and used vegetable detergent for washing. In the lighting installation, they used LED lighting instead of incandescent lamps for electricity efficiency, and chose a sound delivery method that uses less power. Makeup artists used vegan cosmetics on actors, and produced promotional posters and program books using eco-friendly

paper and soybean oil ink.

In the field of visual art,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is a good example. In its 2021 exhibition of <Sustainable Museum: Art and Environment>, the creators tried to reduce waste and carbon emissions generated during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artworks. To do this, they transported six artworks from New York via sea, not by air transport, resulting in reduction of carbon emissions by 1/40. In <Posteriority>, which was about a marine pollution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the creators made and sold eco bags out of the waste materials from the exhibition. They also produced and distributed an upcycling experience kit, 'Dreaming Sea in my bag'.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MEASURE N2

Name of the policy/measure

Conduct research and events to spread a culture that respects diversity in universities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Cinema/Audiovisual/Radio Design Media arts Music
 Publishing Visual arts Performing arts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Seoul National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https://diversity.snu.ac.kr/page/provision.php>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In March 2016, Seoul National University became the first Korean university that established a diversity council. The purpose of the council was to create a creative academic community and a healthy university culture where they understand and respect diversity. The SNU Diversity Council publishes 「The Diversity Report」 every year, and runs a contest for diversity books and films, a forum for public discussion on diversity, and a student internship program.

「The Diversity Report」 identifies the status of diversity of all members of SNU by yearly basis in the areas of institutions, gender, nationality, job titles, prior school, contract type, and disability. The report also looks for ways to support school life as well as work-and-life balance for diverse members. The Diversity Book and Film Contest is held annually from March to April for all members, and invites the members to write recommendations to refresh interest in diversity. As follow-up events, the Council runs a diversity book concert and a dialogue with audience while watching films of diversity. In addition, there is a forum for public discussion on diversity issues through a policy forum and diversity dialogues, where the results of the SNU Diversity Council research projects are shared. The Council also support students by operating a Diversity Internship Program where students directly participate in creating a community culture that respects and cares about diversity.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In commemoration of The 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 (May 21), the Council held a Diversity Book Recommendation Contest, a Diversity Book Fair, and a Book Concert to hav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culture of respect and consideration in the school. The 'Diversity Book Recommendation Contest' was held as a pre-event before the book fair. The Diversity Book Fair was jointly hosted with the Central Library, displaying the books that are selected through the screening process. The selected books in the recommendation contest have been exhibited for a month in the Book Cafe on the 2nd floor of the Central Library with their promotional materials and souvenirs since 2009. Lastly, the Council invited the authors of the books for a Book Concert as a follow-up event. From 2022, the Council extended the media to include a variety of books/films for recommendation. Also, in 2021, as a joint project with Arts Council Korea, it researched on 'Development and pilot operation of an online curriculum for nurturing cultural diversity professionals' and a basic course is now open at K-MOOC from December 2021.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MEASURE N3

Name of the policy/measure

Research and project for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endangered Jeju language

Name of agenc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Center for Jeju Studies

Cultural domains covered by the policy/measure

- Cinema/Audiovisual/Radio Design Media arts Music
 Publishing Visual arts Performing arts

Website of the policy/measure, if available

Center for Jeju Studies : <http://www.jst.re.kr>

Describe the main features of the policy/measure

Center for Jeju Studies was established in August 2011 as a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funded institution. It conducts projects for research and popularization of Jeju studies. In particular, various studies and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for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Jeju language, which has been declared as an endangered language by UNESCO.

First of all, to preserve the endangered Jeju language the Center is running 'Jeju Language Research Project' and 'Jeju Language Study Project'. The Center met with people who speak Jeju language and recorded their voices as audio and video data. Then it proceeded with research on traditional culture and social customs according to specific topics. Those materials that came out of research were presented to the public through transcriptions, oral data collections, and publications. The Center also carried out 'Jeju Language Oral Recording Project (2014-2016)', 'Jeju Language And Jeju Traditional Culture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Project', and 'Jeju Customs Survey Project'.

As part of the Jeju Language Study Project, the Center holds academic conferences about Jeju language, covering current issues and policy studies as well as publishing and distributing booklets about Jeju language. One of the examples is 'Jejueo Guidebook (Jeju language library series)', a publication for those who want to learn practical Jeju language. The book connects language with cultures such as clothes, food, house, etc. and serves as a guidebook so that average people can learn Jeju language easily.

Lastly, in order to promote and distribute the Jeju Language to more people, the Center is promoting the Jeju Language Popularization Project. It operates the 'Jeju Language Counseling Center of Deu-reo-bob-seo', a real time Jeju language consultation service, and runs Jeju language contests to find beautiful Jeju words and writings. The project also ran Jeju language material exhibition and forums where Jeju language-related groups and activists gathered to share the achievements of research on Jeju language and discuss future together.

Does it specifically target young people?

YES NO

Does the International Fund for Cultural Diversity (IFC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YES NO

What are the results achieved so fa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The Jeju Language Research Project consists of a standard language translation project for oral data in the Jeju language, a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project of the Jeju language and traditional culture, and an oral recording project for social customs of Jeju. From 2017 to 2020, the Jeju language data from 36 villages in 12 towns and villages in the Jeju area were translated to standard language with footnotes. The Center published the data as a 36 volumes of oral data collection of Jeju. In addition, since 2019, a total of three materials related to the Jeju language and Jeju traditional culture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project have been published. In 2022, a survey related to the stone culture of Jeju is being carried out.

There are four major initiatives within the Jeju Language Study Project. A total of two Jeju language Jeju Guidebook (Jeju language library series) were published (2020), and Jeju language study reports were published in 2020 and 2022. In 2019, the Jeju Studies Academic Conference was held for the third time, and in 2022, the fourth Jeju Language Development Basic Plan was established.

The Jeju Language Popularization Project continues to promote the Jeju language. Opened in 2009, the Jeju Language Counseling Center provided counseling and published three booklets. From 2018, a total of four award-winning works were published through the Jeju Language Contest project. As of 2022, the 10th contest is underway. Since 2020, the Center held a Jeju language forum, 'Nulda' to provide a place for researchers, groups, and activists to share and communicate their achievements.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to the policy/measure in USD

-

Name(s) of partner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

Type(s) of entity(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CSO

H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measure been evaluated?

YES NO

If yes, what are the main conclusions/recommendations?

-

CHALLENGES AND ACHIEVEMENTS

Describe the main results achieved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t least one major achievement in one of the four goals):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s and promotes diversity in cultural expression in its policies, measures, and programs across the nation. As such, the 2005 Convention has become an effective tool for spreading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between governments, and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Spreading cultural diversity and increasing policies are important achievements not only at international level, but also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The Republic of Korea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diverse cultural policies and programs that reflec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2005 Convention, and is continuing its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lthough the QPR of Korea faced challenges and difficulties due to COVID-19 pandemic,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ed a number of measures to continuously develop an environment in which diverse cultures get together and coexist. Key achievements are as follows.

(Governance System) In order to promote diversity in cultural expression throughout the entire cycle of creatio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enjoyment of culture, the Republic of Korea expanded the range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on cultural diversity such as cultural diversity status surveys, public perception surveys, and public institution surveys. Furthermore, the Republic of Korea formalized the governance system by establishing basic planning for cultural diversity and designating an exclusive agency.

(Mobility of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During COVID-19 pandemic,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ed policies and programs to support art in a non-contact environment to secure artists' rights and mobility. It also promotes innovation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to solve problems in a digital environment. Under the Constitution,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rights of artists, and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policies for artists such as life stabilization fund load and employment insurance due to COVID-19.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ed in developing a framework that promotes cultural diversity policies within local communities, and formed a consistent relationship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urrently, 17 local governments and two regional education offices have enacted and implemented cultural diversity ordinances. Additionally, 12 regions have conducted factual surveys to discovered issues on cultural diversity within the regions.

(Human Right and Basic Freedom)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ed an indicator and performed data analysis to foster gender quality in art environment. In 2022, it established the 'Basic Plan to Suppor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or the Artists With Disabilities (2022~2026)' to guarantee active supports for artists with disabilities' creative activities. Such supports include creative support, professional education and manpower training, international exchange, and development of standard performance theater.

Describe the main challenges encountered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the main solutions found or envisaged to overcome them: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5 Convention is the outcome of cooperation with its member countries, and other domestic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Many of its policies (such as awareness improvement and capacity building) need great effort and are process-oriente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produce tangible results in short term. Despite efforts with laws, institutions, and governance systemization, cooperation and performance monitoring with policies are still challenging. Furthermore, many policies and measures include research, survey, planning, and data management which are not financially funded.

Active discourses and spread of value in private economy (industrial) are important for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Unfortunately, there is a lack of cooperation with private economies due to profit-driven nature of their activities. Therefore, continuous attention and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that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nd measures not only occur within the government, but also in local community and private economy.

Describe the steps planned in the next four years to further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the priority areas identified for future policy action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e current reporting process:

From 2021 to 2024, the Republic of Korea will carry out a policy program to implement the '1st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l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ther ministries include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ain strategies of this plan are 1) protection and expansion of cultural diversity, 2) ensuring cultural participation and accessibility of minorities, 3) spreading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and forming a foundation for coexistence. The aim is to create a cultural ecosystem of diversity and inclusion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enjoyment of culture. In particular, the Republic of Korea plans to continuously review new challenges and measures through the expansion of cultural diversity awareness projects, development of cultural diversity monitoring and evaluation initiatives, and consultation with government authori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uring the period of writing the QPR of Korea in 2022,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was newly inaugurated. The new government's national policy principles align with that of the 2005 Convention, which are national interest, practicality, fairness, and common knowledge. Thus, future policies will implement programs that emphasize cultural diversity and inclusion.

ANNEXES

Please upload relevant documents (law, policy, agreement, regulation, strategy, etc.), studies and statistics in PDF format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4 goals and the 11 areas of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in your country. The documents should have been produced during the reporting period covered by this periodic report. Please provide the title and a description of the main content of the document in English or French.

Title of the document

1st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Description of the document

Based on its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2014,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s a basic plan every four years. The basic plan includes policies and measures from ten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first plan was announced in 2021, with duration of 2021~2024.